지구촌 돌봄 목회를 위한 연구

THE STUDY ABOUT GLOBAL CARING MINISTRY

By

Kim, Kyung soo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EW YORK

2018

CHALLENGE STATEMENT

현대 사회에서 교회들이 돌봄을 향한 목회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 어려운 문제점 중 하나는 사람들과 소통 문제를 격고 있다. 교회가 교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가정들이 갖고있는 문화적인 것과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돌봄과 나눔을 구상하는데에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목회자와 비목회자의 개방과 패쇄의 문제 즉 패쇄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교회가 교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환경과 성장 과정을 환경 을 통하여 극대화 시켜야 한다.

ABSTRACT

The study about GLOBAL caring ministry

By

Kim, Kyung Soon

We have given a considerable as a result of trying out. The pervasive method through the article that caring is essential in our life. Before that I thought that caring was only needed for a specific person.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ssues on a regular basis, the church should exert its utmost efforts in various aspects of caring.

Especially caring prayer movement is needed. Care ministry is a necessary part of spirituality because It focuses on the holistic interest of those who live in crisis. Sharing of the main vision of the church, increased attendance at worship improved ability and confidence in difficult issues. The difference in cultural generation was great that I dare not know where to start. But through various biblical,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ly proven methode.

There were at least no disappointments when approaching in various ways. Fear was lost and became a force life and a force for them in various forms of care. I was able to produce beautiful results that changed my life direction and cdnsciousness and I got confidence. Even though it was a short time, there was a beautiful result even though applying this principle. I am proud of my heart because I have beautiful results. There are, of course, thing that are not covered in this paper or that need to be improved.

Today, we have a lot of care in different institutions. People who do occasional disgraceful work of caring with the mistakes of people have also seen many people through mediators.In particular. There are people who are soldiers who sell their names and fill their desires, so that the faces of people with beautiful hearts are faded. I took care of myself and gave a seminar, which caused a change of consciousness, a practical chang, and a confidence.

However, I realized that there are areas that need to increase and increase ongoing improvements. This ministry is not limited to those who are nearby. We need to look at the wider worod, broaden our horizons, and live in a community with other races. We need to work hard stand up and broaden our horizons. As I wrote this paper, I had the self esteem ane confidence that I could not know, but now I can do anything. We live in a time when we can not live without care of each other. In the old days, I thoughr that it was helping those who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those in crisis, but now I live in a time when we must help each other. That is, I live in a world that is as hard as it is.

However, it is because I am hurt by people who are close To me and I want to have a sincere comfort in them. Just as Jesus looked after the hungry, jusr as he took care of the crying women as they climbed the hills of Golgotha, now ministry is the ministry of caring for the soul. In this respect, this paper is written to look after the broken Hearted and sad saints and children and women and hardships Who live hard. As Jesus encouraged and comforted the saints who were suffering, this essay wrote about the needs and the theories in the wise how to care for each one, the things to do and the things to go directly to the field.

ACKNOWLEGEMENT

부족하지만 백창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격려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셨기 때문에 이논문을 쓸수 있고, 제출 할수 있었으니 나에게는 무한 감사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백창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때 마다 제가 못알아 들을가봐 또박또박 이해가 잘되도록 신경써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해주신 백창건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사이트 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제가 쓰는 논문에 책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주셨고, 논문이 나오기까지 격려 해주시고 용기주셔서 완주 할수 있도록 우리 사이트 팀의 도움이 아니였으면 좌절할뻔도 했지만 자리에서 주저앉지 못하도록 늘 나를 관망하고 늘 나에게 용기를 주신 사이트 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일부인 실천을 하는 곳곳 마다 기쁨 마음으로 나와 동행 해주시고 길거리에서도 전혀 관여치 안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심에 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심 양면으로 저를 도와 주시고 늘 옆에서 긍정적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집에 일에 신경 안쓰게 해서 오로지 논문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오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저희 가족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 차

CHAPTER 1. 서 론

1. 목회의 지역적 배경

New Jersey Bergecounty Rutherford[1]는 마을 전체가 공원이나 다름없다. 1687 년 Van Winkle 이라는 Netherlands 이주민이 마을 이름을 "나무의 도시라"라 정하고 6000 그루가 넘는 상수리,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등을 타운에 심었다. 울창한 수목으로 인해 따로 공원을 찾을 필요없이 집앞에 나서면 바로 산책로가 펼쳐진다.

마을입구 들어서면 개찰구 없는 Rutherford 기차역이 시골 간이역의 정겨운풍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에는 최근 지어진 건물과 Condo 가 새건물 답지 않게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타운의중심인 Park ave 를 따라 식당, 옷가게, 미용실, 은행 등의 상가가 이어져 있다. Park ave 와 Paseik ave 가 만나는 지점에는 2 층 높이의 첨탑이 1 차 대전 당시 rutherford 출신의 전사자를 기리고 있다. 바로앞 Lincoln park 앞에는 역시 한국 전쟁과 Vietnam War 당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대포 조형물이 타운 한복판을 져주고 있다.

매년 Lincoln park 에서는 다민족 축제가 열리기도해 마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된다. Rutherford 는 4 층 이상되는 건물은 없다. 최근 주택시장 호황 으로가는 곳마다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짓는 열기는 Rutherford 만큼은 예외다. 고도 제한으로 균형잡힌 town 은 옛 것과 새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구 2 만명에 2.6 Village Square 의 작은타운 Rutherford, Manhattan 과 11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복잡한 도시풍경은 어디에도 없다. 교통환경은 Manhattan 으로 출근하는

[1] m.koreadaily.com.

사람들은 rutherford 의 장점으로 첫 번째를 편리한 교통으로 꼽는다. 터널을 이용하면 10 분에서 20 분거리이고, 대중교통이 가장 잘 발달된 5 개 타운 중에 한 곳으로 꼽힌다.

2

타운을 감싸고 있는 고속 도로도 잘 발달되어있다.Park ave 에 있는 Williams 센터는 이 지역 출신으로 플리쳐상을 수상한 Kerr Ross Williams 를 기념하는 극장이다. 3 개의 상영관과 두개의 홀이 있다. 마을 곳곳에 놀거리, 볼거리가 풍부하다, 최근 한국 서적이 많이 늘어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Memorial Park 나 Riverside Park 까지 산책하면서 보내는 주말은 평화롭다. Union ave 에 있는 Memorial Park 까지는 30acre 규모로 Tennis Court, 축구장, 야구장, Picnic Facilities 등이 있다. Ridgeroad 에는 Vitorianstyle 의 주택들이 섞여 있다.

[2] Google map.

아직까지는 집이 오래 됐고 면적이 작아서 North Bergen 보다는 집 값이 싼 편이다. Manhattan 으로 출근하는 젊은층들이 이곳을 선호하고 있다.

교육은 5 개의 초등학교와 주일학교, 고등학교에는 2300 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New Jersey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5 개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의 8%를 한인학생이 차지하고있다.학급당 학생수가 22 명으로 뉴저지 평균보다 약간 높다. SAT 점수는 1038(수학 529 점, 영어 509 점)으로 4 년제 대학 진학률은 71%, 2 년제 진학률은 22%, 학생 1 인당 배정되는 교육 예산은 연 평균 1 만 1325 달러 지난해 College Board test 결과 Ruterford High School 1032 점을 받아 뉴저지 평균 1012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Ruterford High School 은 인터넷 접속 Computer 배당 비율이 2.9 명으로 New Jersey 평균 4.8 명보다 낮다. 이 학교에 또한 TV studio 시설 등 대학교 수준의 환경으로 유명하다.

2. 교회 역사 배경

New Jersey Agape Church 는 2004 년에 4 가정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이되어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인도로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시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겉과 속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목사님과 기존해 있는 성도님들은 새로 이민 오신 성도님들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같이 내 형제 자매같이 힘든 일들이 있으면 시간과 물질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사람 한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남의 일이 아니고 피를 나눈 골육 친척 보다 더 귀한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여 정말 섬기기에 힘을 썼고 지금도 서로 돌보고 있읍니다.

이민 오신 모든분들이 다그랬 듯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은 왔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들만 놓아 두고 일을 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에 오신분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한국말만 하다가 미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 역시 한국과는 너무 다른 문화를 접하니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한국 민족 뿐만 아닌 이 문제가 대 뉴욕이라는 곳에서 다민족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것이다.

교인 중에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그만 학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그만 친구들과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이 아이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망만 보아주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아이는 도망을 못가서 그만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교회다니는 성도님 가정에서 일어났으니 목회자로써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자비로 시장도 봐다 드려야 할 경우도 처할 때가 있다. 아파트를 얻어 드리고, 자녀들 학교 가는 문제로 학교도 가주어야 하고 아파트 Gas 도 오픈하는 모든 일 등등의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주었다. 위 문제 같은 경우 영어가 안되니 법원에 가는 모든 문제와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 정말 교회를 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야는 힘든 일들도 있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든 제반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의 일로 인해 교회는 언제나 24 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교회는 선교소명과 돌봄의 사명이 있는교회이며 다민족을 돌보며 교회 근처에 있는 다민족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과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교습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급자족하도록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들의 진로를 알게하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담하기도 한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 나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 선교하고 여러가지 사역 중에 침 사역, 미용 사역, 사진 사역, 어린아이들 사역, 안경 사역, 내과 사역, 치과 사역 등등의 사역으로 교회 주변의 다민족과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역들을 우리교회가 감당하고 있으며, 선교지에 나가서도 이런 사역들을 교인들과 아니면 동역자들이 팀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들 자신들이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선교와 이웃 돌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 할 수 있읍니다. 새벽예배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날마다 급성장 하고있다. 성경공부를 통해 성도님들의 성경지식도 날마다 신학생 못지 않은 실력들이 되어가고 있는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뿐이다.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특히 찬송가를 쉽게 반주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미용, 네일, 이발, 피아노, 영어, 한글학교를 우리교회에 행하는 교회학교 실태를 말하고있다.

3. 목회적 과제 중심 배경

뉴저지 제일 사랑 교회는 성경 공부와 선교와 이민자들 돌봄과 어려운 이웃을 돌봄에 전념을 한다. 구원 받는 자들과 제자 양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며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 전진하고 있다. 주변의 다민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교회를 빌려쓰는 다른 교회와도 서로 교류하며 특별한 절기에는 연합하여 예배도 드리기도 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교회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내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증인의 역활을 잘 감당하며 산다.특별한 절기에 교인들과 함께 섬기는 행사도 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과 거리로 나가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는 아름다운 행사를한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영혼을 살리는기도와 제자를 양성하는데전념 한다.미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고 나이드신 어르신분들만 조금있는 실태를 보고 젊은이들을 겨냥한 목회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와서 유학을 온학생들 에게 마음을 쓰며 혼자있는 유학생들의 진로와 상담사의 역활도 우리교회에서 하고있다. 왔다가 공부가 끝나면 가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교회가 엄마, 형, 누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한다.

CHAPTER 2. 돌봄 전략

1.목 적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부딪히고 만난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마음 있었는데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불타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문화가 다른 저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도 나에게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 안에서 측은한 마음까지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끝까지 저들을 품어야 하겠다는 집념이 나에게 생겼다. 하나님을 모르는이방인들을 보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하고 돌보아야 겠다는 일념 밖에는 없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을 때도 도저히 용서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내가 희생하고 용서를 하면 저들의 마음 감동을 받아 전도를 받아들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같이 했더니 저들의 생활이 변화 받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오리엔탈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던 사람들도 나를 가까이 하고 나의 어려움을 보면 달려와서 발 벗고 나를 도와 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도 이민오셔서 힘든 생활들을 하듯이 다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생활들이다 보니 본이 아니게 도둑질들을 하며 생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은 아니였지만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을 얻은 기쁨과, 천국 백성을 얻었다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 비교도 안되고 비길수도 없는 기쁨이 였읍니다. 논문의 목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돌보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교회가 저들에게 공급할수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며 도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② 사회에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낙오자가 없도록 돌보아 주어서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살게하기 위해서이다.

③ 돌봄이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수 있는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성 훈련에 목적을 두며 나아가서는 사회에 이들도 사회에서 받은 것 환원하는 것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④ 돌봄의 사역에 있어서 모름지기 힘들고 다가 가기가 쉽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명령을 따라 주안에서 내형제 내자매 이므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따라가며 소통이안되고 살아온 환경이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다는 믿음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것 가지고 힘을 다하여 돌보는일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민을 바로와서 미국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태이고 친척들이 있다 해도 본인들의 생활이 힘들고 시간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안에도 많고, 이웃사람들, 친구, 이민을 바로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3]

[3] 김지수.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서울: 비전과 리더쉽. 2010)65.

2. 목표(object)

(1) 의식변화

교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나 먼저 성도들의 의견과 사고를 조사해야 하는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저들 영성이 어느정도인지도 알아야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된다. 개인주의사상이던 저들을 공동체의 의식으로 함양해야 한다.

＊ 설문 조사

문학을 통해서,영화,동영상,세미나,선교지 방문,설문조사,성경공부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의식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설문 조사

(2) 문화적 접근

- 도서를 통해서

“거짓 신들의 전쟁” 이라는 책을 구입하여 돌아가면서 읽고 서로의 느낀 것과 자신만의 생각을 토론하는 형태로 대화를 나누고 논문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책을 구입을 했다.

- 동영상을 통해서

울지마 톤즈 : 이 영화는 신부가 의사 되기를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자처하고 남이 안가려고 하는 주의 길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다가 48 살에 병마와 싸우다가 생을 마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하며 그의 마지막가는 길을 보며 애통하는 영화이다. 단기선교 갔다온

동영상이나 선교지에서 보내온 동영상을 상영하여 서로 감상하며 보충할 것과 즉 사랑과, 필요한 물품과, 금전적 후원으로 한다.

-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 역사의 땅 이스라엘

종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세계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 그들의 활동을 보며 습득할 것들을 관찰하며 예리한 눈으로 기획이라든가 실제로 그들의 활동들을 배울 것이다.

(3) 현장 탐방

- 돌봄 교회 탐방

브롱스에 가면 Jesus Iglesia 돌봄 교회가 있다. 함께 노방 전도를 한다.

- 할렘 거리 전도

빵과 물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4) 예배와설교

- 선교사님 초청 설교

David paster, Boby Brown

(5) 세미나

- 신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한다.(최양선 목사)
- 영성을 전공하신 목사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한다.(김주환 목사)

3. 돌봄의 실천

*설문조사

돌봄 목회에 의식변화 상황 파악하고 실천계획에 큰 기대 사이트 팀들과 진행해 나갈 것과 변화된 돌봄 목회에 대한 설문 조사

(1) 돌봄 상호 간의 교류 확대 증진

1) 결손된 가정의 아이들을 돌봄

- 가르친다: 영어, 수학, 노래, 피아노, 키보드 등의 악기

- 놀아주기: 놀이 기구들을 통하여 친밀감을(강화)회복 시킨다.

- 식사 제공: 한국음식과,여러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게해준다.

- 상담해준다: 도형 상담을 해주며 성격을 파악해준다.

- 단기 입양: 결손가정 아이에게 부모가되어준다.

2) 싱글맘 기술 습득

- 미용 기술: 머리자르는 것, 파마, 고대,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가르친다.

- 이용 기술: 머리 감는 것, 머리 자르는 것을 가르친다.

- Total 기술: Manicures, Pedicure ,Massage, Facial

- 재봉 기술: 옷 만드는 것, 옷 고치는 것을 가르친다.

3)문화 교류

- 전통문화 교류

- 음악회

4)장학금 수여

- 목회자의 자녀

- 선교사의 자녀

- 신학생

(2)상호 협조하는 수수 공동체

1) 베이사이드 시니어 센터들을 방문

- 사물 놀이를 보여줌

- 색종이 접기

- 한국 무용 가르치기

2) 효신 시니어 센터 방문

- 시민권 받는 것을 도와준다.

- 사회 복지 활동을 도와준다.

(3)기술 훈련을 통한 복지 생활

- 컴퓨터 가르치기

- 사진 기술 가르치기

- 미술 가르치기

4. 구조 변화

의식 변화와 실천 계획 실행후 돌봄목회에대한 구조 변화에 한단계 높여서 연관성에 대한 설문 조사

(1) 전교인 돌봄 훈련

교회가 도미니카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에 소식을 나누며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유하며 서로 왕래도 하고 그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보내주며 저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도록 교회에서 힘을 쓴다. 이렇게 하면 교회 구조가 바뀌어 간다.

(2)주일 학교 교육

교회에는 어른들의 찬양대가 있지만 먼저 우리교회에 어린이 찬양대를 결성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도미니카 아이들을 찬양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 율동 그리고 미술을 가르쳐서 정서적으로도 저들에게 맞는 재능에 맞게 가르치며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3)이웃 나라와의 결연

이웃 나라와의 자매 결연한 곳의 지역에 지도자들과, 경찰들, 소방관들, 학교 관계자들, 특별히 종교계에 계신 분들과의 교류도 추진하며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것을 여선교에서 맡아서 해외 선교를 하도록 한다.

CHAPTER 3. 연구 분석

1.성서적 연구

세계화가 확대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회의 돌봄 역시 더욱 활발하고 광범위 하게 여러 층으로 나가고 있다. 돌봄 사역들은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뿐만아니라 한 나라와 지역 안에서 세계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있다. 상황 가운데서 돌봄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돌봄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4]

돌봄 목회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라고 할 때, 이 속에 돌봄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된다. 돌봄은 보호, 간호, 인도 라는 뜻이다. 이 말은 걱정, 불안, 슬픔, 괴로움을 가진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봄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원하든 원치 않던 목회적인 돌봄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5]

성공적 돌봄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는 사역이다.

---

[4] John patton. 장성식 옮김.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한국전인 교육 개발원. 2000)56.

[5] 홍영택. *가족 목회 21 세기 가족을 위한 돌봄과 치유*.(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2015)282.

성경은 그 원리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주노니 '서로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에서 찾을 수가 있다.[6]

목회신학자 Thomas C. Oden 은 '영혼을 상대하는 직업은 목회'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나 정확한 공명 상황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측면 곧 목회자의 애정, 자질, 성숙한 인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시말하면 영혼을 돌보는 목회사역은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전체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작은 모임들과 구성원들을 양육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마스 오덴은 영혼의 돌봄은 전인적인관심에 기초해야하며 신체적(경제적), 도덕적(의지적), 영적(영원한 돌봄), 차원에서 돌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상담이란 경청의 목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교인문제와 고통을 듣고 그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이라고 보았던 것이다.[7]

이것은 한 마디로 "신앙과 기도만으로 성도돌보던것을 철저히 개인화하여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는 성경적 돌봄 프로그램이다"라고 알 수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돌봄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사역(Care M inistry) 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같이 있어줌으로서 예수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목회사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8]

이 문제는 다름 아닌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또는 다중문화적(muticultural) 상황에서 다양한 리더십의 의미(value)와 형태의 충돌이 있다. 따라서 세계 교회에 있어

---

[6] Henry Nauen. 윤종석 역. *돌봄의 영성.* (서울: 두란노. 2014) 77.

[7]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실천적 목회학.* (서울: 대서. 2015) 73.

[8]김경수. *성경적 돌봄.* (서울: 서로사랑. 2006). 48.

현 세대 지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며 단일 문화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들을 유능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스타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일은 쉽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한편, 24 년 간의 교차문화적 리더십 경험, 성경, 리더십이론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에서 나온 통찰과 원리와 실제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고, 적합하며 온전한 리더십을 계발하여 이 긴장을 적절히 해소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도나 돌봄의 사역을 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아야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고있다.[9]

성경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도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함을 말했다. 기독교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 에게 말걸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도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되어야하는데 막상 다가가기를 꺼려한다. 돌봐야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지않다.[10]

(1)돌봄 목회 성서적 질문

여자가물동이를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이를 내게 말한 사람을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요 4:28~30).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요 4:7~42)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확신에 찬 복음 사역의 모형을 볼수 있다.

유대인은 혈통과 종교 관습적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차별 대우하고 멸시하였다. 요한복음 4 장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선교의 활동 방향이

---

[9]John Patton 지음. 장성식 옮김.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출판사. 2000).67.

[10] Donald Caps.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서울: 이래 서원. 2001).259.

제시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간 사역 활동은 분명히 '하나님 선교의 모형'이다.[11]

칼빈은 요한복음 4 장 10 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통해서 값 없이 주는 영원한 생명'임을 강조하면서 사마리아 여성을 확신케 한 복음의 핵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 즉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했다.

예수와 동행하였던 제자들도 가부장제 사회의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가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여성을 부수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한 예수의 강조점은 달랐다. 예수는 종교적, 문화적 차별의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받은 약속의 자녀로 보았을뿐 아니라, 복음의 선포자로서 유능성을 인정하였다. 모든사람들은 사회제도, 문화전통, 그리고 차별과 소외의 의식구조 등 모든 잘못된 가치관에서 자유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2]

(2) 문화적 갈등

돌봄목회에 서로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돌보아야 할 사람들과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것을 볼 수가 있다.

(3) 사회·경제적 갈등

[11]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57

[12] 손운산.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2013).64

돌보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노동자의 낮은 경제적 지위, 편견과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13]

2.신학적 연구

돌봄의 차별에 대응하는 신학적 근거가 표현에 있다. 표현이란 '삶의언어'와 '감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돌봄 차별 문제에 이해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성구가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니라" (출 22:1) 타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낳은 자 같이하며(레 19:33) 우리네 가족을 넘어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전해주는 이웃 돌봄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복음으로 하여금 돌봄 문화적 속성을 갖게하는 신학적 기초는 돌봄 문화적 성격이라는 복음의 자체에 내재된 신학적 논리라는 보다 깊은 영역으로 내려간다.[14] 복음의 돌봄 문화적 속성으로 그의 복음이 어쩌다 갖게 된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다. 바울의 다른 문화권 선교 여행의 기록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의 디아스포라였음을 알 수 있다.

(1)돌봄 목회의 신학적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복음 운동은 남녀평등 사상에 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 교회가 가부장제의 남성 지배적 인간 사회 안에서 제도화

[13] 안미옥. *도박 중독의 이해와 돌봄*.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2014).11

[14]Johannes Blouse. 전재옥 외 2 인 옮김. *교회의 선교적 본질*. (한국 장노교 출판사. 1988).73

되고 적응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여성차별 사상을 포함한 성서의 다양성이 형성되었다.[15]

어거스틴(Augustine)은 원창조를 정신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육체는 추잡한 것으로 타락의 결과로 정의하였으며, 터툴리안(Tertullian)은 여성 혐오론의 한 극을 과시하는 신학으로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원초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인간의 타락은 여성의 죄 때문인고로 여성은 그 벌로 예속을 감수해야 한다고 정당황하였다. [16]

지금까지 서구 신학은 남성지배주의 사상과 권위주의적 사고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유대교나 헬라문화도 가부장제 남성지배주의 사상으로 유지 발전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기존 사회의 가부장적 윤리와 가치에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신학적 요소가 잘못 해석되어진 것이다.[17]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간 삶의 범위에서 남녀 관계는 타락이라는 오명과 함께 끊임 없는 삶의 악순환과 혼돈을 경험하여 왔다고 볼수 있다. 인간 관계의 기본 단위로서 남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바울은 그렇게 다니면서도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대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

우리는 다른문화적 공존과 갈등의 정황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 의미를 말한다. 서로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과 가정관리 부족의[18] 익숙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부딪힘에 경계를 함께 넘나들며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

[15] Evan Flesberg.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266

[16] 홍영택. *가족 목회*.(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2015).193

[17] 김수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일으킨다*. (서울: 비전 리더십. 2010).161

[18] Ralph Winter.Steven Hawthorne 정옥배 옮김. *MISSION PERSPECTIVES*.(2010).53

복음으로 모든 믿는자를 구원에이르게 하는 하나님의능력이라는 진술로 요약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사역은 믿음과 은혜의 논리를 무기삼아 당시 유대인들의 특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폐적 관점에 종언을 고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만민의 복음이다 .[19]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것과 이웃을 돌봄의 책이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말씀이다. 주변에 있는 타민족들과 인종을떠나서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자원을 함께하고 나누는사역과 돌보는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한다. [20]

모든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며 태동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앞에 선 듯 다가 온 돌봄 문화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살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들과의 통로를 찾아 소통하면서 진리가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봄 문화는 대화적이고 반드시 선지자적이어야한다. 오직 담대하고 겸손한 대화로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대해 증거해야만 돌봄문화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야겠다.[21]

(2)돌봄 목회의 변화 분석

---

[19] 손운산.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13). 163

[20] 이정암.*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312

[21] James Cone. 현영학 옮김.*눌린자의 하나님*. (서울:이화문고. 1989).33

아더 글라서(A. Glasser)가 쓴『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은 자신의 평생 통해 성경연구,사색, 선교지경험, 선교학 가르치는학문 활동을 통해 맺은열매다. 글라서는 풍부한 선교경험과 선교학적 통찰을 가지고있으며 성경을 섬세하고 깊이 있게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22]

아더 글라서(A, Glasser)는 이 책의 목적이 독자들에게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성경연구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각 세대는 교회가선교에 성경적이해를 바로 할수있도록 각 세대마다 직접 성경을 다시 새롭게 성찰해야 한다는점을 글라서는 분명히 지적한다. 이제는 과거의 성경말씀을 사역에 맞추는 방식의 방법에서 벗어나 성경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성경의 각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

또 다른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더욱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성과 발전이라는 모티브로 신약과 구약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천년에 감당해야 할 교회의선교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니라면, 선교는 식민지 확장,교세확장, 종교적 개종사회봉사로 전락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A,Glasser 의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은 선교학에 크게 네 가지 공헌을 하였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선교학적 성찰의 지평을 넓혔다. 지극히 개인적 이며 수직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과 가정의 부부관계[23] 까지도 총체적 상관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제공하였다.

---

[22] Ibid

둘째, Glasser 의 하나님 나라 선교학은 복음주의자들을 괴롭히던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었다.

셋째, 하나님나라 선교학은 선교지도자들 사이에새로운 대화를 가능케 했다.[24]

넷째, Glasser 는 개인적인 신학순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갖는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나라는 모든 정부와 여러 종류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모든 사회구조에 도전한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구절이 여러군데나온다. 그것은 이스라엘웅 제한된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역사적으로 제한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통해 제한적인 약속은 포괄적인 것으로 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포괄하시며 가정마다 개인마다 부부의 삶속에서 역사하시며 부부의정체성[25]을 확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약속을 전 인류에게 확장한 셈이며 전인류를 대상으로 선교하시는분이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이 중심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서에담겨 있다. 물론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며, 줄거리는 주인공의 구원 활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23]DAVID PLATT. 최종훈 옮김. *FOLLOW ME*. (서울:두란노 출판사. 2013).83

[24]John Piper. 김대영 옮김. *열방을 향해 가라*.(서울: 좋은 씨앗 출판사. 2003). 45

[25] JEONG Seok Gi.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서울: 쿰란 출판사. 2005).5

예수의 탄생은 구약에서 약속한 구세주의 성육신이며, 예수의 생애와 사역은 구세주로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죽음과 부활은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고 사랑 하시고 계신다.[26]

우리는 예수님의구원계획에 맞추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인류세계를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열과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

(3)돌봄 목회의 접근 분석

마가는 예수의 이름이 갈릴리 너머로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또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었는지를 기록하고있다.(막 3:7) 바리새인 유대주의를 배격하고(막 7:1-13) 이방 지역을 돌보기를 하셨다.(막 7:24) 예수의 사역으로, 예수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주의를 돌리셨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27]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며(12:9) 이방선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13:10).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은 수난사의 클라이맥스이다. 이러한 사건이 말해 주는것은, 복음은 돌봄의 문화에도 개입이 되고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28]

---

[26] 김기복. *임상 목회 교육*. (서울: 전망사. 1993). 294

[27] 노종해. *한국 감리교회의 성격과 만족*. (서울: 성광 문화사. 1983). 118

[28] Lena tailer. 정민영 옮김. *돌봄 현장 이야기*.(서울: 한국 기독학생회출판부. 1996).65

3.사회적 연구

(1)돌봄 목화의 사회적 질문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 돌봄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 년 대에 서구 민주주의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대한민국에서도 1980 말 이후에 돌봄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현상이 등장하면서 돌봄문화주의 이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돌보기 위해서 입양해가는 것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를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이른 말이다.[29]

급속히 통합되는 현대세계 사회에서 여러국가의 문화를 자유롭게 접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커지고있다. 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중시한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일부 주 정부가 영어, 스페인어 두 언어 상용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의 많은 국가처럼 운전 면허를 취득시 시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2)돌봄 목회의 사회학적 분석

---

[29] 장사라. *그리아니 하실지라도*. (서울: 도서출판 흰돌. 2008).15

교회가 사회에 존재하고있다는것은 사회로부터 영향을받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소유하였다면 우리들의 삶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연결되어야 한다.

목회자나 교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한다. 베버(Max Weber)는 하나의 가치관이 세속화라는 용어로 설명될 때에 인간의 문화적상황 즉 산업화, 도시화, 합리화, 과학화 등 복잡한 사회분화로 인하여 다원주의 상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30]인간 삶의 목적은 창조자에 대한 영광과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를 두고 상부상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남녀의 차이점 이라고하는 개념을차별의 개념으로 합리화하여 상대적 관계의 개념으로 변형시켰으며, 가부장제라는 사회 틀을 형성하였다.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현대생활과 사고의 상황은 현대의 외부적 조건과 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31] 개인의내부 세계를 형성한 의식의 세력에 의해서도 역시 형성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의식은 모든 가치관과 인간들의 사고방식의 다양성 앞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3)돌봄 목회의 사회학적 사역

---

[30] Daivid G. Banner. 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이해*.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2011).185

[31] Tomas Moor. *영혼 돌봄*. (서울: 목양 출판사. 2007). 240

한국 여성들은 오랜 세월동안 소외된 삶 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한국적 사회구조, 문화적 영향, 정치와 경제 체제 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에 유산으로 나타난 불가 분리의 실체 들이다. 가치 체계는 사람들 의식 뿐 아니라 태도와 행위를 결정 지어주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32]가치의 다양화는 태도와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인간의 사고 방식과 생활습관을 의식화해 버린다. 한국 유교적 지도 이념은 남존 여비라는 부정적 가치관을 심화 시켰고 국민의 바르지 못한 심성을 고착시켜야 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학적 성격으로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교회가 소속되어 지역 사회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교회 자체의 모든 프로그램이 일종의사회운동의 종교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도있다. 즉 그 지역 사회의 배경에 교회의 사회적 기능, 성격, 구조가 독특한 점을 다르게 표현할 수이기 때문이다.

이민 교회도 사회생활을하는 사람들로구성되어 있다.[33] 그 교인들에게 수반되는 모든 문제는 또 이민사회의 문제이기도하다. 이민 교회는 이민 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책임의 주체자로서 모든 이민들을 삶의 갈등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의나라와 의를이루어나가는 책임과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민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독신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중되는

[32]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160

[33] 최민수. *목회 상담과 돌봄.* (서울: 그리심. 2008). 218

고통이다. 고통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된 사회적 조건으로 안정과 평안을 기약할 수가 없다.[34]

(4)돌봄 목회의 사회학적 방법

경제적 부담의 주거비와 일반 생활비, 또 독신 여성등에게 존재하는 주위의 유혹순간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느끼는 다른 형태의 고통의 문제들은 이민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과 책임을 느끼게 한다.책임을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요소를 포착하여 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밝혀 나가는 사회학적 기능과 활동을 찾아야 한다.

첫째, 교회는 사회 통합(Social Intergration)의 기능을 수행 할수 있어야 한다.

이 학설은 뒤르갱(Durkheim)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론 학설이다. [35]교회는 사회의지배적 가치와규범을정당화하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 의식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와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이민교회는 공통된 신앙과 삶의 가치를 이민들에게 심어주고 교회의 결속과 그들의 필요를 개발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와 삶의 스타일이 다르며 사고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회에서 교회 목회자들은 일치되고 분명한 공동체성을 제시하면서 교회로서 지능을 다 할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사회 변형(Social Transformation) 혹은 사회 변화(Social)를 수행하여야 한다.

[34] 김진명. *굴레 속의 한국 여성.* (서울: 집문당. 1993).334

[35] 이원규. Lbid

이 학설은베버(Max Weber)의새로운 사회질서전환을촉구하는 교회의 기능이다.[36] 사회 변형의중요한동기로 교회는때때로사회에대한 비판의 수행을 하여야 한다. 부조리,경제적 불균형,불의,정치적부패에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 회복에 도전하여야 사회변형을기대할 수있다. 그 전형적인 예들이 바로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활동과 기능이었다. 만일 오늘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반교인들 뿐아니라 특히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의 삶에대한 희망이나 그들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활동의 기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37] 많은 이민 목회자들은 영혼구원이라는 미명아래 정의의 날카로운 성서적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교회를 무형의 사업적 관계로 형성시켜서 이해타산을 가지는 문제 때문에 사회를 위한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회는 사회 통제(Social Control)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는 기성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우월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38] 그러나 오늘의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사회 통제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기대할 수는 없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러한 기능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성서가 가르치고있는 진리에 바탕을 두고 실천하여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중적기독교 신앙생활과 의식구조를 오늘의 이민사회에서 벗어 버리지 못하고있다.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의 얼, 가치관과 문화적유산 등 우리

---

[36] Klaus Binckler. 신명숙 역. *목회 상담 영혼 돌봄*.(서울: 학지사. 2007).45

[37] 김광정. *한인 교포들의 미국사회 적응 형태*. (한인사회. 1986)

[38] Lbid

고유의 민족성과 우월성을 얼마든지 표현하며 살수 있다. 또 신앙의 열심과 교회부흥의 모습을 다른 민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의식구조 때문에 한국 이민들의 삶의 모습을 경제노예로 보여주고있다. 한인들은 기독교적 명절에도 쉬지않고 일하며, 전통적 명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년 365 일 가게를 지키면서 돈만 버는 경제노예로 비쳐지고 있다.[39]

(5)돌봄 목회의 사회학적 능력

그들은 흑인 지역에서 돈을 벌고 백인 지역으로 가서 살며 자기 집을 마련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동참하려 돌봄문화적 발전과 화해를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장학금, 기부금을 통해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다. 상당수의 한국 민들은 미국 사회에서 영속적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한국으로 가려하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대한 문화적 적응의 열망이 없다. 이러한 이민현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문제점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40]

이민사회와 교회의주체자인 여성으로서 그들이 안고있는 문제를 사회학적면에서 좀 더 깊이 분석하여 보자. 한국의 여성 문화는 ‘한’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억압과 거기에서 출발하는 구조적 부조화에서 오는 아픔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로 사무쳐 있다. 그것은 막연하고 표현할 길 없는 설움이며 이름 없는 아픔이다. 이는

[39] 김광. *한국 정통 문화의 정신 분석*. (서울: 교문사.1991).128

[40]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 의식*. (서울: 박영사. 1992).238

구조적 지배세력의 철저한 폭력결과에서 온 문화적, 사회적 유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41]

또 한국 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난과 소외된 삶의 위치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적 제도나 구조, 그리고 속박 속에서 살아 온 약자들이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갈망, 고뇌와 갈등 속에서 교차되는 '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 여성들의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유산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과 지배구조에서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질문들을통하여 사회학적분석항목에서 나타난 몇 가지 심화된 특색을 고찰하여 보면,

첫째로 오랫동안 지배계급에의하여 사회구조적, 제도적 철저하게 유린된 한국 여성들의 아픔과 고뇌가 '한' 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42] 한국사회의 차별개념과 문화적 억압과 정치세력의 희생 제물이 된 육체적 성은 '착취' 라는 결과로 나타났다.[43]여성들의 삶의 상황은 자신들의 탄생을 한탄하는 삶이었다.

둘째, 한국여성들은 가부장제에 묶여서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악순환적으로 '한' 이 쌓여 온 것이다. 그들의 피 맺힌 '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슴속의 응어리로 쌓였다. 그들의 삶은 소리없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다.

---

[41] 백낙청. *인간 해방의 놀리를 찾아서.* (N.C.C. 신학위원회편. 1979).76

[42] 이화여자 대학. *여성학.* (서울: 이화여자 애학교 출판부. 1994).94

[43] 김용복. *한국 민중의 사회 전기.* (서울: 한길사. 1987).116

실험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구약 성서 '룻기'에서 나타난 '화해의 삶'과 '동참하는 모습'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식구조의 형성과 가치관 발견을 위한 의미있는 모형(Pradigm)의 삶이다.

4 심리학적 분석

(1)기독교적 여성 심리학

기독교교육 심리학자 James Fowler 는"신앙이란 그내용과상황에있어서 반드시 종교적인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신앙은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원동력과 관계들에 의미를부여하며 스스로를 그것에밀착시키는 방법이며, 또한 다른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목적에 비추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보았다.[44] 이러한 Fowler 의 관점은교회를통한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것으로 볼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앙이란 인간의 의지와 삶의 의미를 형성하여 가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실체나 비실체적 존재를 의식이나 관념으로만 느끼고 살아가는 정태적 생활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동태적 사상들, 가치들, 의식구조의 역동적 체제로보았다. 이상과 같은 그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인 여성 고유의심성과 신앙적 상호 관계성을 생각해 볼수 있다.[45]

[44] James W .Fowler. 연구자에 의한 번역. *Stages of Faith, The Psycb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st for Meaning. (*Harper Collins Publishers.1981).89

[45] 김진명. *굴레 속의 한국 여성.* (서울: 집명당. 1993). 264

(2)기독교적 남성 심리학

한국여성들은 한국전통문화 의식에 젖어있다. 그들은 전통문화 의식은 남성중심의 권위 주의 아래서 억압과 개성의 자유를 제한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 온 '한'의 심리적 의식구조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여성들은 다른 민족 여성들과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들의 특수한 심성인 '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민생활의 현장에서 또 다른 의식 활동을 강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중한다고 보아야 한다.[46]

Fowler 는 인간 삶의 모든 내용과 상황이반드시 종적인 것은아니라고 보았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방법을 '신앙'으로 본다면, 한국여성들의 문화적 영향으로 인한 '한'의 삶은 곧 그들의 삶의 방법인 동시에 신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 매일 같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화적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한'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47]

그들은 이민생활에서 언어장애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 또다른 문화적 관습에서 오는 이질감과심리적 불안과정신적 부담이있으며, 한국에서 경험할 수없는 사회구조적 때문에 불안감을 갖게된다. 여기서 나타나는심리적 거부감이나 반작용은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한국 문화적 생활 습관을 고수케 하며, 이민사회 문화에 동화하기를 거부 하는 심리적 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48]

---

[46] 김한권. *한민족의 정신 문화*. (서울: 장래 출판사. 1989).248

[47] 주강현. *굿의 사회학*. (서울: 웅진 출판사. 1992).195

[48] 지명관. *한국 문화사*. (서울: 삼민 출판사. 1988).138.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갈등과 불안의 현상은 그들의 '한'의 삶이라는 독특한 심리적 의식구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끼리끼리'의 삶이 될 뿐이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5 년 내지 10 년을 한 마을에 살면서도 이웃 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Chetto'적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언어장애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모든 이질감과 소외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수있다.[49]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삶의 양상을 여성심리의 특성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이해해 주기를바란다. 이와 같이 방향 감각을 잃은 삶의 양상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이민문화가 요청하는 바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적,사회학적,그리고 인류학적 전문영역에속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있지만 그렇다고 특수한경우도아니다. 혹자는이러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의고유한 의식구조는 한국이민자들이 긍정하고 공감할 때 깊은 이해를 할수 있다고 본다.[50]

(3)기독교적 특수 심리학

Sigmund Freud 는 여성 심리의 특성으로 수동성, 피학성, 자기 도취성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Freud 의 세 가지 여성 특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수동성의 기본적인 뜻은 외부로 향한 활동성의 결여나 공격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근육의 활동면에서 여성은 남성 보다 수동적이고 근육 운동적 공격성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

---

[49] 이화여자 대학교. *여성학*. (서울: 한국 여성 연구소. 1994).88

[50] 손승희. *여성 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3).298

둘째, 피학성의 원래의 뜻은 Kraft Ebing 의 주장처럼 성생활이나 성 대상에 대한 모든 수동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극단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는데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에릭슨은 피학성이 완전히 여성적인 여성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51]

셋째, 자기 도취성(narcissism)은 자아 속에 있는 심리적 에너지로 부터 나오며 피해 성에서 생기는 자기 파괴를 방지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 심리적 경향은 생물학적 요소보다 문화적 힘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인간은 그자체가 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서로의 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건전한 것이다[52].

가정적 수직관계의 남성중심의 위계질서속에서 한국적가치관이 이민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말미암아 수평적가치관으로 바뀌면서 남편들의 일방적 요구와 지배적 양상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된다. 이민가정이 위험한 상황을 부부가 인내로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된다. 한국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억압으로 인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Froeud 가 말하는 "자기 방어의식 중압감때문에항상 불안하며 피해의식에사로잡혀서 분노와공포,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상들은 자신을 비롯하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불안을 주게되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53] 나아가서 교회와 이웃에게 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51] 박근원. *성차별 신학.* (서울: 크리스챤 출판사. 1985).85

[52] Evan Flesberg.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118

[53] 심영희. *여성의 사회 참여와 폭력.* (서울: 나남 출판사. 1993).304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땅에서 충만하여야한다. 기독교인이 마땅히 확신하여야 할 가치관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 형상이란 ‘자유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민생활에서오는심리적 ,정신적,그리고 육체적 갈등은 구속과자유라는차원에서 이민목회의 대단히 중요한과제들이다. 그이유는 기독교 진리가 모든사람을 자유케 할수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이러한 삶의 권리와 책임의 속성을 하나님으로 부터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54]

5.교육학적 분석

(1)돌봄 교육학적 공동체

인간이 인간됨을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언제나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일반교육의 목적들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 할수있는 사람을 만드는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사회교육은 인간 중심을 이루는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을 이루는 교육이다.[55]

한국 이민들은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상호 융합된 질서에 따라서 새로운 이민 문화창조하는 교육의주인이 되어야한다. 오늘의 이민생활에서 한국이민들의삶의 자세가다른 소수민족에게 긍정적으로 이해될수있도록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교육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

[54] Tara Brack. 김선경. 이재석 역. *자기 돌봄*.(서울: 생각 정원. 2013).85

[55] 심영천. *한국의 경제 생활*. (서울: 시사영 출판사. 1982).178

공생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치관은 하루빨리 지양하면서 이민생활의새로운 차원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한국적 이민 교육은 삶의 시야를 넓히는 성숙한 목적을 향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이며, 모두를 위한 공통 분모를 찾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복합 문화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깊은 통찰력, 사고와 의식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후기산업사회는 의식의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사람들을 점점 비인간화의 소외된현장으로 밀어내고있다. 우리들은 미국을점점 비인간화의 소외된현장으로 밀어내고있다. 우리들은 미국이라는 선진사회에서 문화의혜택을받고 살아가면서 인간성에 대한 해답을 잃고 유리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된다.[56]

한인기독교인들은올바로 살고자하는 열망은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생활은 아직미숙하다. 특히 이민여성들은무엇인가하려는 욕구들이 잠재되어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많은 한인들이 다른민족이나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여가를즐기는 생활보다 자신의쓸모없는가차관과 문화적 관습에 얽매여 살고 있는 형편이다.[57]

돌봄목회는 한인 여성들이 돌봄목회를 통하여 보람된 삶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 1 차적으로 효과적인 ‘의식개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Paulo Freire 의 ‘의식화’ 작업을 위한 교육 이론을 적용 실천하려 한다.

돌봄목회 제 3 부 ‘적용과 실천’ 부분은 브라질 성인교육 이론가 Paulo Freire 의 ‘의식화 교육이론’을 Thomas Groom 이 재정립한 “몫을 나누는 실천” 교육이론을

---

[56] 서정기. *민중 유교 사상*. (서울: 한국 교회 출판. 1990).204

[57] Mark Mcmill. 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6).158

기초로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창의적으로 작성하고 연구반(Site Team)을 대상으로 ‘기독교 의식화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차로 한인 여성들을 위한 ‘기능개발’ 계획 실천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르는 인적 자원과 공간 그리고 방법들이 계획 추진된다.[58]

(2)돌봄 목회 상황

기능개발이란 차별과고통의 삶을살아온 여성들을 대상으로하여서 개인적성에 따라 시행되는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새로운삶의 소망과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식화 교육에서 확신을얻고 선교의 역군으로서 부끄러움없는 삶을살아가게 하는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 제반 교육계획은 Fowle 의 가치의구조, 사랑과행동의패턴, 두려움의형태를분석 해결한후 희망과 우정의방향을따라서 모든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될것이다. 차별과억압, 빈곤과 절망의삶을극복하여 나가는모든사람들의삶의 자세를변화시키는데 일치와결속이 되어 목회적 교육 방법으로 실험되어 나갈 것이다.[59]

돌봄 문화주의는 모든 문화의 가치는 동등 하다는 문화 상대주의와 서로의 지향점이 달라도 문화를 존중하는 맥락은 동일하다. 이 용어는 처음 1957 년 스위스를 기술할때 사용되나 1960 년대후반기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이후 영어권에빠르게 퍼지게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이민증가로 현재 돌봄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돌봄주의에 대한관심이 증가하고있다.

---

[58] 박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 대학 출판부.1985).118

[59] 서광선. *한국 역사와 기독교*. (서울: 한국 교회 도서 출판. 1983).220

기술적 개념으로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60]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 국가내에 인종,언어,역사 문화적 동질성에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의미한다. 민족의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 호주,미국 등도 있으며, 단일한민족 으로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받아들이면서 문화적다양성을 가지게 된 경우 독일,스웨덴 등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 사회 라고 부를 수 있다.[61]경제 호황으로 실행되었던 이민자 개방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용적이었던 유럽각국에서 세계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자인종 실업자들이 증가하여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범죄율 또한 중점적으로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실업자들이 인종주의 단체를 결성하고,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생기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민자 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62] 그러나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돌봄문화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신력있는기준은없다. 돌봄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 즉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돌봄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표현 할수있다.

(3)돌봄 목회의 유한성

---

[60] John piper. 김대영 옮김. *열방을 향해 가라.* (서울: 좋은 씨앗 . 2003).138

[61]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1996). 306

[62] 배임순. *행복한 삶을 향하여.*(서울: 쿰란 출판사. 2012).98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하게 외국인의 비율이증가하는경우 매우 정확한표현이다. 기술적인 용어로서, 과정적인 개념으로 볼때 대한민국은 '돌봄 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63]

다른 한편, 돌봄문화는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돌봄문화사회는 시민,국민으로서 누릴수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이웃과 자라온 환경과 교육의 차별의 근거가 되지않는 사회를 뜻한다. 돌봄문화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여지가있다.[64]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 사회로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돌봄문화를 국가정책 혹은 이념으로 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돌봄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정치 경제학적 조건이 필요하다. 정리해 보면 현상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념적인 수준에서 돌봄 문화를 지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돌봄 문화를 택하고 있는지, 혹은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65] 돌봄 문화에 관심이 부족하다 .돌봄에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 다양한 개념으로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가깝게 하기엔 멀어지는것이 문제다. 다민족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이 필요하다.

---

[63]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Compass House Publisher. 1988).58

[64] 김한기. *치유하시는 하나님.* (서울: 쿰란 출판사. 2004).135

[65] 오경환. *종교 사회학.* (서울: 서광 출판사. 1990). 238

포용이라는 미래지향적 이상과 실제 일상 생활에서 행위자들이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나 가정의붕괴[66],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현실이다.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정보통신 역시 글로벌화 되었다. 온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형되었고, 글로벌 시민들은 컴퓨터 통해 빠르게 소통하고 있다. 바로 이 시기 동안에 사람들의 주변화(빈익빈 부익부), 환경의 주변화, 그리고 교회 및 기독교 사회의 주변화가 초래 되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났다. 주 변화된 나라와 지역의 교회와 사회는 이중적인 주 변화와 사사화(privatization)와 소외를 경험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종전의 기독교 종주국들 안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급감하고있다. 한국역시 교회와기독교인들의감소를 경험하고있다. 하지만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축이 북반구로부터 남반구로 이동하고 주변부의 세력화가 부상하고 있음을 본다. 그 동안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도전에 대하여 계속해서 응전해 왔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의 글로벌화로 인해 초래되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이슈를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자신의 문화전통과 정체성을귀하게여기면서 타문화공동체들과함께 어울려 살면서 문화를 추구하고, '다문화 공동체들로 구성된하나의 인류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67] 한 문화가 타문화 속에 침투하는 페리코레시스를 추구하면서도, 타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다양성을 뭉개서 제 3 의 무엇을 만들지 않는 다양성 속에서의

---

[66] 정석기. *세계로본 세계 한인 이민사*. (서울: 쿰란 출판사.2000).153

[67]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1996).221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문화 공동체를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68]

돌봄 문화가 오늘날 돌봄 문화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벨기에,인도,캐나다,인도네시아 등 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이질적 문화의 사회적 통합혹은 융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테러와 반목 등으로 끝 없이 시달리고 있다. 실제 소수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돌봄 문화는 윤리적이고 민주주의적 이상을 지향하지만 공동의 문화가 하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잠복해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의 이와 같은 부정적요인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공동의 문화를 어떻게 창출해내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69]

돌봄문화 교육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상호 인정과 관용의 전통을 구축하고 서로 문화집단이 동등한 권리를가지고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공동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길로 제시한다. [70]

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기독교의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 년대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여파로 이민과 민족 이동이 글로벌화 되었고 지구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지구 남반구와 동쪽에서 오순절 교회들과 은사주의 형태의 기독교들이 선교적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다민족 가정들에게 손을 뻗치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풀뿌리 대중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 인구의

[68] 이원규. *종교의 세속화.* (서울: 한국 크리스찬 출판. 1992).248

[69] 이수훈. *세계 체제론.* (사울: 나단 출판사. 1993).93

[70] 최민수. *목회상담과돌봄.* (서울: 그리심출판사. 2008).165

역전을 가져 왔다. 이는 세계 기독교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돌봄의 문화가 확산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71]

새로운 돌봄 선교 운동과 대중 운동은 기성 제도권 교회의 지도 없이 자발적 선교활동이 표출되었고, 때로 통일성을 무시한 다양성을 지향하기도했다. 향후기독교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돌봄운동들과 흐름들이 어떻게 기존의 교회들과 화해하고 여러사람 가정과조화롭게 함께나가는'세계기독교'를구축할수 있는가에 있다.[72] 따라서 성령의새로운 바람에 교회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글로벌 남쪽과 동쪽에 일어나는 기독교적운동이 하나의 돌봄선교기독교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변화는 확실히 교회가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더나은 세계를위한 바람이되라고 요청한다. 그와 같은 교회에대한 새로운 상상은 오직 세상의 삶속에 여러 민족들의 가정의정체성[73]이 다시 새롭게 성육신되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유와 존엄성을지닌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맥락안에서그렇다. 그런데 밑에 깔려있는 교회를 향한 핵심적인도전은 권력의 문제이다. 주류에서 벗어난 혹은 주변에있는 글로벌 남반구 안에있는 교회들의 목소리들과 어느 단체의 협력안에서 아직 충분이 인식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과 저항으로서 정의와 포용성을 추구하는 돌봄 치유와 온전성 돌봄을 말한다.

[71] 이상현. *이민 목회*. (Prinston: PCUSA Asian Program Center.1987).

[72] Paul Hibbert .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옮김. *선교와문화인류학*. (죠이선교회.1996).95

[73] WI Geo Chan. *성서와 현대 사회*. (Christian Literture center. 2015).158

주변으로부터의 ‘돌봄’에서 돌봄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종말 이전의 지평’ 안에서 ‘주변’의 의미와 중요성을 본다. ‘중심’과 ‘주변’의 변증법은 ‘종말’과 ‘종말 이전’의 그것이지, 칼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적인 역사적 변증법이 아니다.[74]

돌봄이들의 증가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한편 사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전반에결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찾는 계기가될 가능성도 공존하고있다.[75] 돌봄 문화사회의 긍정적전개 가능성높이는 동시 부정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 문화적 환경의 다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있는 다양한 언어,문화 자원의 발굴, 언어문화적 역량을 문화 공생이 실현되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각나라의 돌봄문화 정책우열이 없고 단지 보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권에 있는자들의 돌봄에있어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살아갈 낮선 땅의 언어부터 터득해야한다는것이 나의지론 "언어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언어 습득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 가능해야 경제적 자립심도 키울수 있는 법이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가 기획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경향이다. 각 국의 언어와 문화 등이 체계적이고 상시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런 ‘장’은 주로 종교나 인권단체가 만들어내는 수준에불과하다. 전체 주민과시민들이

---

[74] 이원규. *종교 사회학*. (서울: 한국 신학 대학 출판부. 1991).

[75] 김용일.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서울: 쿰란 출판사 . 2014).235

새로운문화를 받아들이는과정과 노력이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 문화와 새로유입되는 문화가 엮이고 섞이면서 발전하는것이 21 세기 새로운 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76]

(4)돌봄 목회의 유효성

돌봄의 목적은 인류로부터 특수한 사람들의 영혼만을 구원하거나 가난하고 소외되었으며 주변화 된 특수 계층의 사람들만의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과 지혜로 창조 하신것을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목적에 정향되어있는것이 다. 그래서 '주변'이 '중심'을 정복하는 것과같은 것을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생명 충만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세계를 위하여 사역하는 하나님의 영을언급하고, 예수께서 주변화된사람들과 함께 관계회복[77] 하시고 이들을우선 배려하신것은 "이들의상황들이 이세상의 죄성을 증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통하여 온 땅의 생명 충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돌봄"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동참하는 것은 "착취하고 노예화하는 마귀들을 분별하고 노출시키는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가부장적(온정적인) 이념들의해체, 토착민들을 위한 자결권확보 와 인종주의와 카스트 체제의 사회적 뿌리에대한 도전과 같은 것들을 악마적인 것에대한 응전으로 본다. 이상에서 우리는사회적 하나님의본성과주권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돌봄의 길이 '주변'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길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76] Andrew merey.서보섭.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열쇠*. (서울:한국 로고스 연구원.1987).79

[77] Jonathan .Bonk, Dwight .Baker,외 33 인지음. *선교 책무*. (2013).25

발견한다. 이는 단순히 칼 마르크스와 해방신학 전통의 갈등 구조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78]

‘정의와 포용성을 추구하는 돌봄, 투쟁과 저항으로서 돌봄은 잘못된 ‘중심’에 반대하는 운동이고 결국 “하나의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계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된다. 특히“포용성이란 인격들과창조간의 상호인정 그리고 각자의 성스러운 가치에 상호존중과 지탱을지니고 있는 인류와창조의 공동체안에서의 정의로운 관계를 양육시킨다. 따라서 선교는단순히 중심을 배제하는 것이아니라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것이다. 포용성은 각사람으로하여금 공동체의삶에의 충만한 참여를 촉진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에 대하여서도 돌봄에 중요하다.[79]

의료와 의약과 보건, 사학적인 전망에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창조와 인류 모두의 완성인 하나님나라에대한 희망으로부터 치유를이해한다. 현 창조와 역사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치유되고 화해된 온전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주변’이요 ‘주변화 된’ 사람들이다. 그래 본문은“개인인격들과 공동체들의 생명과삶의 치유와 온전성을향한 행동들이 다름 아닌 돌봄의 중요한 표현이다.[80]

“성령께서는 기도, 목회적 돌봄, 전문적인 보건, 그리고 다른 한편 고통의 뿌리에 대한 예언자적 고발, 부정 일삼는 구조들에 대한 변혁 및 의술과 의약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 등을 포함하는 생명 양육 선교 위하여 교회에 능력을 실어 주신다고 하였다. 온전해 지기 위해서 소외된 부분들은 다시 되찾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78] 이기춘. *한국 목회 신학의 연구*.(서울: 한국 감리교 신학 대학 출판. 1991).237

[79] John patton. 장성식 옮김.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사. 2000).182

[80] 배임순. *행복한 삶을 향하여*. (서울: 쿰란 출판사. 2012).189

‘치유되고 온전해 진’ 궁극적인 생명 공동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 공동체이자 고통속에 신음하며 해방을 갈망하고 있는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 봄이 된다.[81]

6. 목회돌봄의 심리학적 질문

(1)초대교회 교인들의 심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안에서 “모든백성들”을 자기에게 이끌어오도록 명하셨다. 예수님은 “다른이스라엘”이시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의삶, 그 세대에 대한 진실한 증거, 죽음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품으실, 깨뜨릴 수 없는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분명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현존을 의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내의 활동을 말해 준다. 성령의 개입과 인도로 초대교회는 이방선교에 나서게 되며 예수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로 인하여 바울은 이방선교의 사도활동했다.[82]

바울의선교는 땅 끝까지 나가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었으며 교회세우는 일에 전력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이러한 목적을 "내가 예수를 본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 받으라"(고전 11:1)고 말하면서 선교 즉 돌봄의 대열에 참여하여 고난을 같이 받으라고 권면했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일치는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한 형제 자매들”이고, “교회는 말씀과

---

[81] 김윤옥. *여성 해방을 위한 성서 연구*. (서울: 한길사. 1991).205

[82] John Pattern. 장성식 역.*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 출판사. 2000). 158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전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증언한다[83].

(2)선교자들의 심리

그러면서 "교회안에서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름 아닌 선교와 돌봄 참여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고 한다. 선교와 돌봄을 교회들의 일치와 하나로 묶었다는의미가있다. 1990 년대 이후 '신앙과 직책'과 삶과 봉사'는 신학적으로 합류하고있다.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선교와 일치는 동일 귀속 한다"(요 17:21)고 보고, "그 둘은 서로 함께 역어 짜여 있다"고 한다.이민 교회의 특수 상황에는 언어, 문화, 사회제도, 삶의 환경 등이 가져다 주는 문화적충격과 심리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물안과 가정 물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정이 불안과 파괴는 여성들에게 심한 고통과 갈등을 갖게 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James Fowlersm 는 신앙이란 인간이 의지하고 삶의 의미를 형성하여 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능동적 사상들. 가치들, 그리고 의식구조를 역동적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84]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 유교 문화의 의식에 젖어 피해의식 속에 이민 생할이 이질 문화권에서 또 다른 피해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심리적 억압은 또 다른 '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83] 김경수. *돌봄과 상담*. (서울: 누가 출판사. 2000). 91

[84] 고영복. *한국 사회의 구조와 의식*. (서울: 문화 복지사. 1991). 158

심리학자 프로이드(Freud)가 말한 대로 자기방어 의식의 중압감은 근본 요인은 이민의 특수상태라고 본다. 삶의 문화적 뿌리가 뽑힌 그들의 상황은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심리적 불안을 갖게 한다.[85]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류와 창조에 대한 선교는 교회의 일치를 인류의 일치와 창조의 일치로 확장시킨다. 그리고 교회들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일치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삶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량적 토대로 다른 교회를 억누르지 말고 "다양성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상호 존경하고 책임을지 는 복음전도의 형태를 포함하는 파트너십과 협력 정신으로 공동증언의 방법을 확인하고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고있다." 그후 '선교와 일치'의 신학에 관하여 로마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로잔 운동 및 WEA(세계복음주의 연맹) 및 다양한 개신교들의 견해들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누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공통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께서 다름 아닌 교회들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다는사실을 밝힌다.[86] '일치속의 돌봄이잘 이루어지고있지 않은것이 오늘날 돌봄을 당하는 다른사람들과의 다름의 대한불안 [87] 한마음이 있는것이 돌봄 사역의 문제상황이다.Cox-Gedmark 은 슬픔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의 하나로 이 특성을 더욱묘사한다.돌봄을 받는자는 그의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을 마감해야 하고 새로운 삶의적응해야 한다. 충격과 부정으로 시작되며 믿는자들은 때론 하나님께 자신의

---

[85] Donald Cappe.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258

[86] 이천수. *영력 개발*, (서울: 영성목회 출판사. 1997). 74

[87] LEE Jeong Nam .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 5

모습에대해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새로운 환경에 대한 현실이 비탄의 많은부분을 발생하게 만들고 보다 집중적인 감정적인 굴곡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기도 한다.[88]

(3)돌봄 목회자의 심리

건강한 재활은 환자가 환경에 새롭게적응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육체적인 제약을 부인하는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금 재 발견함으로써 그것에 관한 기초로서 새럽게 사용하는 것이다.[89]

21 세기 돌봄목회 남은 과업을 이루는데 많은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런데 이제 돌봄목회 시대가왔으니 우리가 세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미국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도 잘 하자 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고 활용하며 교류[90]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장점 은사를 계발하고 살려가면서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몸에 맞는 돌봄목회신학,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지적하여 보완하도록 하는 돌봄신학의 개발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인에 체형에 맞는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다.

돌봄목회나 세미나에 가서 가끔 마음이불편해지는 이유는 서양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한국사람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들을 때다. 그 이유는

---

[88] Tara Brack. 김선경. 이재석 역. *자기 돌봄*. (서울: 생각정원. 2013).138

[89]Cox Gaddan. .최민수 옮김. *돌봄 목회 상담*. (서울: 그리심 출판사 1980).14

[90] ST ,Augustin's .선환용 옮김.*성어거스틴의 고백록*.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2003).15

민족중심적 동기에서나 미국 사역자들로 부터 배우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다. 한국 사람보고 미국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기때문 이다. 마치 식사를 할 때는 서구적인 에티켓을 배워야 하고 포크를 들고 식사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느낌이다. 서구와 한국은 타당한 구조 차이가 있다.[91]

서구는 사고나 분석에, 우리는 행동이나 정서에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다.그들은 분석적인 반면 우리는 경험적이고 종합적이다. 서구적 타당성 구조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게 되고 우리는 타당성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늘 서구적 식의 발 노릇을 하게되는것이다.

기도원과 산 기도를 통해 성령사역을 경험하고 능력을 얻었던 한국 교회가 서구적인 분석적 매뉴얼식 성령사역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목사는 교회개척과 전도, 기도에은사를 가지고있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한국목사가 하는 저돌적인 전도 및 빠른교회개척은 서구목사도인정하는장점이다. 서양목회자들의 전도 및 교회개척 포커스가 약한 부분은 이미 기독교화된 사회 속에서 성장한 서구목회자들이 전도나 교회개척의 경험이 적고 그런 필요를 강조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92]

교회개척에 있어서 현지교회의 빠른 독립성 인정, 리더십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양육을 서양 목회자 들의 하는 교회 개척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분명히 성경적

---

[91] Virginia Held.김희강. 나상원 역. *돌봄 윤리*. (서울: 박영사. 2017).163

[92] Paul G. Hiebert. 김동화외 3 명.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스 선교회. 1996).258

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문제일 것이다. 서양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개인적인 문화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이다.[93]

(4)개척 목회자의 심리

어떤 한국 선교사는 한국적 선교개척모델은 일부 서구단체에서 주장하는 빠른것은 오히려 교회를개척하여 시간을두고 지도자를 잘 세워서 이양하는 것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돌봄 양육을 하거나 교회를 개척할때 서구 목회자들은 네트워크를 잘하고, 현지인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꼽지만 현지인을 빨리 독립적으로 세우거나 여러 사람에게 오픈함으로써 그가 깊은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면서도 한국목회자들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돌봄신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94]

서양목회자들은 다양한 사역의 분야(문서, 방송선교 등)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서구선교계는 비즈니스애즈미션(BAM)이라든지 총체적 선교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서구에서 왜 강조되었는지,신학적 추세뿐만 아니라 서구의기독교적 문화적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있다. 총체적 선교가 우리의선교적 사고와 지평을 넓혀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우리의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대한 은사집중과 선교열정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95]

---

[93] Joan C. Tronto. 김희강. 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서울: 아포리아. 2014). 248

[94] 김경수. *돌봄과 상담*. (서울: 누가 출판사. 2007).97

[95] 김대현외 7 명. *배움과 돌봄의 학교 공동체*. (서울: 학지사. 2009). 183

우리가 서구의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신학을 세워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목회자가 지닌 과감한 교회개척과전도,기도의 장점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신학을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선교의 목표인 것이다.[96]

7.기독교 교육학적

(1)돌봄 목회의 교육학적 목표

돌봄교육이라는 용어가부각되기 시작한것은 2006 년 하인즈워드의 방문이후이다. 미국에서 1970 년대부터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정의하는 것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 중 다문화 교육의 선두 자격인 뱅크스(Banks)는 다문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97] "다문화 교육은 교육 철학이자, 교육 개혁운동으로 교육기관의 구조를 바꾸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돌봄이 중요한 목표다." 또한 여러 개념을 조합한 베넷(Bennett) 다문화 교육을 네 가지 구성요소 평등교육, 교육과정 개혁, 다문화능력, 사회정의를 향한 교육을 구분해 "다문화 돌봄교육은 평등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혁을통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모든 사람이 다문화적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

[96] Donald Capps.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문희경 역. (서울: 이레서원. 2001).187

[97]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1996).317

Bannet 다문화교육 정의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 평등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학교에 입학하는 기회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회의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아동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또는 문화적차이에 따른 결핍이 없도록 지원해야함을의미하는 돌봄과정의평등이라고 할 수있다.[98]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혁은다른 사람입장이되어 판단할 수있는 비판적 사고력을키울 수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역량은다양한 방식으로인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할수있는 량을말하는데, 자국내 또는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이해하고 조율하는방법을 학습하는것이중요하다. 사회를 향한 교육은 사회정의를 향한 교육통해 깨닫지 못했던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의차별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문제해결 행동으로 옮기는것을 말한다. 다문화 교육에서 문화적차이나 타문화이해는 자주언급되는주제이지만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편견을주목하고 반인종주의 교육을 체계화하고 돌보는 관심이 많지 않다. 아시아 각국 민속의상, 음식을경험할 수있는 축제는 더러있지만,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배타적인 태도를 되돌아보고 개방적인 시민의태도를 토론하고 함양하는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든것들도 우리에게는 타민족을 향한 돌봄이다.”[99]

인간의성장과정에서 새로운지식을습득하기위하여 교육은언제나 참여를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부는서로가 동반자 관계라는 상호협조적 태도를 갖는 평등 의식이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에서 의식의변화를위하여 문제 제기하는 교육방법이있다. 즉 Paulo Freir 의성인 교육방법으로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하는교육이다.

[98] John Patton. 장성식옮김.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 출판사. 2000).156

[99] Carrie Doehring. 오오현. 정호영 역. *목회적 돌봄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12).138

인간이처하여있는 구체적인 삶의상황에서 성찰과비전으로 자기 의식을개발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삶의 변형을 형성하여 나가는 방법이다.[100]

한국 교회는 기독교 선교 1 세기 동안 교회 안의 활동에 익숙해져 왔다.기독교 가치관과 의식 활동에서 실천과 교육 훈련에는 매우 취약점이 많다. 즉 나름대로 영성은키웠으나 새로운가치관과 의식구조를위한 실천교육은 외면하여 왔다. 한국교회는교회윤리와 세속윤리를 철저히 분리하는'이중 윤리'를심어온것이다. 이러한 한국적상황에 그룸의 "몫을나누는 실천" 교육이론을 도입해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평화의공존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제를발굴하여 새시대가요청한 기독교 교육역할과 과제를조명하는 것에있다. 다민족들이 사회의편견과개인의능력[101] 부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실정에초점을두어 그들을 돌봄에힘을 기울어야하며 다문화기독교 교육관점에서 기독교상담접근으로 다민족학생을교육하는 것에대해 생각고자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돌봄교육의 개념 정리를통해 기독교적 다문화돌봄교육 범위설정하고

둘째, 다문화 돌봄교육과 기독교 다문화 돌봄교육의 현실을 분석하며,

셋째, 다문화돌봄 교육안에서 학생교육의 현실적 필요를 검증하며,

---

[100] 조한혜정. *가족에서 학교로,학교에서 마을로*. (서울: 또하나 문화사. 2006).237

[101] LEE Jeong A .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221.

마지막으로 기독 연구를 통해 다민족 학생 돌봄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상담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후 사회적 심리적 지지가 더중요함을지적하며 다민족 돌봄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여 기독교상담 및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문화 기독교 교육을위한 신학적 해석 작 업을 중심으로 교회교육 커리큘럼에 주제를 두어야 야 할 것이다.[102]

(2)돌봄 목회의 교육학적 신뢰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님 나라의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난뒤에변화를 위한과제들을 제시한다. 이를위해 하나님나라의 신학의 대표적 인물인 J. Moltmann 의 신학을 활용하였다. 몰트만은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20 세기 교회와 세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교회와 세상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였기 때문이다.[103]

한국교회 교육 문제점으로,

첫째, 지성을 상실하였고, 신앙의지적 체계를 세워주는일을 소홀히했다.

둘째, 삶에 뿌리내리고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삶과 분리된 심령화 된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있다.

---

[102] 이기춘. *한국적 목회 신학의 연구.* (서울: 감리교 신학 대학원. 1993).185

[103]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127

셋째, 구원하는 일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교육에만 치중하고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에는 소홀했다.

넷째, 교회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민족을 향할 책임과 사명 부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배움의 부족[104]이다.

다섯째, 복음의 폭넓은 차원을 교육하기보다 개인화되고 영혼화된 단순 복음을 반복해서 교육했다.

여섯째, 너무 시끄럽고 열광 주의적 교육의 폐해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지적으로 성숙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한다. 성령충만한 초대교회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행 2:42)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교제했다. 성서에대한 학문적 교육과 신학과 교리교육을 통해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어야한다.

둘째, 복음의 폭 넓은 이해를 통하여 삶을 사랑하고 생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혼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 차원에서, 교회에서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동체 교류,[105] 즉 다민족과 돌봄 사회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서로

[104] KIM Jong Hoon. *행복한 교회의 삶*,(서울: 쿰란 출판사. 2008) 57

[105] Hans Kung, 정지련 역. *교회*,(서울: 한들 출판사,2011) 106.

음식을 나눔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속엔 음식이 있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돌봄 목회의 교육학적 나눔의 실천

그것은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육신 위한 것이든 영혼을 위한 것이든 그 배후에는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106]

넷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 되야한다.사회역사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돌봄 다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다섯째, 가치관 변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바른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교회 교육이 위의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 학회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07]

이를 위하여 먼저 서구 기독교 교육의 미래 전망을 살펴 보았고, 한국 기독교 교육의 미래 전망을 교회, 학교, 가정, 미디어, 사회 등의 다섯 가지 기독교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세계를 향한 돌봄의기독교 교육의 미래 과제를 학문적 과제와 학회활동의 과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교육학적 과제는 다시 공통적 과제와 현장별

---

[106] 강민준 목사. *뿌리 깊은 영성.* (서울: 신앙계.2015). 21

[107] Margaret Ziths Konferd. *공동체의 돌봄과 상담.*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3).178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통적 과제는 현장과 관계 없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포스트 모던 경향에 대해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응전해야 할 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셋째는 세계화 및 지구촌화의 확산과 이로인한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독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넷째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의 의미와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독교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다섯째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기독교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또 현장별 과제가 제시되는데, 교회영역의 가장 큰 과제로는 교회 학교에 대한 대안적 모델 연구를 들수있다.[108]

학교 영역을 위한 과제로 종교 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가정 영역을 위한 과제로는 가정교육의 회복에 관한 연구, 미디어 영역을 위한 과제로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기독교 교육방법 연구, 그리고 사회영역을 위한 과제로는 기독교 교육을 비롯한 평화교육과 환경교육 돌봄 교육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실제적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회활동의 과제를 학문연구, 현장변화, 학문 공동체를 위한 과제로해야하겠다.

---

[108] 전요셉.김찬규. *영혼 돌봄의 이해.*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0).258

다문화돌봄 가정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로의 통합과 돌봄이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모든다양성이 공존하는 정책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동등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109] 소수자의 안전한 공간 확보는 무조건 적으로 mainstream 사회로의 통합을 강요하기 보다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각각 다른 차이에 맞추어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9] 윤정한. *방과후 아동 돌봄 교실 지도 자료*. (서울: 해피앤 북스. 2013).147

CHAPTER 4. 성경적 돌봄 사역의 의미

돌봄 사역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긍휼사역의 하나이다. 삶에서 좋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목회자와함께 동역하는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 회중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사역의 개념이다. 멜빈스타인브런(Melvin Steinbron) 은 "16 세기의 종교개혁이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었다면 이 시대의 개혁은 교회가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멜빈박사는 그의 저서(목회, 혼자 할수 있는가?)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한 밤중에 놀라서 깬 4 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돌봄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110]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아이는 놀라 엄마를 부르고 소녀의 엄마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교훈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말한다. "아가야! 네가 이렇게 놀라 깨어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단다." 그러자 소녀는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피부로 느낄 수있는 사랑이 필요해요."라고 대답했다. [111]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돌봄 사역자들이 해야할 일이다.

1.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의 의미

[110] Melvin J. Steinbron. 서병채 역. *목회 혼자 할수 있는가.* (서울: 한국 연구소. 2001).127

[111] 한국 평신도 목회 연구소. *돌봄의 부르심.* (2008).158

돌봄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직업의 행위 과정을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이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목사가 집행하는 일체의 목회활동, 설교, 예배, 사회활동, 선교 등을 통틀어 말할 수 있고, 좁은 의미로 구체적인 개인과 집단을 향한 목양적 관심과 활동을 목회적인 돌봄이라고 할수 있다.

성경에서 목회적 돌봄의 의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25-37)에서 한 인간의 위기를 보고 공감적(Empathic) 일치감에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 해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112]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목회적 돌봄의 신학"(The Theology of Pastoral Care)의 근본적인 전제는 '인간적인 전제를 근본적인 교류적"이라고 정의한다. 목회적 돌봄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때문에 사람은 서로 돌보지 않고서는 균형 잡힌 삶을 살수가 없다는 뜻이다.[113]

목회적 돌봄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영적 필요에 대한 새로운 목회의 방법인 것이다. 목회적 돌봄은 예배와 설교, 심방, 상담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과 긴밀한 신앙적 관계를 맺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경험 하도록 개인 대 집단의 갈등에서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114]

---

[112] Carrie Doehring. 오오현. 정호영 역. *목회적 돌봄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12).89

[113] 김경수. *하나님의 돌봄 기도*. (서울: 도서 출판 누가. 2007).178

[114] John Patton. 윤덕규 역. *영혼 돌봄의 목회*.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1).117

2.성경적(역사) 돌봄의 의미

제 2 차 대전은 목회와 목회신학 발전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시대적인배경으로 미국은 1940 년대에 목회분야의교수직제도가 채택되었다. 그 당시에 대표하는 목회신학자로서는 폴 존슨(Paul E. Johnson), 캐롤 와이즈(Carrol A.Wise), 웨인 오츠(Wayne E.Oates),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 등이다. 그 이후에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 제이 아담스(Jay E. Adams) 등이 등장했다.

이들은 심리학 적배경을 갖고 있으며,심리학적 패러다임 안에서 고찰된 목회적 돌봄과 성경적 시각 혹은 신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목회적 돌봄 사이의 일치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15]

그 이후 목회적 상황을 점차 심리학적으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상담 사역의 구조와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상담의 신학적 성경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이후에 목회적 상황을 점차 심리학적으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상담사역의 구저와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상담의 신학적, 성경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116]

이후에 목회적 돌봄 과정의 진행은 20 세기 중반 부흥기를 가져오면서 안톤 버이슨(Anton Boisen), 보스톤의 내과 의사인 리차드 캐봇(Richard Cabot)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원목 러셀 딕스(Russel Dicks)의 활동과 1930 년대 후반에서 1940 년대 후반 사이에 있었던 여러 요소들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115] 김경수. *돌봄.* (서울: 서로 사랑. 2006).248

[116] Charles Gagkin. 안석모 역. *살아있는 인간 문서.*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8). 11

그 이후 1940 년대 후반에서 1950 년대 초반에는 많은 신학교에서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과목들이 생겨나개 되었고 선구자적인 저서들이 목회적 돌봄 분야 교과서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50 년대에서 1970 년 사이에 목회적 돌봄 문야가 급성장하는 시기였다.이때 병원, 복지기관, 교도소,약물 남용치료를 위한 상담과 그리고 지역 교구의 목회사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곳에서 임상목회적 돌봄이 실천적 학문으로 대두되었다. 1980 년대를 지나면서 목회적 돌봄의 경향은 근대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개방적이고 대중적인대화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상태에 대해 언급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117]

3. 목회적 돌봄과 교회 성장의 관계성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목회와 신학 괴리라는 상당한 문제에 봉착해있다. 목회현장 속에서 신학을 구체화시키면서 옳바른 실천 목회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도 어느 교회든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즉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불치의병 시한부 생을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직장을잃고 위기에빠진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무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집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들, 교회에 새롭게 나온 사람들, 영적인 위기에빠져있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

[117] Neil Pembroke. 장보철 역. *예배와 목회 돌봄*.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258

영적 무기력 중에빠진 사람들,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선교사의 자녀들 등등으로 돌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118]

교회가 목회적으로돌봄을주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목회자의 위로와치유사역이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회의돌봄 사역은"신앙과기도만으로 성도를돌보던것을 철저히 개인화하여 목회자가 성도들을돕는 사역을해야 한다.지난해 일산 모교회에서 있었던일이다. 한 교회에서 열심을다해 봉사하고 헌신 하던 성도가 가정 내의 문제로 자살을 했다. 그 때 교회는 성도가 자살을 택할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음을아무도 예측하지못했다. 뒤늦게 목회자와성도들은 한 성도의자살사건으로 인해서 하나 같이 "진작에 알았더러면"하고 후회를 했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었다.[119] 문제들이 목회의 현장에는 비일 비제하다.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목회자들은 외향적인돌봄보다는 성도들의내면적인 문제까지 모두돌봐야 한다. 이러한 돌봄이 예수님의 목양적인 돌봄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기에 위로와 격려의 목회가 곧 많은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돌봄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들이 생명의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120] 성경에서 하나님은돌봄이 필요한사람들에게 "내가 주릴때에 너희가먹을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 25:42-43).

---

[118] C. Charles Bachmann. 최혜란 역. *목회적 돌봄을위한 애도 다루기*.(서울: 학지사. 2011).227

[119] Roy Oswald. *사역자의 자아 돌봄*. (서울: 그리심. 2007).125

[120] Thomas Moore. 김영운 역. *영혼의 돌봄*. (서울: 아침영성 지도 연구원. 2007).113

예수님의 돌봄의 사역은 분명하시다. 소외된 자, 병든 사람, 새신자, 중풍병자 어려운 일을 만난사람, 장기적인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들 모두 돌보아주셨다. 돌봄 목회는 치유와 함께 연약한자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영혼이 회복되기에 많은 사람들을 주안에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121]

4.목회적 돌봄의 Seward Hiltner

1) 돌봄의 목회 신학론

Seward Hiltner 는논리 중심의 이론적 신학 분야와기능 중심의 실천적 신학분야연결시켜서 목회자가목회현장에서기능화할수있도록 연결한학자이다이뿐 아니라 전통적인 목사의 직무인 교리문답,목양, 설교등을 조직적, 대화적, 목양적(Shepherding) 로 분류한 학자이다.[122]

시워드 힐트너는 개념을 통하여 목양적인 관점을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인도(Guiding) 로 구분한다. 시워드 힐트너는 회복의 발전으로서 치유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대상으로 피해, 손상, 결단 등을 말하고 있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신체적 질병과 죄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죄로 부터의 용서와 구원에서의 거듭남이 바로 목회적 치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지탱은기다림의 목양적 기능이다. 지지와 격려의 목회기능으로 치유가

[121] 김상인. *목회 돌봄 상담*. (서울: 한국 전인 개발원. 2003),257

[122] Ibid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정체성의 회복이나 원형적 진행 과정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을 때 행해지는 인간에 대한 보살핌의 형태다.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는 인도의 기능은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강요, 설득, 해석, 양자택일은 인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기둥은 오늘날 목회 상담학의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는 윤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자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도를 받도록 돕는 기능을 말한다.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123]

'어느날 성도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우선 목사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불행을 당한 가정을 심방한다. 심방을 가서 사별로 부너 오는 충격과 슬픔을 우선 다루게된다(목양적 관점의 지탱의 기능). 그러면서 당장에는 이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 때 적절한 말씀을 읽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드림으로(목양적 관점에서 대화적 관점의 기능으로 옮겨짐), 위로와 격려,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위로한다. 그때 그 다음 과정인 장례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다.[124] 장례식 날짜와 시간, 장지, 비용, 교회의 장례위원회의 역활 등 핸장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을 다룬다(대화적 관점에서조직적 관점으로).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적당한 기간 동안 심방을 통해서 드린다(대화적 관점의 기능을 함께 활용).

위의 예를 보면 한가지의 목회 업무를 시행할 때마다 세 가지 관점의 기능이 엇바뀌어 가면서, 또는 동시에 활용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목회적 업무를 기능적으로

[123] 이기준. *한국적 목회 신학의 탐구*.(서울: 감리교 신학 애학 출판부. 1991).79

[124] Cristina M. 박준양 역. *헬스케어 영성*. (서울: 카톨릭 대학교 출판부. 2016).153

조직화시키는 것을 힐트너(Seward Hiltner)는 돌봄의 목회신학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2) 목회적 돌봄의 새로운 경향

찰스 V. 거킨(Charles V. Gerkin)은 '목회적 돌봄의 개론'의 책에서 고대이스라엘 목회 지도자들의 돌봄의 형태를 보면 제사장, 예언자, 현명한 안내자로 균형 잡힌 역활을 제도적 구분하려고 노력했다.[125] 그러나 오늘날 현명한 안내자로역활이 목회적 돌봄의 실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찰스 거킨은 목회자들의 돌봄의활동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적인 분별력을가진 언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적용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또 하나늬 목회적 유산이라고 보았던것이다.그는 인간의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에 있어 인간의 발달을 인식하게되었다.

찰스 거킨은 목회적 돌봄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달 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목회상담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돌봄의 환경에 의한 양옥과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26]찰스 거킨은 미래의 목회적 돌봄의 유지를 위한 목회 상담의 요서를 두가지로 말한다. 첫 먼째 요서는 심리적 역동성곽 인간의 내적 삶에 대해서 강조한다. 좋은목회적돌봄이란 개인의내적존재와 이야기함으로써 관계복음을구체화하는것이기때문이다. 두번째 요소는무시되거나 소외된사람들을 향한 사명감이다.돌봄 목회사역은 사회에서

[125] 전요셉. 박기영. *기독교 상담 학자*. (서울: 쿰란 출판사. 2008).258

[126]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교. 2013).147

버림받은사람들에게 깊은관심을가짐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 사랑과격려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함으로온전한인격으로회복하기위함이다. 그래서 돌봄 목회사역은 상담가의 사무실을 찾아오는사람들 위한 사역이아니라 돌봄필요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도들을구체적돌보는목회사역의 한방편이다. 이러한 돌봄 사역에 찰스 거킨(Charls V. Gerkin)이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가 있다.[127]

목회신학자 토마스오덴(Tomas C.Oden)은 21 세기의목회돌봄의역활은새로운 심리학의 영역에서 가능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목회적돌봄이해는 한 사람의 돌봄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다. 이를 위해서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친히돌아보아셨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한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돌보신 것처럼 교회 또한 이런 목양적인 돌봄을 가지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아야 한다.[128]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는 런던에서 길을 가고 있을때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녀는 한 남자가 몹시 외로워 보이는 표정으로 홀로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지가 너무 오래만입니다” 라며 환한 미소지었다.그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관심가져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수있는가를 그 일 이전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돌봄은 훈련에 의해서, 은사에 의해서 주어진다.[129]

---

[127] 홍영택. *가족 목회.*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15).228

[128] 박명희. *돌봄의 미학.* (서울: 푸른 사상. 2011).89

[129] Howard Stone. 최민수 역. *돌봄이 있는 교회.* (서울: 솔로몬.2009).253

돌봄 사역에는 5 개 기둥이 있다

첫째, 부르심 (Called)

둘째, 은사가 주어짐 (Gifted)

셋재, 준비됨 (Prepared)

넷째, 도움이 주어짐 (Helped)

다섯 째, 보내어짐 (Sent)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때는 사역을 위한 은사를 먼저 주신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도움을 주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가 사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때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130] 하나님은 먼저 인격이 갖추어진 소수를 선택하여 준비시키고 회중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맡김으로 회중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목회자의 역활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목회적 돌봄은 팀 사역이다.[131]평신도 사역자들은 위기 때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목회자의 역활은 준비(구비)시키는 것이다. 목회자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에세 힘을 주고 준비시켜 주는 사람이다(엡 4:11-12).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벧전 5:2) 이것은 곧 목회의 정의와 같다. "연약할때나 강건할 때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

[130] 정진주.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서울: 한울. 2012).188

[131] 최민수. *목회 상담과 돌봄.* (서울: 그리심. 2008). 56

CHAPTER 5. 돌봄 사역의 역사적 유래

1.예수님의 돌봄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와 '가르침' '치유'로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은 복음을 통한 말씀 위로와 용서가 목회적인 돌봄을 실천하신 사역이다. 연약한 인간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비천한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을 예수님은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자니라."(딤전 5:8)라고 보았던 것이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가정들을 돌봐야한다.[132] 이유는 이웃에대한 관심이기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다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돌봄목회 사역이었다고 말한다.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군중에게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목자 없는 양을 돌아보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다운 목회의 본을 보여줬던 것이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수가성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인간을 어떻게 돌봐야하는지 친히보여주셨다. 오늘로 말하자면 수가성 여인은 새신자의 한 모델이다.[133]

---

[132] 안승경. *지혜로은 돌봄*.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교. 2013).295

[133] 오성춘. *목회 상담과 상담 목회*. (서울: 쿰란 출판사.2011).358

돌봄은 한 인간이 가지는 문제를 소중히 보시고 영원한 생명에 확신과 소망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돌봄 통해서 베풀어주신 목회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2.신약 초대교회의 돌봄

초대교회 사도들의 돌봄은 신약 성경에서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돌봄 목회를 "함께 통용하며,음식을 나누며,기도하며 찬양하며"라고 초대교회의 돌봄 사역을 소개한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각 구역,각 전도회,각 교구 별로 하나의 단위를 정해거 세분화된 돌봄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사역으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저들은교제하며떡을 떼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상부상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떡을 떼었다는 의미보다는 예배에참석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즉 성찬을 통하여 주를기념하는 은혜의 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는 생활을 함으로서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134]

그들은 나눔의 공동체로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통영하고 또 재간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생활을하였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자신의 욕심을 배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다. 누구나 차별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주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도

[134] Nancy Paulbrare.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서울: 또하나의 문화. 2007).173

했다. 돌봄적인 결과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유형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135]

3. 돌봄의 중세사 접근

초대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원화된 구분이 없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 교사들이 공동으로 목회를 담당하다가 교회의 성장에 따라 감독,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세분화하여 목회를 수행하였다.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서 루터는 교회를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집행되는 '신자들의 공동체' 라고 봄으로써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다시 개혁 되어야 할 것을 주장 하였다.[136]

만인 제사장설 에서 모든 신자들은 신앙안에서 '성도의교제' 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동등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이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의 관계가 일어나는 유기적 교회론을 주장하였다. [137]

근대에 들어서면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등의 영향으로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다시 변질되기도 하지만 슐라 이에르마허(F, D, Schleiermacher) 와 리츨(A. Ritschl)의 영향으로 다시 "공동체", "모임"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

[135] John Patern.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2000).225

[136] 김경수. *성경적 돌봄.* (서울: 목양 도서 출판. 2012).414

[137] Howerd W. Storn. 최민수 역. *돌봄이 있는 교회.* (서울: 솔로몬.2009).156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개념이 교회의 의미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교회사적 맥락을 보면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의 교회 이해는 초대 교회적 교회, 즉 성령의 생명력으로 함께 돌보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된 것이다.[138]

그러나 제 2 차 대전 직후 세계교회는 목회신학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1940 년 목회 분야의 교수직 제도가 채택되면서 당대에 목회 신학자인 폴 존슨 (Paul E, Johnson) 캘롤 와이즈(Wayne E, Oates), 시트 힐트너(Seward Hiltner), 하워드 클라인벨 (Howard Clinebell) 등이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심리학적인 배경을가진 목회적인 돌봄 학자들이다. 이들의영향으로 돌봄의 신학적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천신학 속 목회적 돌봄이 대두되면서 돌봄이 가치를 확신하고 목양적인 설교, 예배, 사회활동, 선교 등구분하면서 돌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39].

4. 돌봄 목회의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나 여러 개인 들의 합 이상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돌보고 치유하며 자라게 하는 유기적인 한 몸으로서의 돌봄 공동체이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John Calvin)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다.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라며 성도는

[138] 성규탁. *한국인의 서로 돌봄*. (서울: 이담북스. 2013). 248

[139] 김상인. *목회= 돌봄+ 상담*. (서울: 뉴스 앤조이. 2003).375

지체로서 서로 도우며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보기 때문이다. Calvin 은 "하나님은 교회의 품 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장성해 신앙의 목표를 도달 할 때까지 교회의 어머니 다운 돌봄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돌봄의 영역으로 보았다.[140]

교회는 어머니적인 돌봄이 필요하기때문에 Calvin 은 인간을 세가지로 이해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둘째, 전적 타락한 인간,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인간을 전제한다.

이렇게 칼빈을 목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이 목회의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이다.[141] 어머니들의 따뜻한 성품 속에서 자녀들은 자란다.

[140] Cristina Muinke. 박규호 역. *행복을 찾아가는 자기 돌봄*. (서울: 더좋은 책.2016).263

[141] 한국 보육 교사회. *돌봄의 보육*. (서울: 교육 과학사. 2006).189

CHAPTER 6. 돌봄 목회의 의식 변화

1. 돌봄의 의식 변화

기독교 위기 상담의 저자인 Scott Fuloid 는 이렇게 말한다. 돌봄 목회에 대해 필자는 어느 정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언급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 보편적 주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돌봄목회라는 것은 아직 한국에는 없다. 중독이나 노숙자 프로그램,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쉼터 등을 운영하는 교회는 보았지만, 일반 목회에서 돌봄 목회를 정착시킨 교회는 적어도 필자가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는 없다는 말이다. 여러 권의 책을 읽어 보았지만, 현실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 책들에 소개되는 내용들 몇 가지 익히면 돌봄목회가 가능해지 는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142] 필자 또한 돌봄목회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돌봄목회가 정말 한 영혼에 엄청난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어야만 한다. 끝없는 돌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말 끝이 나질 않는다.

(1) 돌봄 목회의 현실

– 몸이 아픈 사람

– 마음이 아픈 사람

---

[142]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 애학교.2013). 155

–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 영적으로 아픈 사람

(2) 돌봄 목회의 전문성

정말 교회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을 돌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능력을 의지하고 있을것아니라 자신의 능력을길러야한다(하나님의능력을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강단 맡길 수있겠는가? 어쩌다 한 두 번은 가능하겠으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경우 신학훈련은 필수적이고, 신학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신학공부가 있어야만 강단을 맡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만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사용하신다. [143]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과 성도들을 돌보는 중요한 사역을 비 전문적인 헌신과 봉사에 의존하고 있는것은 기독교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먼저 갖추어야한다. 조직을 갖춘다고 되는것이 아니다. 위원회 만든다고 제대로 작동하는것이 아니다. 조직과위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수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한다. 즉, 조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전문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 [144]

(3)돌봄목회에 성도들의 위기

---

[143] 최민수. *목회 상담과 돌봄*. (서울: 그리심. 2008). 257

[144] 고글리. *로드스클러*. (서울: 또하나의 문화. 2009).324

- 실제 교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알아 차리고 있을까?

- 고통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돌봄목회라는 어감이 강하게느껴지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된다. 목회 현장에서 부딪치는 돌봄을 어떻게 도울것인가 중요한것은 바로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트라우마 등을 경험한 사람들, 일상 중에 겪게 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들의 과정들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수 있어야한다. 위기 중에있는 상실과 애도, 비애의 성격이나 증상, 그리고 과정 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본 서는 심리상담의 공부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 이러한 개념과 이해를 편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지 않은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보다 그들의 고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145]

(4) 목회적 돌봄의 개론

20 세기초 심리학적 지식은 목회의 주 된 관심되어 목회치유는 다시 관심 받게 되었다. 심리학은 교회안의 고통받는 사람 돕도록 목회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가능케 했다. Freud 정신분석은 오늘날까지도 심리학을 지향하는 분야로서의 목회적 돌봄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음 운동은 기독교 사회주의라

---

[145] 김상인. *목회=돌봄+상담* (서 울: 뉴스 앤조이. 2003). 158

불리게된 사회학의 영향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사회적 원리를 적용함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보다 넓은 세상을 돌보는 것을 의미했다. [146]

이들은 교회의 지도력을 통한 사회의변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편 이 시기에 임상목회 교육의 창시자인 Boizen 은 교회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있는사람을 위한 사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앞으로 자신은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리라고 확신했다. 초기부터 임상목회 교육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펴져나갔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펴져나갔다.[147]

근래에 특별한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돌보는데 이어 목회자들과 평신도 상담자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방법론적인 제안하는 문헌들이 발표되면서 광범의 한 발전을 이루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본다는 상호적 돌범의 개념이 교회안에 자리 잡은거도 바로 이 시기이며 이러한 집단의 대부분은 평신도 지도자 들에의해 생겨났다. [148]

목회상담은 점점 더 전문적인 위탁 활동으로 정의 되었다. 목회적 돌봄 지도자들이 2 차 세계 대전 이후 목회 돌봄에 큰 영향을 준 개인적인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영향에서 벗어나 기독교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새로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일부 목회

[146] 최창국. *영혼돌봄을 위한 멘토링.*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5).275

[147] 김경수. *돌봄과 상담.* (서울: 더서 출판사. 2007). 89

[148] Peter Speck. 카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역. *완화 돌봄의 팀 접근.* (서울: 군자 출판사.
2010).128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Rogers 와 다른 인본 주의적인 방법들로 상징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기초한 목회적 돌봄의 모델들이 더 이상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149]

(5) 헨리 나우웬의 돌봄 사역

이 시대의 돌봄목회 사역자로 위대한 공헌을 한사람은 헨리나우웬을 꼽을수 있다. 헨리 나우웬은 20 세기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영적 거인이다.

[149] Glen Asquith. 장보철 역. *목회 돌봄과 상담 사전*. (서울: 진함 엠앤비.2014).235

CHAPTER 7. 의식 변화

1. 어려움을 당한 여러층의 사람들을 돌봄으로 바꾼다.

(1) 소년, 소녀 가장

이번 여름에는 한국에사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 주었다.우리 교회는그다지 큰교회는 아니지만 교인들이 합심하여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부모없이 자기들이 일터에나가서 일을하면서 동생들을 볼보며 공부도 하는 아이들이다. 그 가운데 부모가 있어도 병이든 부모들이 있어도 돌보아 주지 못하기때문에 아이들이 직업 일선에 나아가 일을 해야하는 아이들이 많았다.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이아이 들을 연결 시켜주었다. 여러 아이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먹고 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교인들의 협조로 아이들을 교인들이 분담하여 몇명씩 집으로 데려가서 잠도 재워주고 먹는것도 돌봄을 분담 해 주셔서 혼자 돌보는 것 보다 덜 힘들었다. 미국을 동경하는 아이들이라 호기심을 많이 안고 왔고 보고 싶은 곳도 많았었다. 돈이얼마가 들어도 이 아이들 원하는 곳을 구경시켜주기를 나도 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무척이나 미국에와 보고싶었다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의 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한국의 소녀 소년 가장을 언젠가는 꼭

그들을 초청하고 싶었었는데 올해 여름에 그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 올수가 있었다.

하루는 뉴욕 시내 관광을 시켜주었다. 이 아이들은 농촌에서 사는 아이들이였다. 그러니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도시인 뉴욕의 만하탄을 구경을 하니 아이들 눈이 휘둥그래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구경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식구들 염려하고 같이 오지 못한 식구들을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다. 만하탄을 구경하면서 계속 탄성을 내는 것이였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에 놀라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한국과 똑같이 모든 것이 있는 것에 이 아이들이 놀라는데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어떤 아이는 한국 시골에서 배운 영어를 현지인들 하고 말을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백인 한테 말을 걸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의지의 한국인인 것을 볼수 있었다. 미국에 왔으니 매일 양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였는데도 탈나는 아이들이 없었다. 이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교회에 교인들의 수고가 많았었다. 정말 보기에 좋았고 내 마음도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남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이렇게 뜻이 있고 행복한 일인줄은 알았지만 실천을하니 우리 가정도 좋고 우리 교인들도 그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들도 행복하고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일을 했노라고 간증도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줄 예전에는 몰랐었다고 간증하는교인도있었다. 이 아이들을 초청한것이 나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들 마음에 잘 막힌 못과같이 교인들 마음속에 큰 교훈과 아름다운 결실과 놀라운경험을 통해서 교인들이 많이 성숙한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의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인들이 전혀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의형제 자매 처럼 살뜰하게 챙겨주고 어떤 교인은 자기에게 배당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물도 사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돈으로 소비해가면서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과분한 사랑을 해주신 교우도 있었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가 왕래하며 살자고 가족끼리 맺어가지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기로 약속이 이미되어져 있는 교인들도 있었다. 이런 운동은 내가 한 것 같이 한 번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뿐만 아니라 교회차원에서 하면 좋겠고 만약에 작은교회에는 다른교회와 합해서 한국에 있는 소녀 소년가장들을 초청해서 이런 큰 나라것을 보게해서 큰 포부를 갖고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면 좋겠다.

교협이나 목사회 차원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교협에는 많은 교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재정가지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어렵게 사는 새싹들을 위해서 걷어들인 후원금이나 헌금이나 재정을 목사들이 놀러가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좋은 일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이 아이들이 희망과 소망과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저들의 생각과 넓은 포부를 갖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꼭 보고싶어하는 것이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보고가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주기위해서 미니밴에 먹을 것을 싣고서 8 시간 조금 넘게 운전을 하고 그곳을 갔을 때는 아이들의 탄성은 이루말 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곳에 오니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면서 소녀 같이 소년 같이 기뻐서 뛰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흡족하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했구나하면서 나에게도 만족한 마음에 행복감이 물밀듯 느껴지는 것이 행복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보람있는일을 목회학 박사 공부를하면서 하게 된 것은 학교를 향한 감사함과 고마움과 교수님들의 수고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트 팀들도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보고 저들도 우리학교가 참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르친다고 입을 모아 말을한다. 나이아가라를 다 구경하고는 그곳에서 케나다가 보이니까 이아이들이 케나다를 가보고 싶다는 것이다. 여권이 있어야 가는데 했더니 아이들이 한 결 같이 여권을 챙겨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케나다로 가야했다. 국경을넘어서 케나다 폭포를 보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마음에 기쁨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 보는 것이 저절로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다. 케나다에 왔으니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기에 연락을 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이 곳에 오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기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와서 식사도하고 잠도 그 곳에 와서 자라고 하시니 나에게는 구세주인 셈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식사를 해야 했었는데 어디 가서 먹어야 할지 몰랐었지 때문에 방황 할뻔하던 시기였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예전에 알았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더욱 더 감사하다.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들이였다. 한국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아이들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정말 행복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국에 온 첫날의 얼굴들이 아니였다. 첫날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웠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은 없어보였다.

나는 왠지 약간의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이 이곳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때 그곳에서의 생활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생길까봐 간혹 마음이 무거워 질 때가 있다. 내일 일은난몰라요 오늘의 이즐거움에 무거운 마음은 생각하고 싶지않았다. 내일은 이 아이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든다할지라도 오늘의 이 즐거움을 누가 막을 수가 있으랴 어느 누구도 막을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 내마음이 무거웠었냐 하고 나도 즐거워진다. 그곳에있는 친구목사님께서 어차피 이곳에서 자야하니 자기집이 넓으니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이다. 하룻 밤을 우리를 재워 주시겠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반가운 소리지만 대뜸 대답을 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세를 지겠느냐 했더니 신세는 무슨 신세냐 이것이 다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갖자고 한사코 우리를 친구 목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서 안자고 친구 목사님댁에서 하루 밤을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이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의인간 관계를 실제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오는 길에도 1000 섬도 구경을 시켜주었다. 우리들은이곳에서 쉽게 접하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시 올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나도 욕심을 내어서 보여주고 싶은 모든 곳을 보여주고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서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을돌보고 섬기는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이다.돌아오는 길에도 여러곳을구경하고 쉬는시간이 되면 저들이 먹고싶은것을사주고시간마다 즐겁게 해주니가 얼마나들 행복해 하는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도 전염이되서 행복해하시는 것을보니 나는 저널로 행복하고 행복의 바이러스 같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전달이 되니 하나님께서도 행복해하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안다.

하나님의은혜로 안전하게 집으로돌아올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감사한 기도를 하고 각자의방에가서 쉬기도하고 음악을듣기도하고 미국 TV 도보는 아이들 여러 형태로 자기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짠해오는지 이곳에서 짧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다시 한국에가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압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가볍지가 않고 이 아이들의 걱정과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해오는 느낌이 있다.

이번에 온 아이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런 아이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도가 되어진 것이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어김 없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리고 예배를 몇 번 드리면서 이아이가 달라지는것을 내 눈에 보인다.그리고 떠나기 전에나와 약속을했다 한국에가서도 집 근처에있는 교회에 꼭나갈것을나와 굳게 약속을했다 그리고 이웃에 안믿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겠다고 학교 급우들 중에 안 믿는 아이들에게도 전도하겠다고 하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나라를 확장 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나의 벅차오르는 마음을 아실것이다. 보여주고 싶은 곳은 많지만 핵심적인 것만, 한국에서 관광들 오시면 기본적으로 투어하는 곳은 거의 보여준 것 같다. 가기 몇 일 전에는 그래도 미국에

왔다 가는데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사야한다고 해서 여러 곳을데리고 다니면서 선물을 사도록 도와주고 갈날이 닦아와서 그들을공항에데려다 주고 서로가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눈물의 허그를 하면서발이 안떨어지는것같은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는 나도울고 아이들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주변에가족들과 나왔던 사람들도 우리들이 껴안고 놓을줄 모르고서로가 우는것을 보고 그들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섬김과 돌봄이 아니겠는가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잃거나,부모가 이혼을해서 양쪽 부모들이 집을나간 경우나, 편모나 편부밑에서 살면서 병이든 부모를 돌보며 살면서 동생들과같이 사는어린이 가장들을 많이보았다. 이런아이들을 나라에서책임을져주거나 돌보아 주는 기관이 한국은 없는것을 보았다. 그렇다고 종교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선뜻 도와 주는곳이없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에서는 옆에 있는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을돌려서 볼줄 알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하시지 않았는가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어린이 가장을 볼보아야 할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우리는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없다.

한국에서 사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신문사를 하면서 남편이 하던 것을 친구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신문사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신문이 세계로 나가있고 모든 사람들이 즐겨 보는 그런 신문이다. 본사가 대전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고 무시 못하는 튼튼한 신문사로 장성한 회사의 오너이다. 남편은 48 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내 친구는하나님을 의지하고 회사와 가정을 돌보며 사업을 키워 나갔고 지금은 기반을 잡은 신문사이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소년, 소녀가장들 돌보는 자선사업도 하고 대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는 친구이다. 해마다 대전의 행사로서 소년, 소녀가장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생활비도 지원해주는 행사를 해 마다해서 대전에서는 큰 유지이고 그 지역에서는 천사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라에 공헌을 하는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이다. 몇 년 전에는 대전 시장이 주는 큰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신학공부를해서 목사님이되시고 교회도 개척해서 한국에서 목회도하고있다. 내가 학생 때 친구의 아버지가 주변에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는것을 보고 나도 어른이 되어서 장로님과같이 되어야 겠다고 마음을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돌봄 목회에 전심을 다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자랐다.

그리고 가게 동래에 사는 청소년들이 어쩌다가 감옥에 갔다오면 꼭 봉투에 돈을너어서 주곤한다. 그러면서 그돈을 그냥 주지 않았다 꼭 복음을 전하고 주곤한다. 그렇게 여러번했던 아이가 어느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믿겠다고 하더니지금은 예수를 너무 잘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는 얼마안되는돈이지만 그들의에게는 필요하고 있어야할 물질이였기에 그 때를 놓지지않고 나는그들의마음에 파고들어 복음을넣어 줄수 있었다.

내가 아는 여자 삼형제를 알고 지냈다. 이 아이들은삼형제가 다 도둑질을 하는 형제들이였다. 이 아이들도 감옥을여러번 갔다왔다. 그런때마다 그들형제에게도 똑같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었다. 한 두 번이 아니였다. 삼형제가 들락날락 하니정말 봉투에 돈을 넣어 주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그 형제들을 볼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돈을 수시로 달라고 하는데 큰 돈은아니였다. 2 불도 주고 3 불도 주고 달라는 데로 수시로 돈도 주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돌보아주는것이 헛되이 되지안았다. 삼형제 중에서 큰 언니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던 것을 안한다고 나에게 와서는 활짝 웃으면서 교회다니기 시작했다고 자랑을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돌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슬이 내려서 사람의 옷을 적셔주 듯이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들의 심령의 옷을 적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볼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경험한 자만이 아는 기쁨이다.

(2)생활고의 어르신

요즘은 백세시대라고 해서 그런지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눈에 띈다. 한국을 볼때 옛날이나 볼수있는 교려장을 21 세기인 요즘에빈번하게일어나고 부모를나몰라 하는 자녀들이많은 것을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보고 있는 요즘의 실정이다.

부모가 힘들게해서 공부를시켜 놓았더니 부모를 모른척하고 사는 자녀들땅 팔고, 소팔고, 남의집살이 하면서 자식들 공부 시켰는데 부모가 늙으니 단칸 방하나 얻어서 그곳에 살게하면서 들여다 보지도않고 생활비도 안주는자식들이 수도없이 많다는것을 어르신들을 영어를가르치면서 많이들었다. 부모하고 같은 집 아래 윗층에 살면서도 먹는것도 따로해 먹고, 부모를공경해야 하는데오 전혀 공경하지않고, 자식들과는 외식도 자주 하면서 부모님과는 외식을해가 바뀌어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

한국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길거리의 폐지를 주어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음식들로 연명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오질 않아서 돌아가신지 몇 개 월 후에야 이웃들의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로원 사역과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다. 교인들과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몸소 행해서 느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나 이웃이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면 우리 교회의 구제부나 선교회에서 앞장서서 돌보아주고 정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기관을 연결해 주어서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인 것을 도와 주고있다.

감사 한 것은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 하지 않고 내 식구에게 하듯이 하는 것을 볼때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 눈에도 비추어 질때 하나님께 영광을돌리고 정말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성도는 어르신들을 볼때 자신의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외면 할수가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부모님 살아 계실때 잘 봉양을 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을 어디에서 보든 자기부모 같이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잘할려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형제님은 부모님과 관계가 않좋아도 너무너무 않좋은 관계였다. 일년에 겨우 명절 때만 오고 그리고 부모님의 생일엔 어쩔수 없이오고 한다. 부모님들은 손주들이 보고싶어서 자주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짝사랑을 하시면서 살고 있는 것이였다. 그렇게 수 년을 살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보고나 만나면 여러

가지를 바리바리 싸주면 부모님 앞에서는 받아서 가지고 가지만 자식은 집에가서 가지고온 물건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손주들이 다른 친척들에게 말을 해서 그말이부모님들도 알게되었다. 그래도 부모는 그자식을미워하지 않는다.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부모중에 한쪽이 돌아가신 후에는자신들이 잘못한것을 깨달았는지 남은 한분에게는지극 정성으로 잘 모시는 것을 보았다.이 같은 경우에는 한분이 세상을 떠나고서야 혼자서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죽었다는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경우를 보았다.우리 가게 건물 근처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다.이분들하고는 절친하게 관계를갖이고 서로도와가며, 우리 손님가운데 옷을 수선을하면 언제나 장로님 가게로 보니드리곤한다.그리고 손님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전화를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나 뛰어가서 내일같이도와드리고 먹을 것이 있어도 같이 나누어 드리고 국경일 같은 때는 두 가정이 좋은 곳을 같이 여행하기도 하는 마음이 잘통하는 이웃이였다.한번은 손님이가게에 와서 행패를부린다고 해서 여느때와 같이 뛰어서 가게를 갔더니 덩치가 큰 흑인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이드신 장로님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금방이라도 때릴 것 같이 악을쓰고 있었다. 말을 들어보니 옷을 세탁을 해주었는데 조금 맘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이런 사람들은 내가 상대를 해보고 장사를 했지만 조그마한 트집을 잡아서 돈을안내려는 마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이경우도 세탁을 했는데돈을 내기 싫어서 트집을 잡고있는 것이다.큰소리 치면 대부분의 주인들이 듣기싫고 귀찮으니가 돈을안받고 그냥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기회를 노린것이다. 그러면서 가게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고 가게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경찰을 부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옷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뛰어나가버리고 말았다. 어르신들이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셔서 문 닫을 때까지 같이 있어드리니 마음에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연로 하신 분들이라 저녁 대접까지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하루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자기 집주인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것이다.그 장로님이 가게 리즈가 끝나서 가게에 리즈를 다시받는 과정에서 렌트를 올린다고 주인의 통보를 받은것이다.그 관계로 같이 가서 집주인에게 렌트를 깍아달라고 말좀해달라는 것이다.솔직히 나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은아니니다. 내가장사하면서 배운 영어라서상업 영어밖에는 할줄을 모른다. 그러나 어르신이 영어를 잘몰라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거절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그런데 거물주인은 없고 주인이 매네저한테 맡기고 주인은 전혀 관여를 하지않는것이였다. 말이라는 것은 매네저 보다는 집주인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우리의 의사를 잘표현을 하고 꼭 집주인에게 전해달라 하고는 장로님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분은 딸을 유학보내고 최고의 공부를 한 훌륭한 딸이 있고, 사위는 뉴욕에서 잘나가변화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딸과사위에게 부탁하지 않고나한테 같이가자고 했을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러 돌봐주라시는 것 같아서 동행을 해드린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르신들이 많이계시다는 것을 보았다. 내가 효신 교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그분들이 영어 배우러 오시면서 나라에서 배달온 우편물들을 많이 들고들 오셨었다.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키고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부모들은 자식에게 도움을못 받고 남들에게 신세를 지는것이다. 지금도 많은어르신들이 전화가와서 그때 도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신다. 나는 어느누구나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디든지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는마음이 내 마음에있다. 이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전혀 내마음에 싫은 마음이 안든다 그리고 귀찮다는 마음이 조금치라도 없다.

(3)병든 환자들(어머니 기도회)

요즘은 목회자들도 반 의사는 되어야 한다. 세상의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집안에 한사람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것 같고,내가 아는 자매의 집안에는 암에 걸린 분이 아버지와 딸이 암에 걸린 경우를 보았다.딸은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 안있어서 유방암으로 수술을받았다. 그후에 몇개월 후에 친정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아버지는 나이가 드신분이라서 다들 염려를 했다. 이런 큰 수술을 잘견뎌 내실지에 모든 친척들과 집안 식구들이 걱정을 했다그러나 수술을하고 잘 회복 되어서 지금은 식사도 하시고 좋아지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기뻤다.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여자 목사님들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각별하게생각하고 매달그들을위해서 기도하니 어떻게 잊을수가 있는가 자매님도 좋아지고 친정아버지도 좋아지고 있으니 이모든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중보기도팀들의 어머니 기도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것이라 믿는다. 이분들도 어머니기도회 중보 기도팀들의기도로 자기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항상 만나면 우리들이 자매님과 아버님을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기뻐하는 얼굴을 볼수 있다.

내가 아프신 목사님한분을 알고지내고 있다. 내가 한때 선교를 남미로 갈려고 스페니쉬 말을 몇년동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었다. 강의가 끝나면 후러싱에

모셔다드리곤 했다. 내가 스페니쉬 말을 배울 때 그 목사님의 얼굴 혈색이 너무 안 좋게 보여서 하루는 수업 마치고 가는 길에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데 몸이 안 좋은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간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분은 칠레선교사로 파송 받고 젊음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몹쓸 병에 걸려서 집안 식구들도 반가워하지 않고 자기 엄마 마저도 귀찮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며 위축된 생활을 하는 그 목사님을 볼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그 분을 보거나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언가를 항상 건네 주었다.그리고 말한마디를해도 그에게긍정적인 말을 해주곤 했으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큰위로가 되었겠는가 나는 항상 그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없었고 간혹 얼마를 봉투에 넣어 드리면서 드시고 싶은것 꼭 목사님만 위해서 사 잡수시라고 하면서 손에 꼭 쥐어주곤 했다. 그러나 금전만으로는 그 목사님을 위로해 드릴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프기도하지만 목사님이 어디가서 목회도 하실 수 없으시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드신 상황이시다. 사모님은 목사님과 헤어져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고 교인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돌보아 드리는 것도 아니니 혼자서 견디기라는 것은 누구도 이해 할수 없는 상황을 알지 못하면 모르겠으나 알고있는 처지라 도움의 손길과 돌봄의 손길을 그 목사님에게 향할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많은것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 사역에 힘을 쓰고 있다. 우리 주님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웃에 사는 집사님이 사시는데 처음에 그를 보았을땐 죽을 병에 걸리신줄 알았었다.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볼수 있었다. 볼때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집안이야기

친척들 이야기 그리고 직장이야기 사업이야기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의 사정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예수는 믿어도 믿음이 그렇게 강한 믿음은 아닌것 같았다. 처음본것 같이 몸이약해서 일도 잘 할수도 없었고 늘 몸이약해서 약을 먹으면서 늘 힘이 없게 보였다.

하루는 병원에 가야하는 데 자기하고 병원엘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였다.영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것이다. 이럴땐 나는 너무 감사했다.내가 뭐라고 남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임을받는 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안에서 기쁨이 넘치는것을 느꼈음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절로나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여러번을 이 집사님과 병원을 같이 다녀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병원에 엠브란스를 타고 병원에 왔다고 하면서 와달라는 것이다.그래서 전화를 받자 마자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한 보든것을 통역해주고 남편이 일을 끝나고 와서 나는집으로 온적도 있었다.지금은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도 잘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사업도하는 건강한 사업가 건강한 교인 전도하는 집사로서 큰 교회에서 남편과 교회에 봉사를 잘하고 있는것을 볼때 돌봄이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고 감사한다.

(4)이혼한 사람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결혼 생활을 정말 백년회로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다. 옛날에는 아니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모든 어머니 세대의 분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2.기존(이미 알고있는)의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으로 바꾼다.

상담, 교육, 독서, 토론, 멘토링

3.기존의 경험을 능가하는 경험을 나눔으로 바꾼다.

팀웍(구역장과 구역원들과의 관계), 웍샵, 여행, 공동 생활, 가치 탐구 활동

4.진리의 말씀으로 바꾼다 :설교, 성경공부, 묵상(큐티),암송,그룹토의

5.교인들 의식 변화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의 인식과 의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첫째는, 은혜 자원(영적 자원)이다.

성도란 무엇보다 은혜받아야 일을 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 세상 조직에서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구성원이 움직이지 않듯이 성도 역시 은혜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잠자는 신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은혜가충만하여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 자원을 공급해 주어야한다.특별히 새로운 도시목회는 더욱 더 그렇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곳에 교인들은 진정한 은혜 자원을 공급받지 않으면 헌신하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 교회출석하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겉도는 신앙생활만 할뿐이다. 그야말로 인스턴티즘(Instantism)에 빠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어찌 힘있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150]

둘째는, 프로그램 자원이다.

은혜 자원이 마무리 풍성하게 공급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아무리 은혜받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교회가 프로그램 자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은혜받고 헌신하도록 해야만 교회가 규모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셋째는, 인적 자원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이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또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활성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151] 그래야 움직이는 교회, 활력있는 교회가 된다. 특별히 새로운 교회는 더 그렇다. 그런 교회는

[150] 성규탁. *한국인의 서로 돌봄*. 서울: 이담 북스. 2013.1.128

[151] David G. Banner. 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이해*.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0).347

모이는 숫자는 많은데 정작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활동하는 사람은 적다.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는 많으나 목회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움직여주고 헌신하는 성도는 정말 적다. 한 마디로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새로운 교회일수록 인적 자원이 많아야 교회가 잘 성장한다.[152]

넷째로, 재정적 자원한다.

교회는 신적속성을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 속성을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리기에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기도 하다. 정말 현실적이으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일할 수 없고 부흥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교회살림을 꾸려 운영도 하며 여러 가지 시설과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네 가지 자원이 필수 적이다. 새로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자원이다. 모든 자원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자원도 다른 자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 [153]목회 현장에서 필요 적절한 프로그램은 목회의 경영 도구요, 은혜 자원을 더 파워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묶어주는 기구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자원이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영혼을 만족하게하며 배부르게 해준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자원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활동적이고 신나게 교회생활을하게 하며 신바람나는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해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회성도들을 신바람나게 하고 살 맛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는가?

---

[152] 홍영택. *가족 목회.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15). 158

[153] 이기준.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준망사. 1986).168

(1)은혜(영적) 자원

한스 큉이 말한 대로, 현대인은 기성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커가는 반면에, 종교적인 욕구는 더 강렬해지고 있다.[154]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 전통적인 태도와 규범, 의무들에 대해서는 반항감이 커지고 저항감이 많아지지만, 하나님과 진리 자체를 향한 영적인 욕구는 더 왕성해지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교회가 그저 제도적인 전통교회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신선한 영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착한다.[155]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먼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둔다. 예컨대 매년마다 1 월 첫주에 목사가 직접인도하는신년축복 성회 8 월에 인도하는 말씀 산상수련회는 이미 교회에자리 매김을 든든히한 아주 큰 대형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할수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집회를 손 꼽아 기다릴 정도로 말이다. 또한 정기적인 특별새벽기도와 특별철야기도, 특별 성경 공부 가 있고 중직자와 구역장을 비롯해 기관별로 실시하는 중, 소그룹 단위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목회 현장을 기름지게 하는 도구로 요긴하게 사용되고있다.

(2) 프로그램 개발

과거에는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해가며 봉사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요즘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

[154] Hans Kung. 정지련 역. *교회*. (서울: 한들 출판사. 2011). 487

[155] 이수훈. *세계 체제론*. (서울: 나단 출판사. 1992).252

가정을 희생 하면서 봉사라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긴다.[156] 오히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가정의 행복을 보장받고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교회가 당연히 가정의 행복거리를 제공하고 제시해 주기를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처럼교인들의 사고가 바뀌고 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은 새 교회 사람들 속에 더 빠르게 나타난다.

현대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가정행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가정에게 끌려가고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목회의 우선 순위와 본질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의 흐름앞에 도치법적이고 역설적인 목회의 접근을 하라는 말이다.

목회의 우선 순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접근 방법만 바꾸라는 말이다. 특히 새로운 곳의 목회는 더욱더 그렇다.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우리가 처음 목회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먼저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157]바로 이런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위해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고 하였다.그 결과소위 괜찮게 사는 사람들, 곧 전형적인 새로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부담된다는 것이다. 목사가 너무 성도를 억압하고 부담을 주기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은근히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알곡 성도를 얻으려고 강조했던 메시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는 가정 행복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 교회가 먼저 가정의 행복 거리를 주고 부부사랑과 자교육을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목회로 접근했다. 교회가 희생을 배려해주고 진심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돌보아주었다. 그러자 성도들은

---

[156] 홍영택. *가족 목회*.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2015). 85

[157] 박명희. *돌봄의 미학*. (서울: 푸른 사상. 2011).125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교회에 충성하기 시작했다. 교만에 가깝도록 마음 문을 열지않던 사람들도 목사에게 마음을 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회 성장과 성전 건축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가정사역을 전문으로하는 교회이고, 여러 가지 가정행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158]예컨데 본 교회 목사가 인도하는 행복한 부부생활 세미나(매년 2 회 해외나 국내에서 몇십쌍씩 3 박 4 일, 혹은 4 박 5 일 동안)와 연말에 있는 송년 부부 뱅큇, 기관별및 교구별로 모이는 부부모임과 부부 성장교실 등이 그것이다. 송년부부 뱅큇은 두 교구씩 하룻밤 동안 하는데 이제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날짜를 잡기 힘들 전도가 되었다. 또한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민족의지도자로 배출 시키는 자녀 비전 기도회, 영광의 가문을 만드는 기도회 등도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아기를 낳아 처음으로 데리고 나온 아이를 강단에서 기도해 줄때 혹은 유아 세례시 이런 기도를 눈물겹게 해준다.[159]

이런 프로그램이 활기차게 가동됨으로써 교회 건축하는데도 누구하나 불평 하지 않고 전 교인이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3) 인적 자원

현대 교인은 갈수록 내교회 사상과 교회 소속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니 어찌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아쉽고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현대교회는 성도들에게교회론 교육과 교회

[158] 정태기. *나는 치유하는 목회자인가*. (서울: 크리스챤 치유 목회원. 2000).173

[159] 한국 보육 교사회. *돌봄의 보육*. (서울: 교육 과학사. 2006). 158

사랑 훈련을시켜야한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160]

그래서 나는 영성 프로그램과 가정행복 프로그램에 이어 교회론과 청지기 훈련 프르그램 개발에 전력을다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실천적 교회론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말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되려면 누구나 6 개월 과정의 특별 교회론 교육과 청지기 훈련 과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받는 교육은 교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평생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61]

이런 교육은 매년 1 회씩 있는 중직자 수련회(장로 수련회,안수집사 수련회, 권사 수련회)와 격월로 있는 사명자 기도회, 매월 있는 구역장 특별기도회 등으로 이어진다. 이때 실시되는 공동체 훈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William Colins 말대로 훈련만이 본질과 제도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 훈련은 반드시 기도원이나 야외로가서 한다. 다만 반드시 유념할 것은 아무리 영육과 청지기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선 안 된다. 영성 프로그램과 가정행복 프로그램 후에 혹은 적어도 그것들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162]

(4) 재정 자원

---

[160] 김선기. *목회 상담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0).274

[161] 김경수. *성경적 돌봄*. (서울: 목양. 2012). 158

[162] 옥선화.정민자.*결혼과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하우.1993).172

복음을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교회가 지역 사회를 봉사하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주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현대인은 눈으로 복음을 보길 원한다. 교회가 아무리 해외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큰 선교를 한다할지라도 거기엔 큰 관심이 없다. 먼저 자기들 눈에 교회가 지역 봉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그럴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게되고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된다. 이런 현상은 신 도시일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 [163]

그러기에 현대 교회는 특히 신도시 교회는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한다. 그래야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 는교회가 되고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여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일찍이 이 부분에 눈을 뜨고 개척교회 시절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컨데 경로잔치, 사회복지과 봉사, 영세민 쌀가마 전달. 신년 노인당 세배, 지역 거리 청소, 전 교인 헌혈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다. 이때 규모가 큰 지역 봉사는 지역 유선 TV 와 신문 기자를 불러 특종 뉴스로 지역 사회에 보도하게 하기도 한다.[164]

그러나 이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행복을 물씬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정말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다. 나는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 하니 큰 소득이라 생각 한다.

이외에 선교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 교제 프로그램 등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모두 다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세상에

---

[163] 정진주. *돌봄 노동자는 주가 돌봐주나*. (서울: 한울 출판사. 2012).275

[164]고글리. *로드스쿨로*. (서울: 또하나의 문화. 2009).76

어떤 프로그램도 모델은 될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례만 있을뿐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명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굵은선만 제시했을뿐이다. [165]

도시나 신도시교회서나 농촌교회에서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지 결코 본질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요긴하다 할지라도 은혜의본질 위에서거나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166] 프로그램은 은혜와진리가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지탱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167]

---

[165] 정기선.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 가족 실태와 전망*. (서울: 집문당. 1997).352

[166] 황정임. 김영란. *맞벌이가구 자녀들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모델 개발*. (서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2011).275

[167] 홍용택. *흔들리는 가정*. (서울: 성서 연구사. 2001).158

CHAPTER 8. 돌봄 목회 현장 배경

1.지역적 배경

브루클린(Brooklyn)은 뉴욕 시의 5 개 단위의 행정 구역 중 하나이다. 1898 년 뉴욕시에 편입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독립 도시로서 유지되어왔다. 지역적으로 Hudson 강 하류와 대서양 연안이 마주치는 곳에 위치하여서 항구 도시 뉴욕의 관문 역활을 하고 , 무역으로 인한 부두의 창고업이 발달하였다.Brooklyn 정체적면에서 주거지역 구성된 전원도시이며, 지역 중심가는 뉴욕 시 행정 단체와 부서들이 자리잡고 있다.

1992 년 말 현재 인구는약 230 만, 뉴욕시 통계구에 의하면 1970 년대 초반까지 전체 인구 2,602,012 명이었다. 1980 년대부터(Oil Shock 이후)약 십 년간 4%의 인구 감소 현상을 보여왔다. 그 원인은 백인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그 공간에 흑인과 동양 민족 등 소수민족들이 다소 유입되기는 하였지만, 인구 이동에 따른 가감이 비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 있다.

2.주민 구성원

1991 년 12 월 말 나타난 인종별 비율은 백인이 48.6%, 흑인계가 30.9%, 히스패닉계가 17,6%, 나머지 아시아와 기타 소수민족이 2.9%로 나타났다. 브루클린은 뉴욕 다른 행정 구역보다 인종별 주거지역 분포가 비교적 뚜려한 밀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 밀집지역(Boro Park), 이탈리아인 밀집지역(Bay Ridge), 러시아인 밀집지역(Brighton), 웨스트 인디언 밀집지역(Flatbush), 그리고 흑인 밀집지역(Flatbush & East New York)들이다.브루클린 지역의 한인 거주 분표는 뉴욕 시 5 개 지역 중에서 퀸즈(Queens)지역 다음으로 많은 수적 분포를 차지한다. 1990 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중국계가 238,919 명 14.5%를 인도계가 94,590 명 11.6%를, 그 다음으로 뉴욕시 한인 전체 인구는 69,718 명 뉴욕시 전체 인구에 비하여 8.7%의 한인 거주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168]

3.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및 과제

Brooklyn 한국인 처음 입주한 것은 1949 년경 유학생과 정부 및 고고 기관의 근무자들였다. 1965 년경 수명의전문의료인(의사 와 간호사)들이 이주하여지역 병원에 취업으로 본격적인 한인커뮤니티가 현성되기 시작하였다. 신앙공동체로서 최초의 모임 1971 년 3 월 7 일 여덟 가정이 의사, 간호사들이 모여서 '킹스 카운티 병원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한인교회 개척의 효시가 되었다. [169]

그 이후 최근까지약 30 여개의 한인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주로 백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대부분 한인들은 생업수단으로 야채가게, 생선가게, 세탁소, 잡화점을 주로 경영하고 있다. 또 봉사 단체로서 최근 한인회는 대내외적으로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있다. 현재 교인 중 이민 1 세대가 이민생활 10 년에서 15 년 된 가정들이다. 그들의 교육배경 60%가 대졸학력자들이며, 나머지 40%가 고등학교 학력을

---

[168]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195

[169] Brooklyn 한인 교회 창립 역사 참고.

가지고 있다. 자녀들의 언어사용 분포률 참고한다면, 대부분 1 세대나 자녀들 까지 영어에 능숙하다. 1 세들을 제외한 자녀들이 한국어 이해 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정도로 보고있다. 한인 1 세들의 상한 문화적 욕구는비교적 한국의전통적 예배의식을 영어 문화권에서 이해하려하고 있다. 자녀들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있다.

목회적 과제로 하나님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믿음을 같이한 그들은 지나간 한국 생활에서 차별과수모, 억압과고통의경험이 남다르게 많은사람들이다. 가정파괴로 인하여 고난과눈물로 어려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교회가 설립된 후, 심방과전도를 통하여 지역에 이러한 여성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듣고 보면서, 새로운 목회를 계획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170]

교회의 예배는교인들의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이동식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한 장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며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171] 교인의삶에 활력소를 가져오게 하기위하여 개인적 신앙수준과 재능이나 특기를 파악하고 알아보았다. 실험목회를 통한 현장 예배와교육 뿐아니라, 교인들의이민 생활을위한 기능 개발교육을계획하고, 실험목회적 차원에서 직업교육(기능개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함께참여하는 공동체로 맡은바 책임 수행을 감당하고,격려와용기를주고 복합문화권에성공적인 삶의 의미를찾기위해 계획된다. 현재 이민생활에서 경험하는여러가지 어려움을극복하도록 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여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172]

---

[170] 이기춘. *돌봄의 신학*. (서울: 도서 출판 감신. 2002).252

[171] 박명희. *돌봄의 미학*. (서울: 푸른 사상. 2011).198

[172] Evan O Flesberg. 장보철 역.*아빠, 엄마너무 힘들어요*.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2016).158

실험 목회를 통하여 그들은 새롭게 기독교 가치관을 확립하며, 이웃을 돕는 신앙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실험목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선교적 활동으로 연결 시키는 목회의 비전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돌봄 연구의 내용

(1) 돌봄 연구의 중요성

과거 집사의 한사람으로서 이민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인들과함께 이민생활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그결과로 한인들은 이민생활에서 본래가지고있던 한국적 가치관, 의식의흐름, 말미암아 이웃 소수민족들과 잘 화합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한국에서 꿈꾸던 이민의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행복 하였던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173]

복합 문화권에서 그들의 이민생활은 본의아닌 상황으로 발전되었으며, 타민족과 생기는 마찰과 불협문제, 그리고 한국이민사회에서, 생기는 계층간의 반목과질서 문제는 상식수준을 넘어서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타문화권에서 생기는 잘못된 이민생활 가치관, 의식 구조변화 과정때문이다. 문제는 소수민족의 대열에서 한국이민이 주체자의 의식과 의무를갖지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질문화 충격은 다른 이민들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의식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서로 다른 삶의 양상과 가치관은 새로운 문화의 영역 객관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

[173]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 문화. 1991).214

이민자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 효과적인 목회를위한 노력과 훈련 적절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174]

이민이란 전통적 습관과 적절한 환경 솟에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서부터 뽑아 내서 생소한 풍습이세력을잡은 낯선 땅과 사람들 가운데로 이식하는 것과 같다. 그곳에서는 전에 익숙하던 생활방식이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데, 이민생활이생소 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옛 인연의 관계들은 끊어지는 동시에 사람들은 때로 가혹하고 적의에 찬 환경속에서 새생활을 보람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하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뿌리 뽑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위험 속에서산다. 이식의 과정은 새생활이뿌리를 채 내리기도 전에 낡은 뿌리가 말라 죽는것이니, 이민의충격과 그 충격의 반작용들, 긴 세월에 걸친 그리고 저들이 받은 이같은 영향들은 죄 없는 후세들에게 까지 내려가는 것이다.[175]

이상과 같은 이민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이민교회의 목회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민 목회는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억압에서 해방하고, 모든 고통에서 풀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이 이민목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험목회는 하나님을 향한 '의의나라'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회의 중요한 점으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의 상황이 달라진 이민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권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도록 기능 훈련을 통하여 선교의 목적도 아울러 실현하여 나가도록 목회를 하는 것이다.[176]

---

[174] 이상현. *이민 목회.* (서울: UPCA. 1987).255
[175] 장윤성. *미국 이민 사회의 교회와 가정.* (서울: 양각서. 1986). 117

[176]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민족 의식.* (서울: 지식 산업사. 1992).158

(2)돌봄 여성 기능 개발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

이민생활의 현실에서 실험목회가 지향하여야 할 목회적 방향은 분명해졌다

첫째, 한인들의 효과적 이민 정착을 위한 목회 방법의 수행

둘째,이민사회에서나타나고있는 한인여성들의 문제점에대한 목적 대안 제시

셋째, 이민교회가 독신여성들을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민생활 문제는 이민 목회의 과제가 된다. 이민목회자들의 능동적인 계획과 그 과제 수행은 이민교회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향한 이민 생활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나가는 하나의 구심점을 실험 목회가 마련 하고자 한다.[177]

실험목회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수용하고 출발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성도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기간은 짧다. 그러나 그들은 10~15 년의 이민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가부장제로 말미암아 미국이민생활에서 차별과학대, 억압과 소외로 인한 절망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교회가 개척되던 초기에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있었기 때문에 과거의삶을 자학하면서 자신들의 형편과 과거 경험들을 쏟아 놓지 못하였다. 다시말하면 성서가 증언하고있는 예수는가난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소외와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속주며,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오늘날 이민의 특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

[177]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 254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고백하며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178]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진리이다. 예수를 인간의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구세주로믿는다면, 오늘날 실험목회의 대상이되는 여성들에 구세주는 어떻게 설명 되어야 할것인가?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학적 진리속에 오늘날 이민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국 여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할분명한 해답을그여성들은 발견해야한다. 만일 인간사회구조나 그들의 생활의식 구조에 잘못이 있다면, 실험목회를 통해서, 그들을위한 자유와해방의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우리가 예수를 신앙의공동체안에서 만나고 해방의 차원에 도달하는 삶을 발견해야 하는것은, 교회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지체들을 위하여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179]

해결점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될 때, 교회의 존재와 가치성이 분명하게 된다.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은 수평적으로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요구에 섬김의 도를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한 어두운 고통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화해의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한인 여성들은 이러한 수평적 신앙생활의자세와 수직적 신앙생활의 태도를 확립하고 이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포용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178] 이원규. *종교의 세속화*. (서울: 나단 출판사. 1992).284

[179] 박명희. *돌봄의 미학*. (서울: 푸른 사상. 2011). 158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들만이 가지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180]

이민생활에서 이혼율은 최근비공식 통계에서 높은수치로 나타나고있으며 이러한통계는 한국에서도 최근 조사에서근사 치수에 가까운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이민교회는 경직된 세속의 공동체처럼 양심의 마비 속에서 의미 없는 예배 의식만 진행 되고있다. 이러한 이민목회가 어느때까지 지속 될는지 짐작할수없다. 그러나 성서가 보여주는 교회나 기독교 역사를 통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의식으로 끝나는 사역은 아니었다.[18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족 물량주의와 기복신앙을강조하는 신비 주의적 목회가 마치 영혼 구원의 궁극적 목회인 들이 강조되고 있는것이 이민 목회의 현실이다. 이것은 교회를 생업의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한 변칙 목회로 전락하고있다. 복합 문화권에서 도전과 문화적충격으로 새로운 목회계획과 방법이 이민교회에 요구되고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새로운 목회와 이민교회의 정착을 위한 발전적 비전이 잘못된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본다.

(3)돌봄 목회의 문제 분석

기독교인,비기독교인의삶에서 발견할수있는 진정한 차이점이있다면 그것은 다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세상 사람들가운데서 하나님 고통에 동참하면 자신의 고통을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182]

---

[180] 미주 중앙일보. *결혼 시장 불안*.(1994), 16

[181] 이상현. *이민 목회*. (서울: UPCA. 1987).286

[182] John A Robunson. *Honest to God*. (The Westminster Press. 1993)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 모임이다.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의지체들은 그들의삶의주위에서 구원사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온갖 억압과 고통을 받고있는 이웃을 위해서 작극적인 돌봄 목회에 참여 및 해방의 논의와 더불어 목회활동이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1970 년대 중반 급격히 불어난 한국 이민의물결은 이제 한세대를 넘기는시점에 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상황속에서 새전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이민 사회와 교회는 현실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전개될 하나님의 돌봄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제 2 세 목회와 이민교회의 영속적인 정착 작업을 계획하여야 될것이다.북미 전역에는 약 백만의 한인골과 3,288 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다.[183] 그들이살고있는환경은 다른 문화권의생활 터전일 뿐 아니라 한국보다도 더빠르게변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인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잔도 사회적 상황과상호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수있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은 수례자의 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민이라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도전은 그들의 신앙과도 관계가 깊다. 신앙생활의보금자리인 이민고회도 사회적 역활과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이민생활의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문화 구조와 그 배경 그리고 매일같이 전개되는 타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민 1 세들이 어떻게 대처하여 나가고 있는가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의식 변화와 적응도를 관찰하면서 한인 사회에 기독교 교육과 돌봄 활동을 정착 시키는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184]

1)성서적 분석

---

[183] 미주 크리스챤 신문. 제 524 호. (1994).25

[184]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268

‘룻기’와 ‘에스더’는 성서가 증언하고자하는 여성활동에관한 대표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에스더는 절대 권력자인 이방 왕과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기(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활동하고 자기 민족 말살의 순간에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였다.룻의 경우는 서민 출신 여성으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극심한 삶의 환경에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잃어버린 절대 절망의 여성이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룻은 비록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된 (신 23:3)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았다. 우리는 룻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난과 슬픔에서 새로운 축복과 유업을 받는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신실한 것임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85]

차별과 억압, 고통과 소의된 삶의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화혜와 위로는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게와 의식을 가지고 성서의 가치관을 실천한다면 차별과 억압으로 인한 고통이 개념이 변할 수있을 것이다. Richard Snyder 는 “우리는 룻과 같이 해방을갈구하는 모든 피압제자에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일치를 위한 기본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유다 지방이 과부들과 고통을 당한 이방인들이 살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줄 알았지만 굿은 자신이 고통과 차별을 각오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과 함께 가서 화해와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였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185] T Rlchard Synder. *Divided We Fall*.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되시리니"(룻기 1:16)라는 것은 일치와 위로를 위한 성서적 교훈이다.[186]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에서 나타난 인간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상황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동일하다. [187]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개인이나 또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수행시켜왔다. 하나님에 의하여 평등한 선택을 받은 룻이나 에스더는 복음사역과 역사적 과업을 이끌어 나가는 여성 주체자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여성 주도적 복음의 문화로 나타나는 장면(눅 24:1~35)을 볼 수있다. 남성 주도의 복음 사역자(제자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다음 날부터 갈릴리 바다로 엠마오로 모두 흩어졌으며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포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의 진정한 사역 활동은 어떤 권력자나 특수한 모습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였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의 성서적 행위가 남성 주도의 가치관의 그늘에서 은폐되어 왔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188]

그러나 인간 문화의 역사에서 서구의 가부장제는 남성 지배문화라는 사상으로 조명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성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

---

[186] 지명관. *한국 문화사.* (서울: 삼민사. 1988).306

[187] 최인희. *100 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95

[188]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256

상황과 사회의 전통을 우리들이 이해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의 행위의 동기와 믿음 그리고 가치관과 열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여 주었다.[189]

성서적 사실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할수 있는 것은 시대적상황에 적응하여 온 인간 문화의 유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서안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의 뜻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남녀는 평등하다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성서적 기록은 바울 사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예배 의식에 여성들의 참여를 사도시대 때에 기록하고 있으며 (행 1:14), 여성들이 성령을 받으며(행 2:3), 예언(행 2:17~18)을 남종과 여종에게 허락한 모습을 볼수있다. 또 여성들로하여금 가르치는 일(행 18:24)을하도록 하고 전도도 하며 여성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맡겼다.[190]

성서가 증언하고자하는 남녀의관계는 문자적 해석 위한 중요성보다 인간역사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문화에서 이해되 있는 여성은 항상 남성과 관계속에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 종속적 입장에서 취급되어 왔던 것이다. 만일 여성의 의미가 남성의 영역을 벗어나 입장이라면 여성 자체의 주체성을 위한 '의미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창조주와 인산의 관계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남성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 여성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등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것이다. [191]

인간 존재의 의미는 인간 자체 내에서 이해되거나 발견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있다. 도덕관, 윤리관, 의식구조 교육

[189] Virginia Held. 김희강. 나상원 역. *돌봄 윤리*. (서울: 박영사. 2017).178

[190] Cristina Muink. 박규호 역. *행복을 찾아가는 자기 돌봄*. (서울: 더 좋은책. 2016).382

[191] 정연희. *개신교 설교에 나타난 선택성과 배제성*. (서울: 기독교 교육 연구소.1991).115

실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 동물의 세계로 전락되어 버리게 된다. 오늘 이민 사회에서 인간서의 올바른 의식 구조와 확립, 즉 한 사람의 올바른 인격적 인간이 되기 위한 훈련은 우리가 전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수의 모든 활동과 사역이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고통다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희망을 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192]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이르되 나의행한 모든이를 내게 말한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요 4:7~42)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확신에찬 복음 사역의 모형을 볼수 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종교 관습적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차별대우 하고멸시하였다. 요한복음 4 장에 이방인들도 구원의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선교의활동 방향이 제시 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아니하는 사람들에게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간 사역 활동은 분명히 '하나님 선교의 모형'이다.[193]

칼빈은 요한복음 4 장 10 절에'하나님의선물은 예수를통해서 값없이주는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임을 강조하면서 사마리아 여성을 확신케한 복음의 핵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 즉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했다.[194] 예수와 동행하였던 제자들도 가부장제 사회의 의식과가치관을 가지고있었기에 예수가 사마리아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여성을부수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교 사역을위한 예수의 강조점은 달랐다. 예수는종교적, 문화적 차별의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있는 사마리아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의

[192] 손송희. *여성 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3). 158

[193] Howard W. Stone. 최민수 역. *돌봄이 있는 돌봄.* (서울: 솔로몬. 2009).58

[194] John Patten. 윤덕규 역. *영혼 돌봄의 목회.*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2011).10.

자녀로 보았을 뿐 아니라, 복음의 선포자로서 유능성을 인정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사회제도, 문화전통, 그리고 차별과 소외의 의식구조 등 모든 잘못된 가치관에서 자유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5]

2)신학적 분석

한인들의 이민 생활에서 여성 해방을 위한 신학적 근거는 다양하다.이민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교회 안에는 제도적, 구조적으로 차별과 갈등,압제와 고통, 그리고 삶의 불균형들이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이다.[196]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사실이다. 창세기 1 장 26 절에서 하나님의형상이라는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들을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197] 하나님 형상은 의롭고, 선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함이 그 속성이며 지식에 이르는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또 하나님의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땅을 정복하고, 모든생물 다스리라는 독특한 책임을 부여 받았으며, 동시에 안식일과 인간자유의 개념도 포함하고있다.남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창세기 2 장 23 절에 볼 수 있는 히브리어의 남자 '이쉬' 여자 '이샤'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성의

---

[195] 신섭. *7 전 8 기의 은혜*. (서울: 하늘 기회사. 2006).158

[196] 정석기.*선교로본 세계 이민사사*. (서울: 쿰란. 2005).132

[197] Lbid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녀의구별은 '차이점' 개념이지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198]

창조주는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 여성은 남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살아 가도록 만들었는가?성서는 남녀 평등의 근본 의미를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남녀차별이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잘못된 개념의 원인은 인간들의 문화에서 오는 사회적, 구조적 조건들 때문이다. 남녀의 상대적 관계에서 차이점과 차별의 개념이 혼돈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인간들의 잘못된 제도와 구조에서 일어나는 오류 때문이며 역사는 이사실을 은폐하고 또 정당화 시켜왔다.

신학자 Berkauer 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199] 말씀은 두고두고 교회를 재현성하고 개로 만들도록 자유 하여야 한다. 교회가 말씀의 광맥을 차차는 노력을 잃는 한, 즉 복 수 있는 것은 다 보였다고 생각하는 한, 교회 힘과세상에서의 신뢰성도 함께 잃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래의 전망도, 빛도, 그리고 일과 결실도 없이 그조 늙어만 간다.[200]

성서를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계시를 이해하려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신학이다. 교회의 성서와 신학의 중심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는 자기 자신을 궁핍한 자나 억압당하는 자들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구속주가 되셨다. 그러한 사역을

---

[198] Daniel Engster. 김희강 역. *정의의 심장*. (서울: 박영사. 2017).175

[199] Joan C. Tronto. 김희강. 나사원 역. *돌봄 민주주의*. (서울: 아포리. 2014).358

[200] Neil Pembroke. 장보철 역. *예배와 목회 돌봄*.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 188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201] 그러나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오늘이 교회는 올바른 신학의 정립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

Paul Hanson 은이러한 하나님의다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위해서는 교회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유지 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성서의 개방성을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사건들과 경험속에서 현존하시는하나님이 개방성의 태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서는유대사회의 가부장제의 구조적 현실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Hansondms 은 한 분뿐인 하나님의 일관성 있고 개방적이며 끊임없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위한 사역에 인간들로 하여금 동참케하고 보다 선한 일을 동참케 하고 또 보다 선한 일을 위하여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한다. [202] 인간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별은 잘못된 전통적 관습에서 유래되고 있다.전통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가부장제를 형성하여 놓았다.따라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남성우월주의는 하나의현실적 개념이되어 버린 것이다. 남성중심의 사회나국가의 구조와조직은시대를 흘러오면서 제도화되었다. 역사 속에서 시대적 조류는 하나의 고정된 의식과 가치관의 개념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남성들은 외적 지향성 내지는 지배적 성향으로 변모되고 여성들은 내적 지향성으로 생활이 습관화되었다.[203]

그러므로 남성의 신체적 또는 물리적 힘은 비윤리적,비도덕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는 문화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는 사실이다.외적 지향성 내지는 지배적 성향으로

---

[201] Lbid

[202] Paul D. Hanson. 이재원 역. *The Diversity of Scripture. (*서울:한국 신학 연구소.1986).138

[203] Joan C. Tronto. 김희경. 나사원 역. *돌봄 민주주의*. (서울: 나포리. 2014).257

변모되고 여성들은 내적 지향성으로 생활이 습관화되었다.그러므로 남성의 신체적 또는 물리적 힘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는 문화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교회안에서 여성해방은 오늘날과같이 제도화되어진 구조속에서 비평을통한 자기 성찰과 투쟁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인간 창조 기사에서 ‘차이점과 차별’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204] 특히 1960 년대 부터 일어나서 세계적으로퍼지고있는 미국인권 운동이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에서 오는강한 열풍의 반응이라고 생각할 때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자각이 인권적 차원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이상현상이 아니다.

최근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차별의 신학적 근거를 여성들의 경험에서 출발 시키고 자기 성찰의 비평적 기회로 적용하고 있다. [205]그들의근본 목적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주장한 여자나남자나 모두 하나라는 사상을크게 뒷받침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현대교회는여전히 교회안의성차별을 방치하고있다. 기독교인들의잘못된 의식구조와 가치관 형성은인류역사의 미래를바라보면서 자기성찰위하여 적극적인 시정이필요하다. 신학은하나님의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본능적 심성을 긍정하고 있다. 진정한 신학적 합리성은 인간의삶이어려운상황에봉착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성서적교훈이다. 오늘날 한인들에게있어 한국 유교적 사회에서 형성된 남성의 권위주위와 여성의 복종이라는 ‘여필종부’는 기독교의 평등주의와 화해를 위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방해의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206]

[204] Daniwl Engster. 김희강 역. *정의 의 심장*. (서울: 박연사. 2017).231

[205] 손승희. *여성 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3).84

오늘날 한인들은여성해방의 상황에서 하나님의세계선교를위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존재 가치의 중심을 의식하는것이며, 자신이선택한 행위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동역자의 이해로 표현하며, 파트너십은 코이오니아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사람을 위해서 자신을희생 시키는 예수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초점을 찾는 것이다. 기초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상태로 이끌어 들이는 하나님의 돌봄적 명령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207]

예수그리스도의 지상 복음운동은 남녀평등사상에 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 초대 교회 가부장제의 남성 지배적 인간 사회 안에서 제도화 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성 차별 사상을 포함한 성서의 다양성이 형성되었다.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은원창조를 정신적인것으로 정의 하고 육체는 '추잡한' 것으로 타락의 결과로 정의하였으며, 터툴리안(Tertullian)은 여성혐오론의 한 극을 과시하는 신학으로, 인간 타락에 대한 원초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인간의 타락은 여성의 죄 때문인고로 여성은 '그 벌로' 예속을 감수해야 한다고 정당황하였다.[208]

지금까지 서구 신학은 남성지배주의 사상과권위주의적 사고속에서 발전 되어 왔다. 유대교나 헬라 문화도 가부장제의 남성지배주의 사상으로 유지 발전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기존 사회 가부장적 윤리와 가치에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신학적 요소가 잘못 해석되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209] 하나님의창조 목적과 인간삶의 범위에서 남녀관계는 타락이란 오명과 함께 끊임 없는삶의 악순환과혼돈을

---

[206] Evan O. Flesberg. 장보철 역.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서울: 기도교 문서 선교회.2016).123

[207] Letly M. Russell. 송승희 역. *The Future of Partnership(파트너십과 교육).(* 서울: 현대 상사.1987).257

[208] James Cone. 현영학 역. *눌린자의 하나님*.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1994).324

[209] 임락경. *임락경의 영성 이야기*. (서울: 홍성사. 2014). 168

경험하여 왔다고볼수있다. 인간 관계의 기본 단위로서 남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3) 사회학적 분석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학적 성격으로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게된다. 그 교회자체의 모든프로그램이 일종의 사회운동의종교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도있 다.[210] 즉 그 지역 사회의 배경에 따라서교회의사회적기능,성격,구조가 독특한 점을 다르게 표현 할수이기 때문이다. 이민교회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수반되는 모든 문제는 또한 이민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211]이민교회는 이민사회에서세상의 빛과소금의 직분을다하는 책임의주체자로서 모든 이민들을 삶의갈등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의나라와 의를 이루어나가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민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독신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중되는 고통이다. 가중되는 고통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안정과 평안을 기약할 수가없다.[212] 경제적 부담의 주거비와 일반 생활비, 독신여성들에게 항시 존재하는 주위의 유혹의 순간들, 때로는 참을수없는 외로움 때문에느끼는 또 다른 형태의고통의 문제들은 이민교회로 하여금

[210] 김종훈. *행복한 교회의 삶*. (서울: 쿰란. 2008).237

[211] Donald Capps. 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148

[212] R E. Ruether. *Liberation Theology*. (Paulist Press. 1972)

새로운 각성과 책임을느끼게한다. 여기에서 사회적상황을 진단하고 문제 요소를 포착하여 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밝혀 나가는 사회학적 기능과 활동을 찾아야 한다.

첫째, 교회는사회 통합(Social Intergration)의 기능을수행 할수있어야 한다.

이 학설은 뒤르껭(Durkheim)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론 학설이다.[213]교회는사회의 지배적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하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 의식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와 안정에 기여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이민교회는 공통된 신앙과 삶의 가치를 이민들에게 심어주고 교회의 결속과 그들의 필요를 개발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와 삶의 스타일이 다르며 사고 방식이다르고 가치관이 다른사회에서 교회목회자 들은일치되고 분명한 공동체성을 제시하면 교회로서 지능을 다할수 있어야 한다.[214]

둘째, 교회는사회 변형(Social Transformation) 혹은 사회변화(Social Chang)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설은 베버(Max Weber)의 새로운 사회질서 전환을 촉구하는 교회의 기능이다.[215]사회 변형의 중요한 동기로 교회는 때때로 사회에대한 비판의수행을 하여야 한다. 부조리, 경제적 불균형, 불의, 정치적 부패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회복에 도전하여야 사회 변형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들이 바로 구약 시대 예언자 들의 활동과 기능이었다.[216]

---

[213] Lbid

[214] 손송희. *여성 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3). 158

[215] Klaus Binckler. 신명숙 역. *목회 상담 영혼 돌봄.* (서울: 학지사. 2007). 258

[216] Eva Feather Karde. 나사원. 김희강 역. *사랑의 노동.* (서울: 박영사.2016).287

만일 오늘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기능을감당하지 못한다면, 일반 교인들 뿐 아니라 특히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의삶에 대한 희망이나 그들의 정신적회복과 사회 활동의 기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이민 목회자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 아래 정의의 날카로운 성서적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목회자들과교인들은 교회를무형의 사업적 관계로 형성시켜서 이해타산을 가지는 문제 때문에 사회를 위한 전당한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회는 사회 통제(Social Control)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교회는 기성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우월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217]

그러나 오늘의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사회통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기대할 수는 없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러한 기능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 속에서 자신의가치관을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바탕을두고 실천하여나가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중적기독교 신앙생활과 의식구조를 오늘의 이민사회에서 벗어버리지 못하고있다.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인의얼, 가치관과 문화적유산 등 우리고유의 민족성과 우월성을 얼마든지 표현하며 살수있다. 또 신앙의 열심과 교회부흥의 모습을 다른민족에게 전달할 수있는 기회도 많이있다. 그러나 이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의식구조 때문에 한국 이민들의 삶의 모습을경제 노예로 보여 주고 있다. 한인들은 기독교적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전통적 명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년 365 일 가게를 지키면서 돈만 버는 경제노예로 비쳐지고 있다. [218]그들은 흑인

[217] lbid

[218] 이정암.*타문화권과 선교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287

지역에서 돈을 벌고 배인 지역으로 가서 살며 자기집을 마련한다.그들은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에 동참하려 돌봄 문화적 발전과 화해를위한 활동을 하기보다 장학금, 기부금을 통해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다. 상당수의 한국 이민들은 미국 사회에서 영속적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 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한국으로 가려하기 때문에 영어사용에대한 문화적 적응의 열망이 없다.이러한이민현실은사회적으로 부정적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19]이민사회와 교회주체자인 여성으로서 그들이 안고있는문제들을 사회학적 면에서 좀더 깊이 분석하여 보자 한국의여성 문화는 '한' 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억압과 거기서 출발하는 구조적 부조화에서 오는 아픔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로 사무쳐 있다. 그것은 막연하고 표현할 길 없는 설움이며 이름 없는 아픔이다.이는 구조적 지배세력의 철저한 폭력의결과에서 문화적,사회적유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20]

또 한국 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난과 소외된 삶의 위치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아무런 힘 없고 사회적 제도나 구조, 그리고 속박 속에서 살아온 약자들이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갈망, 고뇌와갈등 속에서 교차되는 '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여성들의 이러한 역사적,문화적,그리고 사회적 유산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과 지배 구조에서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질문들을통하여 사회학적 분석 항목에서 나타난 몇 가지 심화된 특색을 고찰하여보면,

---

[219] Moltmann Jurgen. *오늘의 신학이 무엇인가?* (서울: 군자 출판사.1992).173

[220] 백낙청.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N.C.C.신학 위원회 편. 1979).

첫째, 오랫동안 지배계급에의하여 사회구조적,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유린된 한국 여성들의 아픔과 고뇌가 '한' 으로 연결 되었다는 것이다.[221] 한국사회굴절된 차별 개념과 문화적 억압과 정치 세력의 희생제물이 된 육체적 성은 '착취' 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삶의 상황은 자신들의 탄생을 한탄하는 삶이었다. [222]

둘째, 한국여성들은 가부장제에묶여 시어머니와의관계에서 악순환적으로'한'이 쌓여온것이다. 그들의 피맺힌 '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슴 속의 응어리로 쌓였다. 그들의 삶은 소리없이 흘리는눈물과고통의 세월이었다. 실험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구약성서 '룻기'에서 나타난 '화해의 삶'과 '동참하는 모습' 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의식구조의형성과가치관 발견을위한 의미있는모형(Pradigm) 삶이다.[223]

교회가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로 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사회적성격을띠고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땅에서 하나님의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소유하였다면 우리들의 삶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연결되어야 한다. 목회자나 교인들은 이러한 신앙의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삶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베버(Max Weber)는 하나의 가치관이 세속화라는 용어로 설명될때 인간 문화적 상황 즉 산업화,도시화,합리화,과학화 등 복잡한 사회분화로 인하여 다원주의 상황을

---

[221] 이화 여자 대학. *여성학.* (서울: 이화 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4)

[222] Carrie Doehring. 오오현 정호영 역.*목회적 돌봄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12).154

[223] 김용복. *한국 민중의 사회 전기.* (서울: 한길사. 1987).258

낳았다고 주장했다. [224] 인간 삶의 목적은 창조자에 대한 영광과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를 두고 상부상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남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별의 개념으로 합리화하여 상대적 개념으로변형 시켰으며, 가부장제라는 사회 구조 틀을 형성하였다.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현대 생활과 사고의 상황은 현대의 외부적 조건과 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내부 세계를형성하는 의식의 세력에 의해서도 역시 형성된다 " 라고 말했다.[225]의식은 모든 가치관과 인간들의 사고 방식의 다양성 앞에 가로 놓여 있는것이다.

한국여성들은 오랜세월동안 소외된 삶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에의해 한국적 사회구조, 문화적 영향, 정치와 경제 체제 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에 유산으로 나타난 불가분리의실체들이다. 가치체계는사람들의식 뿐 아니라 태도와 행위를 결정 지어주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가치의다양화는 결국 태도와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인간의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의식화 시켜 버린다. 한국의 유교적 지도 이념은 남존여비라는 부정적 가치관을 심화 시켰고 국민의 바르지 못한 심성을 고착시켜 버렸다.

(4) 심리학적 분석

기독교 교육심리학자 James Fowler 는"신앙이란 그 내용상황에있어서 반드시 종교적인것은아니다."라고전제하고 "신앙은우리의 삶을 이루고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원동력과관계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그것에밀착시키는방법이며, 또한 다른

---

[224] Peter I. Buerger. 김패상 역. *현대 사회와 신.*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9).175

[225] Tara Brack. 김선경. 이재석 역. *자기 돌봄.* (서울: 생각정원. 2013).238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Fowler 의 관점은 교회를 통한 신앙 생활을반드시 종교적인 것으로 볼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226]

그는 신앙이란 인간의 의지와 삶의 의미를 형성하여 가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실체나 비실체적 존재를 의식이나 관념으로만느끼고 살아가는 정태적 생활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동태적 사상들, 가치들, 의식구조의 역동적 체제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그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인여성 고유의 심성과 신앙적 상호 관계성을 생각해 볼수있다.한국 여성들은 한국 전통문화 의식에 젖어 있다. 그들은 전통문화 의식은 남성 중심의권위 주의 아래서 억압과 개성의 자유를 제한 받으면서, 경제적으로궁핍한 상황속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 온 '한'의 심리적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면에서 한국 여성들은 다른 민족 여성들과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있다.한국 여성들의 특수한심성인 '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 개성이 강한사람들이라고 표현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생활의 현장에서 또 다른 의식 활동을 강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중 한다고 보아야 한다.

Fowler 는 인간 삶의 모든 내용과 상황이 반드시 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방법 을 '신앙' 으로 본다면, 한국 여성들의 문화적 영향으로 인한 '한' 의 삶은 곧 그들 삶의 방법인 동시에 신앙이라는 결론에

[226] James W. Fowler.연구자에 의한 번역.*Stages of Faith The Psycb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nding.* (Harper Collins Pubishers. 1981)

도달하게 된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 매일 같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화적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한'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227]

그들은 이민생활에서 언어장애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 다른 문화적 관습에서 오는 이질감과 심리적불안과 정신적 부담이있으며,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사회구조적 상황때문에 불안감을 갖게된다. 여기서 나타난 심리적 거부감이 반작용은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한국문화적 생활습관을 고수케하며, 이민 사회문화에 동화 하기를 거부 하는 심리적 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정신적, 심리적갈등과 불안한 현상은 그들의 '한' 의 삶이라는 독특한 심리적 의식구조에서 나온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끼리끼리 삶이 될뿐이다. 대부분의 한국여성들은 5 년 내지 10 년을 한 마을에살면서도 이웃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살아가지 못하고'Chetto'적 고립된 삶을살아간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언어장애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모든 이질감과 소외감이 복합적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28]그들은 스스로이런 삶의 양상을 여성심리의 특성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이해하여 주기를바란다. 이같이 방향 감각을 잃은 삶의 양상은 바람직한 태도가아니며 이민문화가 경청하는 바가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전문 영역에 속하는 현상 이라고 말할 수있지만 그렇다고 특수한 경우도 아니다. 혹자는 이러한 생각에 반론을

[227] James W. Flower. 연구자의 의한 번역.*Stages of Faith The Psycb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Harpwe Collins Publishers. 1981)

[228] 이화여자 대학교. *여성학.* (서울: 한국 여성 연구소. 1994)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의 고유한 의식구조는 한국 이민자들이 긍정하고 공감할 때 깊은 이해를 할수 있다고 본다.[229]

Sigmund Freud 는 여성 심리의 특성으로 수동성, 피학성, 자기 도취성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여성 특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수동성의 기본적인 뜻은 외부로 향한 활동성의 결여나 공격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근육의 활동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수동적이고 근육 운동적 공격성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

둘째, 피학성의 원래의 뜻은 Kraft Ebing 의 주장처럼 성생활이나 성 대상에 대한 모든 수동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극단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에릭슨은 피학성이 완전히 여성적인 여성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230]

셋째, 자기 도취성(narcissism)은 자아 속에있는 심리적 에너지로 부터 나오며 피학성에서 생기는 자기 파괴를 방지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최근의 여성 심리적 경향은 생물학적 요소보다 문화적 힘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성(여성, 남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완성 시키고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서로의성을 존중하는 능력을갖는 것이 건전한 것이다.[231]

가정적으로 수직관계남성중심의 위계질서속에 한국적가치관이 이민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수평적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남편들의 일방적 요구와 지배적 양상

[229] 이창권. *한국 사회와 종교*. (서울: 엘멘 출판사. 1990).385

[230] 이정윤. *한국 교회의 종교 개혁*. (서울: 정움 출판사. 1998).147

[231] Andrew Leicester. 이희철.허영자 역. *앵그리 크리스천*. (서울: 돌봄.2016).193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된다.이민가정이 위험한 상황을 부부가 인내로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된다. 한국여성들은 자기도모르는사이에 심리적 억압으로 인한 우울증에 걸리게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로이드(Froeud)가 말하는 “자기 방어의식 중압감 때문에 항상 불안하며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서 분노와 공포,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상들은 자신을 비롯하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불안을 주게 되고, 또 직장 동료 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232]나아가서 교회와 이웃에게 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충만하여야 한다. 기독교인이 마땅히 확신하여야 할 가치관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 형상이란 ‘자유와 책임” 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생활에서오는 심리적,정신적,그리고 육체적갈등은 구속과자유라는 차원에 이민목회의 대단히 중요한과제들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 진리가 모든사람을 자유케 할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이러한 삶의 권리와 책임의 속성을 하나님으로 부터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233] 이민교회 특수상황에는 언어, 문화, 사회제도, 삶의 환경 등이 가져다 주는 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물안과 가정불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문제들이 노출되어있 는실정이다. 특히 가정이 불안과 파괴는 여성들에 심한 고통과 갈등을 갖게 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34]

---

[232] 김광일. *한국 정통 문화의 정신 분석.* (서울: 교문사. 1991).278

[233] Tara Brack. 김성경. 이재석 역. *자기 돌봄.* (서울: 생각 정원. 2013). 185

[234] Peter I. Buerger. 김패상 역. *현대 사회와 신.*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9).175

James Fowlersm 는 신앙 이란 인간이 의지하고 삶의 의미를 형성하여 가는 방법이라 말하면서 능동적사상들.가치들,그리고 의식구조를 역동적 체제로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 유교 문화의 의식에 젖어 피해의식 속에 이민 생할이 이질 문화권에서 또 다른 피해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235]그들은 자기도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심리적 억압은 다른'한'의 고통을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 프로이드(Freud)가 말한 대로 자기 방어의식의 중압감은 또 근본 요인은 이민의 특수상태라고본다. 삶의 문화적 뿌리가뽑힌 그들의 상황은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심리적 불안을 갖게 한다. [236]

(5) 교육학적 분석

인간됨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언제나 중요성을 지니게된다. 일반 교육목적은 대채로 개인의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국가와 인류 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온전한 사람을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게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사회교육은 인간중심을 이루는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의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을이루는 교육이다,[237]

한국 이민들은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상호 융합된 질서에 따라서 새로운 이민 문화창조하는 교육의주인이 되어야한다. 오늘의 이민생활에서 한국이민들의 삶의

---

[235] Tara Brack. 김선경. 이재석 역. *자기 돌봄*. (서울: 생각정원. 2013).238

[236] Evan O. Plesberg.장보철 역. *아빠가, 엄마 너무 힘들어요*.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2016).95

[237] 김경동. *한국의 가치관과 사회 의식*. (서울: 박영사. 1992).174

자세가 다른 소수민족에게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타당성이있는 교육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238]

공동 생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가치관은 하루빨리 지양하면서 이민생활의새로운 차원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한국적 이민교육은 삶의 시야를 넓히는 성숙한목적을향하여 모두가 동참하는교육 이며, 모두를 위한 공통 분모를 찾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복합 문화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깊은 통찰력, 사고와 의식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39] 오늘의 후기 산업사회는 의식의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사람들을 점점 비인간화의 소외된 현장으로 밀어내고있다. 우리들은미국을 점점 비인간화의 소외된현장으로 밀어 내고있다. 우리들은 미국이라는 선진사회에서 문화의 혜택을받고 살아가면서 인간성에 대한 해답을 잃고 유리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된다.[240]

한인 기독교인들은 올바로 살고자하는 열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생활은 아직미숙하다. 특히 이민 여성들은 무엇인가 하려는욕구들이 잠재 되어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많은 한인들이 다른 민족이나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여가를 즐기는생활보다 자신의 쓸모없는 가차관과 문화적 관습에얽매여 살고 있는 형편이다. [241]

돌봄목회는 한인여성들이 돌봄목회를 통하여 보람된 삶을 발견 하는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제 1 차적으로 효과적인‘의식개발’교육을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Paulo

---

[238] David G. Moor. 신현복 역. *영성지도 심리치료 목회상담*. (서울: 아침 영성지도 연구원.2011).237

[239]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전략*. (서울: 쿰란 출파사.1996).285

[240] Carrie Doehring. 오오현. 정호영 역. *목회적 돌봄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12).121

[241] Mark Mcmill. 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6).89

Freire 의 '의식화' 작업을 위한 교육 이론을 적용 실천하려 한다. 돌봄목회 제 3 부 '적용과 실천' 부분은 브라질 성인교육 이론가 Paulo Freire 의'의식화교육이론'을 Thomas Groom 이 재정립한 "몫을 나누는 실천" 교육 이론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교과 과정을창의적으로작성하고 연구반(Site Team)을 대상으로 '기독교 의식화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차로 한인여성 들을위한 '기능개발'(Talent Improement)을 계획 실천하고 이프로그램에 따르는 인적 자원과 공간 그리고 방법들이 계획 추진된다.

기능개발이란 차별과 고통의삶을 살아온 여성들을 대상으로하여서 개인 적성에 시행되는 직업 교육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될것 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식화 교육에서 확신을 얻고 선교의 역군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교육계획은 Fowler 가치의 구조, 사랑과 행동 패턴 , 두려움의 형태를 분석 해결한 후 희망과 우정의방향을 따라서 모든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것이다. 차별과억압, 빈곤과 절망의삶을 극복하여 나가는모든사람들의삶의 자세를변화시키는일치와 결속이 되어 목회적 교육 방법으로 실험되어 나갈 것이다. [242]

인간의성장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은언제나 참여를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부는 서로가 동반자 관계라는 상호 협조적 태도를 갖는 평등 의식이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에서 의식의변화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방법이있다. Paulo Freire 의 성인 교육방법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는 교육이다. 인간이 처하여있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성찰과 비전으로 자기의식을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삶의 변형을 형성하여 나가는 방법이다.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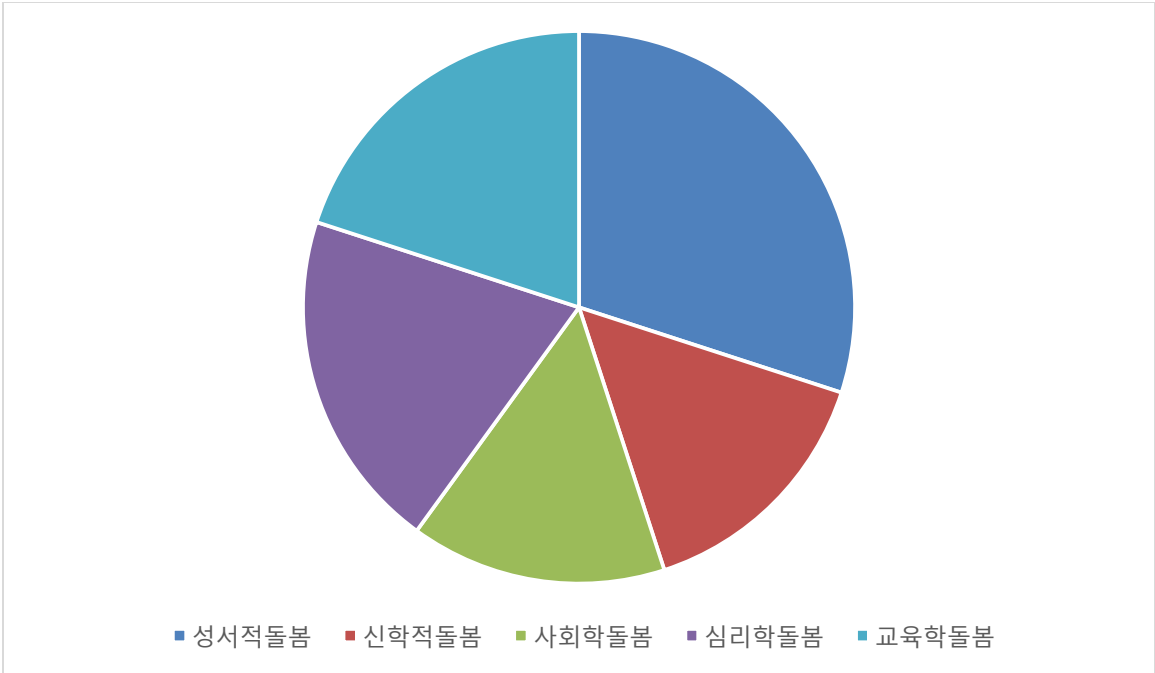
---

[242] Tomas Moor. 김영운 역. *영혼의 돌봄*. (서울: 아침영성 지도 연구원. 2007).173

한국 교회는 기독교 선교 1 세기 동안 교회 안의 활동에 익숙해져 왔다.그러나 기독교 가치관과 의식활동에서 실천과교육 훈련에는 매우취약점이많다. 나름대로 영성은키웠으나 새로운가치관과 의식구조를위한 실천교육은 외면하여 왔다. 한국교회는 교회윤리,세속윤리를 철저히분리하는 '이중 윤리'를 심어온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그룸의 "몫을 나누는 실천" 교육 이론을 도입해 의식 구조 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돌봄 연구 조사표

[243]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nesed*. (Continuum.1993)

성서적돌봄
신학적돌봄
사회학돌봄
심리학돌봄
교육학돌봄

CHAPTER 9. 돌봄 목회와 이론

돌봄 목회 사역이란 무엇인가? 돌봄 목회사역은 하나님의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장기, 단기적으로 피상담자를 돕는 상담사역이다. 이 사역은 상담을 공부한 후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수 있는 상담의 적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돌봄 목회 사역은 목회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돌봄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이르게 하는 열매이다.[244]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돌봄 사역이 목회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찍이 그들은 목회상담의한계를 느꼈기때문이다. 사실 상담이인간의영억이라면 치유는하나님의 절대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돌봄 사역은 목회 상담(Pastoral Counseling)을 교회안에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실천적 적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45]

1.돌봄 사역의 역사

돌봄 사역의 창시자는 미국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상담학 박사인 케넨스 헉크(Kenneth Haugk)이다. 그는 1975 년에 교회에 상처가 깊은사람의 돌봄 필요성을 보면서 9 명 평신도를 돌봄자로 양육하면서 돌봄사역을 정리하였다.

---

[244] 이기춘. *한국적 목회 신학의 연구*. (서울: 감리교 신학 대학원.1993).158

[245] Howard W. stone. 최민수 역. *돌봄이 있는 교회*. (서울: 솔로몬. 2009).283

처음 돌봄사역을 시작 할 때 스데반 집사의 이름을 붙여서 스데반 사역(Stephen Ministry)이라고 하였다. [246] 사도행전 6 장에 보면 스데반은 집사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의 구제로 인하여 히브리파,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평세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스데반집사를 포함한 일곱집사들이 교회를 돌볼 때 교회의 문제는 새로운 변화(Parading Shift)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 할수가 있게 되었다.

Kenneth Haugk 박사 이 모습을 보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조화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돌봄이라고 보았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본래부터 순교자가 아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요 섬기는 돌봄자이다. 그래서 케넨스헉크(Kenneth Haugk)박사는 돌봄자인 스데반 집사의 이름 따라 스데반 돌봄사역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꾸준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돌봄 사역이란 무엇인가? "신앙과 기도만으로 성도를 돌보던 것을철저히개인화 하여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또는 돌봄의 사역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위기에 처한 피돌봄자를 돕는프로그램이다."라고 정의 할수가 있다.[247]

2.돌봄의 이론적 고찰

목회적 돌봄은 예수님의 사역이 후로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 되어왔다. 예수를사랑하는 모든사람들은 믿음안에서 서로를 강화하기위하여 서로를 사랑해야 했으며,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한 세상 사람들을 돌보아야

[246] Kenneth Haugk. *Crstian care Giving a way of life*.(House in Minneapolis: Augsburg Pub. 1984)

[247] Chals V. Gukin. 유영권 역. *목회적 돌봄의 개론*. (서울: 은성. 2014).284

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목회심방, 교리, 종교문학, 기도, 성경연구, 설교, 성례전 등 목회적 돌봄을 위한 많은 자원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목회적 돌봄은 일대일로 만나는 심리학적 성향의 상담을 강조하면서, 목사와 성도간의 개인적 관계의 견지에서 설명되어졌다. [248] 교회 목회적돌봄은 심리학과 심리요법적 통찰력의현명한 사용으로부터 많은것을 얻을 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루이저(Paul W. Pruyser) 박사가 말한 대로 교회가오랜 세기를 걸쳐서 축적하고 검증해온 목회적 자원들 즉 그들의 전문적인 유산을 많은 목사들이 무시하고 소홀히하는 경향이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목회적돌봄은 현대심리학의 영향을반영하는 일대일 개인상담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가 간직해온 풍부한 목회적 자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시대에는 돌봄이라는 용어를영어로는 Care 이고,우리말로는 수발, 보호, 돌봄 등 번역되고 있다. 말하자면 케어라는 것은 곤란한 사람,무언가 번거롭고 성가신문제를안고있는 사람을 돌보는또는 돕는것이다. 즉 걱정, 불안, 슬픔,괴로움을 가진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을가지고 주의 깊게 심신에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249]

3. 돌봄의 필요성

21 세기 목회 패러다임은 돌봄목회로 가야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대에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은 그때그때마다 자기변신을이루며

[248] 박노권 .*세계의 신학.* (서울: 한국 기독 연구소. 1997). 86

[249] Klaus Binckler. 신명숙 역. *목회상담 영혼 돌봄*. (서울: 학지사. 2007).208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래서 1950 년대는 민족의상처속에서 위로목회를 해야했고, 1960 년 대에는 가난 극복이 목회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삼박자 설교를 했다.[250] 1970 년 대에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목회 패러다임과 그리고 성령의 목회가 동시에 공존한 시대였다. 그리고 1980 년 대에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목회였고 1990 년 대에는 열린 목회와 찬양이 강조된 목회였다. 그러나 21 세기에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치유와 돌봄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이혼과 자살, 우울증, 외로운 노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빠르게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현장이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돌봄의 장이 되어야 한다. [251]

오늘도 목회의 현장에 들려오는 성도들의 소리는 신음과 고통의 소리이다. 그때 목회자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같은 사랑의 돌봄을 제공 해야한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복음전파의 돌봄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불치의병으로 시한부 생을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잡긴 사람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직장을 잃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무력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집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상처로 좌절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교회에 새롭게 나온사람들,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타 고통스런 문제로 돌봄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

[250] Magaret Confeld. 최창국. 정은심 역. *공동체 돌봄과 상담*.(서울: 한울 아카데미.2013).106

[251] 이용남. *죽음의 의미*. (서울: 전망사. 1980).248

목회적인 돌봄은 상담자나 치유 요법사나, 문제 해결사가 아니며,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목회적인 돌봄자는 그 피돌봄자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치유 및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돌보아 주어야 한다. [252]

4. 돌봄 목회의 실천

오래전 부터 계획해 오던 날이 되었다. 돌봄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겠다고 머리로는 많은 생각과 방향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한다고 생각하니 해야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학교를 다니면서 125 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하게 될때 이곳에 꼭와야 하겠다는생각을했다. 그래서 많은 기도로 계획을세우고 준비를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많은깨달음과, 기쁨과, 보람을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가는 날에 큰 사고가 생겼다. 당일 날에 필요한 도넛츠를 그 전날 오더를 했어야 했는게 그 전날 다른 일이 있어서 준비를 못했던 것이다. 전도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셔서 문제는 없었는데 노숙인들에게 줄려고 빵을 미리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나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못주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였다. 그 순간에 내 머리에 생각 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빵을 순전하게 구입을 못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빵집에 가서 내가 얼마를 사려고하는데 너희가 물량이되냐고 물었더니 순전하게 할수 있고 가격도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생각할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

[252] Kennenth Haugh. *Christian Caregiving I edition*. (House in Minneapolis. 1985).236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얼굴도 못 씻고 빵때문에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지만 하나님게서는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사이트 팀들을 픽업해서 125 번가를 가는데 아침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년 전에 학교 다니면서 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때 생각이 났었다. 한 시간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이 되어서 준비해 간 것을 차에서 내리고 만하탄은 차 파킹 시키기가 너무 힘든 곳이다. 그래소 여호와이래로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준비해간 것들을차에서 내리고 준비를하면서 내가 만든 밴허를 철조망에다 걸고 있는데 한 흑인 여자가 다가와서 불었다. 너희들 무엇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물었다. 우리는 친절하게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했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도와 주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흑인 남자가 와서는 우리가 펼쳐논 이곳은 자기 자리니 비켜 달라는 것이였다. 정말 조금은 이상했다. 이것은 엄연히 뉴욕 시티의 땅이기에 약간은 의아하다. 그러나 웃으면서 비켜주겠다고 말을 했더니 상대방도 웃으면서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장소를 피해주고 우리가 옆으로 옮겨주었다. 우리는 두 흑인 여자들과 손을 잡고 같이기도하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시작하게됐다. 먼저 그분들을 도넛과 물을 주면서 예수님도 증거하면서 했다.이것들은 내가 주는것이아니라 우리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보잘 것 없는 것이였지만 그들 얼굴에서 행복한 얼굴을 볼수 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항상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화답할 때에 이분들의 신앙을 볼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울한 광경도 보게 되었다. 이 좋은 나라에 와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볼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번이 처음이라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못 해준 것이 조금은 아쉬웠다.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것, 음료수를 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 이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 가셨다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대답도 하고 정말 오늘 너무 보람있는 일을 했다. 우리 사이트 팀이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고 이런일들을 주님이원하시는 것이구나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들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것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런것이 아닐까 하며 앞으로 논문을 다 쓰고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섬김과 돌봄은 계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풍부하게 살고있어도 어느한구석에는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이트팀들과 과제를 하면서 절실히느끼는,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것을 볼수 있었다. 나에게 아무것 아니고 보잘 것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느끼고 주님 사랑을 볼 수 있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수 있는 아주 보람있는 봉사를 했다고 자부심도 갈게 되었다.

우리들이 선교한다고 외국으로가 먼곳으로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돌보아야할 사람들이 정녕 내 이웃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이번에갔던 사이트 팀원 중에 할렘을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대원이있었는데 오늘 나와 같이 봉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고 보람이 있었다고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과 이미지를 아주 다르게 정립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걸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보는 눈을 다시 고쳐야 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일은 우리가 상상도못하는 놀라운 일을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다.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것이다. 우리눈으로 볼때에는 인생을 막 사는

사람같이보였지만 처음시작할때 부터 마치는시간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얼마나 잘도와 주셨는지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사람은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천사였다. 우리에게 누구라도 말잘못하고 그곳에서 나쁘게하려하면 그분이 앞장서 막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시고 낮선 곳에서 전혀 낮설지 않게 일을 잘 볼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는 돌봄과섬김을 마치고 만하탄에서 퀸즈로 돌아와서 맛있는 점심을 우리 사이트 팀들에게 대접을 하고 오늘 있었던 돌봄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논과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서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엇습니다. 우리 팀들이 서로에게 격려 해주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돌보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것을 마쳤습니다.

5.칼빈의 목회적인 돌봄

목회의 돌봄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볼수가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양이라고 부른다. 목자와양의관계는 친숙한관계이며 돌봄자와 피돌봄자와 관계이다.[253] 양에게는 목자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의 조건이다. 양은 3 가지가 없다. 첫째는 방어능력이 없다. 둘째는 싸울 무기가 없다. 셋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살수가 없다. 양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해야 한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의 백성들을 해방하게하신 것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잘 보살폈지 때문이라고 한다.

[253] Mark Mcmin.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 교회.2006).247

장인의 양떼를 잘 보살피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면 내 양인 이스라엘 배성을 잘 살피겠다.”고 생각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으 목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 목자는 예수님이시다(눅 15:4-7).[254]

예수님은 자신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요 10:11). 즉 선한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 칼로스(Poimhvn Kalov)이다. 이 말은 “목자, 선한 자”라는 뜻이다. 선한 목자가 있을 때 양이 안전한 것처럼 목회적인 돌봄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 목회적인 돌봄의 관계 속에서 칼빈은 기독교 제 4 권에서 교회에 관한 내용을 선택 받은 자 무리, 그리스도의 몸으로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라는 관점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봄을 이렇게 정의한다. [255]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유아와 어린이로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써 양육시키고, 이들이 장성하여 신앙과 목표에 도달 할 때까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으로 인도하신다”.

칼빈(John Calvin)은 교회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역활을 하기 때문에 목회적인 돌봄속에 목사는성도들을 잘돌보아야 한다고한다. 칼반은 이부분에서 “어머니가 그의태속에서 우리를잉태하시고 우리를낳으시며 젖을먹여 양육하시고 우리가 육신을벗고 천사가될때까지 돌보고 인도하지않는다면 우리는결코 생명에 들어 갈수없기 때문이다”.[256] 그래성도들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위로와 돌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있다.

---

[254] 박성우. *영혼돌봄의 정치*. (서울: 인간 사랑. 2014).153

[255] John Calvin. Inst. IV. 1.4

[256] 김혜경. *노인 돌봄*. (서울: 양서원. 2011).178

칼빈은 결국 교회안에서 교제를 이루려면 교회안에 다양한 목회 사역들, 설교나 교회행정,그리고 목회상담 등을 통한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57]

그러면 John Calvin 이 Geneva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추구하며 실천하고자 했던 목회적돌봄은무엇인다를살펴보자.그는먼저 그의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목회의 근원으로생각했다. Calvin 은하나님의선택에 의해이루어진 하나님의백성들이모인 곳이며 교회는 그들을 지도하고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백성을 양육하도록 위임받았고 하나님과인간, 인간과인간들이 만나며 교제를통해 영적인 생명을자라게 하는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목회는진정한 목회가아닌것이다. Calvin 에게 목회의출발이자 근원은교회인 것이다. Kalvin 의 목회의 대상은 인간이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인해 하나님의형상을 상실당하고 죄와부패의 상태에놓이게 된것이다. 인간이겪는 모든 고통과영혼이 상처는 죄로인해 야기된것이고 목회적 돌봄이라는차원에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고 신앙생활을통해 그들의 영혼을 다루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258]

(1) 칼빈의 목회적 돌봄 설교

칼빈(John Calvin)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목회자 상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서 바른

[257] 김경수. *성경적 돌봄 이론과 실제*. (서울: 목양 도서 출판. 2012). 245

[258] 김형준.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서울: 크리스천 치유목회 연구원. 2000).218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례를 집례 할 때 성례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259]

칼빈(John Calvin)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 속에 빛나므로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 할 때마다 마치 그가 우리를 대면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감동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이 자기의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이 자기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목회자의 직임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직임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260]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의 원리중의 하나인 '목회적 돌봄'이 그의 설교 의식 속에서도 배어있었다. 칼빈에 의하면 설교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잇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유한 음성이고, 둘째는 이리와 도둑을 쫓는 노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청중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고 지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자기도 그들 중의 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칼빈은 목자인 동시에 설교자인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무식하게 된다, 만족할 만한 복음적인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만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덕을 주기위하여진지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261]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

[259] 박태영. *한국,일본,스웨덴의 돌봄 정책.* (서울: 양서원. 2015).136

[260] Donald Capps. 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래서원. 2001). 187

[261] 김수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0).236

어려움이 많아도 어려움이 많아도 진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무엇이 선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진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칼빈의 목회적 돌봄 상담

칼빈의 목회자를 영혼이 인도자로 받았으며, 그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상담을 해주는 카운슬러로 보았다. 컬빈이 목회하는 제네바시에서 영혼을 상담하는 대상자들은 와이나 제휴로부터 평민에 이르기 까지 실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었다.[262] 그래서 칼빈은 이런 내담자들에게 용기와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와 치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지탱할수 잇도록 상담해 주었던 것이다. 칼빈은 목회자에게 "왕들과 왕후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상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민중들이나 낮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자에게 까지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칼빈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 우리는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의 직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63]

우리가 우리의 피를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초대한 직접적이고 쉼 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 피를 잃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태만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칼빈은 그당시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로마 카톨릭의 경직된 교회 조직 내에서 관심의 영향권 밖의 사람들이었던 일반 회중들에 대한 목양적

---

[262] 박성우. *영혼 돌봄 정치*. (서울: 인간사랑. 2014).138

[263] Klaus Binckler. 신명숙 역. *목회 상담 영혼 돌봄*. (서울: 학지사. 2007). 85-88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목회 상담을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주었던 것이다.[264] 그러면서 칼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로 생각했다. 그는 아무리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교인들을 돌보는 목회의 사역에 대해 자신의 소명과 맹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했다. 칼빈은 스스로 위로를 위해 상담을 원하는 자들을 개별적격려하면서 에수안에서 소망적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상담을 아였던 것이다. 사실 어느 시대든지 격려와 위로의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할수가 있다.[265]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돌봄을 준다는 것은 아마 4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내담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도움을 구한다면 무엇을 소망할 수 있가?

즉 이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는 치유공동체로서 돌봄을 해야한다. 칼빈은 매 번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목사와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러한 대화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Strasbourg 에서도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무거운 짐진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Kalvin 은 제네바 교회의

[264] 최민수. *목회 상담과 돌봄*. (서울: 그리심. 2008).237

[265] 김경수. *돌봄과 상담*. (서울: 목양. 2012).185

목회적 상황 안에서도 특별히 병자와 신체적으로 고난 당한 사람뿐만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를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66]

칼빈이 상담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 죄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둔 것은 그가 자긴의 내면 상태로부터 눈을 돌리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정신적 문제나 과거의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Kalvin 은 상담자는 이 점에 목족을 두고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칼빈에 있어서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하여 결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상담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67]

상담하는 목사는강단에선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용해야하며 또한 이일을 기도와소망, 즉 하나님의말씀은 죄인들로하여금 그의 눈을들어 하나님을바라보게 할수있을것이라는 소망을가지게되는것이다. 여기에서 문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상담하는 목사는피상담자의 사고의영역에억지로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목사에게 내재된 혹은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피상담자의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피상담자는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한다. 목사는 항상자신이 단지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목사는 피상담자가 바로듣고 바로보아 그로 하여금 믿음의확신이란 하나님께서주신것이라는 사실을이해하도록 이끌어줘야한다. 칼빈은 이러한 목회상담에 관한 그의 생각은 오늘날의 목회상담에 필요한 생각과 일치한다.Roller May 는 상담은 인격

[266] 윤경학. *목회 상담 개론*. (서울: 혜림.1995).314

[267] Margaret Comfeld. 최창국. 정은심 역. *공동체 돌봄과 상담*. (서울: 기독교 문서 문서선교회.2013).179

변화에 이르게하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이해라고했고 Paul Johson 은 좀더확장한 이해를가지고 상담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책임과 정서적이해의 방법으 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에서 생기는 반응적인 상호관계라 하였다.[268]

(3) 칼빈의 목회적 돌봄의 적용

상담의 정의를 힐트너(Seward Hiltner)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기성 형식의 충고든가 권면, 혹은 명령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피동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담자 자신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자기 문데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통찰력을 가지게 도와주는 과정이 상담”이라고 하였다.칼빈의 목회 상담의 방법은 상담이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태도를 갖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는 과정으로서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바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칼빈은 영혼을 치료할 때에 시도한 몇 가지 보편적인 원리들이 있다.[269]

첫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목회적 권면을 사용하였다.

둘째, 자신의 주변 상황 속에 환경과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68] R. Stoper. 박거택 역. *남편, 아버지, 친구, 목회자로서의* 인간 *칼빈*. (서울: 엠마오 출판.1983).128

[269] John Caldidadio.임서호역.*간략히 살펴본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하나 출판사. 1998). 174

목사사역을 칼빈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친밀하게 대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270]

남편에게 배반당한 그라몽(Grammant) 부인에게도 이런 목회서신을 쓰고 있다. “나는 그대의 남편이 그대에게 계속 불성실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대가 참고 있는 고뇌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대 남편의 마음을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대 편에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선한 길로 끌어들일것을 잊지마십시오. 나는 그대가여러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또 다시 해야만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참된 처방입니다”.[271]

John Calvin 목회적 돌봄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가운데 어떻게하면 적용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고민으로 목회에 임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관심의 대상으로 성도를향한 목회적인 연민과함께 그리스도의충분한 사랑으로 끈임없이 목회 현장속에서 이루려고 한것이다, 또한 그는 이런자신의 목회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충분한 애정으로 대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272]

오늘날에 와서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bel)은 상담자로서 목사는 “위대한 의사”로서 내적갈등에 사로잡힌자를자유케하고 현대적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만난 자의 곁에서 치로하는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상담자로서 인간을 중심한

[270] Neal Pembroke. 장보철 역. *예배와 목회 돌봄*.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242

[271]Nancy Paul Brare.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서울: 또하나의 문화. 2007).364

[272] 반피득. *목회 상담 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258

목사의직무 수행하는 것이라고말한다.이러한 목회적인 돌봄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잘 감당했던 것이다.[273]

결론적으로 칼빈은 목회적인 서신을 통해서도 외롭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목회적 연민의 감정을 나타내며 고통의 짐을 함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목회 속에 용해되어 나타났던것이다. 물론 제네바라는 조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제한성과 그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폐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조직적인 목회사역은 칼빈의 그런 제약들을 극복하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맡기신 양무리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돌봄의 목회를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칼빈의 신학은 상당한 영향을 미텨 참된 개혁교회의 신학적 지표로 삼고있다. 그러면서 칼빈이 제네바 에서 실제로 행했던 칼반의 목회에 사역 속에담긴 그의 목회적돌봄에 관한 그 기본적인 목회원리에 대해서는 결코인식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목회적인 돌봄속에서 목회적인 돌봄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

[273] Daivid G. Benner. 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이해.* (서울: 기독 선교 문서 선교회.2010).128

CHAPTER 10. 예언자적 설교와 나눔 공동체

예언자적 목회에 대한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어떻게 수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한지. 예배 공동체 안의 목회자에게 위임된 '예언자적 설교'라는 실제적 적용이다. 예언자들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고,그 사역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무척 풍부한 편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교회적 현실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고 명료하지도 않다. 설교자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인들이 처한 유혹 거리와 타협거리 앞에 진실을 내어 놓기란 쉽지 않다.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기관들 역시 진실을 말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다. 여러 곳에 널려 있는 문제 투성이 현실을 감안하면 '예언자적 설교' 를 명백히 정의하기도 어렵다.

예언자적 설교란 여호와, 곧 세계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예언자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말하고 생각하고 묘사하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예언자적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당연시되는 세계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놓는 일이다. 한 편으로는 예언자를 장래에 대해 말하는 '예보자', 특히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에 대해 '예측하는 사람' 으로 봤던 보수적인 생각을 배격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예언자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일한 '사회적 행동가'로 채택한 경우가 무척 드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 예언자적 설교는 다윗 왕조가 휘두르는 무조건적 권리와 예루살렘 성전이 확신하는 영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발현했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에, 예언자적 설교는 이웃을 희생시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상품 강탈을 보장하는 미국 예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발현한다.

이스라엘의 신조 게르하르트 폰 라트가 창안한 용어에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 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을 주셨나이다. 포 라트는 이이야기를 비평적 판단으로 의심하지만, 우리는 그의 견해를 따를 필요 없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을 요약한 믿을 만한 신조임을 확신 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도드가 주장하듯, 폰라트의 '신조'에 해당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이다.

이스라엘이 풍부한 약속의 땅에서 오랫 동안 살수 있는 조건은 '토라를 지키는 것' 이었다. 이스라엘은 토라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여호와의 선물들과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여호와의 권리 주장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공적인 삶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는 그 어떤 터협의 여지 없이 준행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의무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장래는 각 세대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야훼의 능력과 결의에 달려 있다. 절망적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을 되풀이해서 창조하는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찬가로 귀결되는 경외심을 불러 일으킨다. 물론 찬양 말고 웃음이 '부활절의 웃음' 곧 죽음과 절망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롱하는 의기 양양한 웃음이 되었다. 이러한 조상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야훼의 능력을 증언한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운명은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의 특징은 하나님이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다. 모세는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지만 그 땅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보지 못한다. 모든 면에서 결정적 역활을 하는 주체는 야훼다. 야훼의 결정적 행위 없이는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일조차 불가능해진다.

우리의 확신과 결의는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좀더 깊은 차원에서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성품과 일치하는 존재가 되는 기쁨,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는 기쁨을 위해서 말이다. 지배적 내러티브는 행복을 낳을 수 없다. 우리가 주먹하는 것은 지배적 내러티브의 열매에 대한 척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불행의 지표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에 이를 때에야 우리는 안전하다.

설교자는 온갖 회의와 염려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설교자에겐 순종의 자세로 불신을 기꺼이 끊어 버릴 능력도 있다. 예언자적 설교자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지만 거기에 이데올로기적 구성물 이상의 것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폭력적 도덕적 반감에는 어리둥절해 하지만 아무리 낙과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사회 형성 가정에 충돌과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한다.

예언자적 설교자는 오늘날의 시트콤과 프로 스포츠와 소위 정치적 담론에 담 긴 얄팍한 기교를 잘 인식하고, 이와는 차원이 다른 에술성이야 말로 단단하고 강렬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예언자적 설교자는 역사 발전과정 중에 오래 유지된 기쁨이 있을지라도 결코 안도감, 편안함을 제공할 수 없다. 예언자적 설교자는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고동치는 위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명백하게 받을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고 부인하는 몸짓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감춰진 긴장을 그냥 안고 있는 일도 고된 작업이라 우리를 탈진시킨다. 피터 버거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작업을 '세계를 전환하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다시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토라 해석이 없다면, 당대에 대한 예언자들의 현실 해석과 오늘날에 대한 우리의 현실 해석은 의미 없는 변덕스러운 수사적 시도처럼 들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언자였음이 분명한 마르틴 루터 킹이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루터 킹이 구사하는 참신한 전복적 언어는 고대의 상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우리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루터 킹은 왕족의 단호한 묵살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야웨의 두터운 목소리와 함께 층층이 쌓인 전승을 극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예언자들이 특유의 시적인 운율로 말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모든 시가 다 예언의 성격을 지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예언자 특유의 메시지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과 함께한다. 예언자적 설교는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서로 경쟁하는 상상들의 다툼 가운데 있다.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권력체제를 벗어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옛 예언자들의 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살짝 수정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언자들은 왕이자 재판관이요, 목자이자 전사이신 야웨의 권력 관계를 상상한다. 예언자들은 관계를 집중하여 강조하고, 전능함, 편재함, 전지함과 같은 편리한 범주들은 피한다. 예언자들은 온갖 상품을 추구하고 끝없는 소비를 지향하는 '양호한 생활'의행습을 배격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진정한 사회 문제가 재물이나 결핍이나 통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실함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허용된다' 상상하며 자기탐닉에 빠져 있지만, 이따금 고대 토라의 가르침과 경고는 이 땅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어제와 한계, 도무지 파기 될 수 없는 책임을 직면하게 되었다. 예언자들이 신명기의 보상과 그 언약적 주장에 호소하는 일은 원색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 이스라엘의 현재 삶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언약의 주님을 증언하므로 여전히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로널드 클레멘츠는 예언자적 전승의 정경적 형태를 평가하면서 심판과 희망 모두 예언자들의 진실 말하기와 희망 말하기에 속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칼바르트는 성경의 생소함과 새로움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개로운 세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을 발견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미덕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예언자적 선언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예언자적 설교는 위험한 일이다. 전복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적 상상이 가정하는 세계와의 인식론적 단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인시론적 단절은 우리가 미처 성찰하지 못했던 가정을 인식하게 해준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인식론적 단절이다. 예언자적 설교는 도덕적 충고나 신학적 정확성이나 재미와 같은 사소한 것들을 피하는 한편 그보다 어려운 과업을 안고 있다. 모든 신중에 신이신 하나님은 신음과 울부짖음에 이끌려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시지 않을 수 없다. 그 울부짖음이야 말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실존적'진실 말하기' 다. 설교 현장은 지배적 상상에 빚진 것이 전혀 없는 대안적 상상을 위한 장소다. 대안적 상상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쟁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전정한 의미에서 상호 작용적이다. 설교자와 회중 모두 지배적 속에 놓여서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양자 간에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세상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취했다. 그러면서도 그 세상을 아주 다르게 보았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계를 봤기 때문이다. 예언자적 설교란 야훼, 곧 하늘과 땅의 창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라고 부르는 그 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실제 등장 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사역을 복제하도록 어떻게 부름 받든지 간에, 그들의 목회에서 상실이 곧 심판으로 해석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세상은 신실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초자연 주의자의 이론으로 한정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논외로 둘 수도 없는 분이다. 우리들은 선택과 미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한스 슈미트는 그의 연구서에서 '세계 질서' 는 곧 '의로움' 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로움, 곧 생명을 주는 에너지와 목적이 침해를 받으면 세계 질서는 유린당하게 된다. 예언자적 수사는 하나님의 작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만,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그 연관성을 추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언자들은 신적 작용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 상실과 미래, 그리고 양자의 연관성에 관한 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론하는 것은 메모에 익숙한 우리 세계에 당혹감을 안겨준다. 누군가가 '어리석은' 짓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그 결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지혜로운 관찰의 전제는 행실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이 창조주가 제정한 질서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질서는 과학실험의 예측과 반복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연관성들은 표면적 관찰을 바탕으로 맺어지되, 그 표면 아래 있는 연관 관계에 뿌리 박고 있는 만큼 공격을 당할 수 없다.

예언서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전략들을 생각해보면 두가지 사항이 분명해진다.

첫째, 현란한 수사적 창의력들을 통해 시인들이 상실을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시킬 목적으로 장치와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통해 이 세상이 자율적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과 목적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언자들이 구체적인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를 보고 또 놀라게 된다.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예언자적' 설교와 달리, 특정한 이슈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상실이 하나님의심판으로 바뀌는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많다.

첫째, 심판이 묘사되는 미묘한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뱉는 '지옥불과 저주' 담론을 버리도록 요구한다.

둘째, 예언자들이 구체적 이슈를 다루지 않은 것은 종종 구체적 이슈를 옹호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자유주의적인 예언자적 설교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예언자들은 이웃의 정의와 성결 훈련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들의 시적 상상력이 구체적 이슈를 겨냥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언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기억속의 상상에 이끌림을 받은

자들은 그 지배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 지배 행위는 감춰져 있고 간접적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 지배자를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어려운 주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잇는 죄인들'이 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로 풍자되기 일쑤기 때문에, 잠시 멈춰 예언자의 담론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클라우스 코흐는 이 주제에 대히 결정적인 글을 썼다. 코흐가 자기 입장을 다소 과장한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분석은 우리 성찰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코흐가 지혜서, 예언서, 시편을 읽고 내린 판단에 따르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위반에 대해 직접 처벌하시는 '인과응보'가 별로 없다. 코흐는 씨앗이 결국 수확을 얻는다는 법칙에서 도움을 받는다. '우리 모두 행동이 곧 씨앗임을 알고 있다. 심은것에 상응하는 수확을 얻는 법이다. 행동이 불경건하면 그 결과는 허무다. 이를 일상 회화체로 표현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또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코흐의 연구를 기반 삼아 패트릭 밀러는 예언서의 심판 텍스트에대한 풍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연구서는 코흐의 '내장관 결과' 를 충분히 고려하되, 더 나아가 예언자의 담론에는 범죄와 심판 간의 정확한 상응 관게가 거듭 등장하여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와 동일한 심판을 그 결과로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징벌은 자의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범한 죄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밀러는 이러한 추론이 국제조약의 '동등성 방식'과 인과 응보에 해당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밀러의 '상응관계'로 보든 코흐의 '결과'로 보든, 하나님의 능동적 개입은 상당히 부차적인 것이다. 사건이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로서 일관된 질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존 바톤은 예언서 연구에서 코흐의 분석을 뛰어넘어 ‘자연법’과 같은 것이 예언서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민족에게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 역풍을 맞는 법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감독하신다. 범죄와 결과의 연관 관계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특정한 도덕법들에 묶여 있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한 신이신 여호와께 서는 이스라엘이 행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부지런히 행사하시며,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유발하여 죄 많은 나라들을 파멸시킴으로서 징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운명은 여호와의 통제권 안에 있고, 이 통제권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다. 테렌스 프레트하임은 창조신학 연구에서 똑같은 이슈에 대해 숙고한다. 도덕질서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문제로, 하나님의 우주 설계의 하부구조에 내장되어 있다. 죄악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다. 그래서 나쁜 결과는 본질적으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강력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에 이어 창조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신학적 움직임이다. 프레트 하임은 이 연관성의 결과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능동적으로, 직접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강조점을 두는 바는 하나님을 위해 공적 과정에서 징벌을 수행하는 여사적 행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땅을 위해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손가락 하나 툭 튕겨서 성취하시진 않는다. 예언자들은 마냥 순진하지 않고 맹목적인 초 자연주의자도 아니다. 그들의 사명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기계적으로 출현하는 신을 증언하기보다 역사적 드라마의 플롯을

다양하게 귀결시키는 살아 있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연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 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척 복잡하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하되 도덕질서 속에 있는 현실 세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매우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한다.

케네스 도카는 "권리를 박탈 당한 슬픔"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것은 소유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유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슬픔을 뜻한다. 권리를 박탈 당한 슬픔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침내는 폭력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예언자적 설교는 인정되는 슬픔과 예상되는 슬픔을 허용하고, 우리가 느끼고 포용하는 슬픔에 권리를 부여한다. 슬픔을 소유하게 되면 그 슬픔이 에너지와 결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게 된다. 신학적 꾸밈이나 해석 없이 솔직하게 상실을 표현한 것은 예언자적 신앙의 특징적 요소다. 이스라엘은 슬픔에 머물면서 그 슬픔을 담대하게 표현한다. 예언자적 설교에서도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예언자적 설교되는 환경은, 모두 절감 하면서도 정작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예언자적 설교를 할 때도 슬픔이 끝나지 않아 그 가운데 머물러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모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엄청난 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주제는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궂이 자료를 제시하진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트릭 밀러가 보여 주었듯이 심판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대칭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공정한 재판관의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야웨의 분너에 해당한다. 이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통제 불능의 위험한 분에 해당한다. 야웨께서 진노를 버리고 최상의 자아를 보여주는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하신다. 하나님을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밖에도 눈물을 흘리실 일이 있었다. 예언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슬픈 종말을 맞이할 예루살렘을 두고 울기도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영원히 눈물을 흘려 오셨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적 과정에서 닥치는 잔인한 심판을 두고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데 그 눈물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것이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제 2 부에서 "현실적인"것과 "가능한" 것의 문제에 직면한다. 일반적인 합리성에 따르면 보통은 가능한 것과 함께 시작하고, 가능한 것에 기초해 현실적인 것을 판단한다, 다라서 만일 어떤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적'일 수 없다. 그런데 바르트는 위대한 인식론적 용기는 그 과정을 뒤집는다. 바르트는 '현실적인것'은 맨 먼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정경 연구 대표적인 연구서는 로널드 클레멘츠의 것이다는 예언 문학에서 희망으로의 움직임이 후대에 추가되거나 나중에 고안된 것이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새로운 기능성은 항상 예언자적 설교자의 지평 위에 있다. 그러나 언제 무엇을 말할지 알려면 분별력과 신학적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에게는 서둘러 좋은 소식으로 달려가고픈 유혹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서둘러 그 지점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야웨께서는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언자는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계획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희망은 시적이고 열려 있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놓을 만큼 구체적이다. 어느 에언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겔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다. 특정한 형태의 희망은 어느 정도 특정한 경험, 신학적 관심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존 레벤슨은 '부활'이 어떤면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이루신 궁극적 승리'의 의미를 지닌 '회복'인가 하는 점을 잘 추적했다. 레벤슨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걸맞게 성전을 '스올과 전반대되는 것'으로 본다. 성전에서 그들은 부족함 대신에 포만함을, 버림받음 대신에 배려를, 오염 대신에 정결함을, 희생당함 대신에 공의를 , 위협 대신에 안전을,취약함 대신에 불가침을,변동 대신에 불변함을, 일시성 대신에 영원함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용서는 새로운 순종을 허용하고 또 그럴 능력을 주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다가올 세계 또는 랍비 전승에 속한 에덴동산 또는 기독교의 천국과 같이 들린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성전이야 말로 이런 개념들의 출처, 곧 그 이미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적 소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장차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대 있다. 이 불가능한 일이 바로 복음의 실체다.시인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청중을 위해 대안적 세계를 추론해 냈다. 그 대안적 세계는 '너무 어렵지'않다. 그것은 오히려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속박의 대안이 하나님의 결의로 주어진 상상 속에 있고, 상상력을 도원한 인간의 언설을 통해 주어진 샹샹 속에 있는 셈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 와 '모든 악을 깨뜨릴 의'와 관련하여 에언자의 후예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였음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그들로 예언자가 되게 기름을 부으셔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옛 세대가 늘 예언자적 성격을 지녔다는 불필요한 가정이 깔려 있다.

교회에는 예언에 대한 암묵적 열망이 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남녀 성도를 축복하며 안수했던 전통 안에서 열정을 품고 예언에 관한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 교회가 희망을 품고 그런 찬송을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언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저항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목회직이나 제사장직만 바라는 게 우리 현실이다. 더 많은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들려주는' 사도적 신앙을 원하는 게 우리 실상이다. 예언을 열망하는 찬송을 불러도 실제로는 예언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예언자적 사역의 사명은 계속 이어진다. 예언자의 역활을 할 사람들은 이처럼 모호한 교회안에 몸담고 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진지하게 여기는 동시에 움츠리는 자세를 취할 때. 그 모호함은 가슴에 절실하게 와 닿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찬송은 멈추지 않는다. 이중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소명으로 받은 예언자적 사역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회를 본받는 교회의 모습과 복음의 축소 현상 때문이다.

20 세기에 진입할 때 우리는 '모더니티의 산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신도를 부식시키는 '산성'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면서 말이다. 그 산성은 현대의 데카르트 프로그램이라는 얄팍한 합리성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주장과 자존심에 대한 비판을 미리 배제시키는 전체주의적 예외주의 이데올로기다. 심각한 문제 배후에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현상 유지이기도 하다. 진지한 설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회피하는 자들, 기존의 특권과 권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회중 가운데서 어떤 도전도 피하기 위해 놀랍도록 경계심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오래 전 한 젊은 동독 복음주의 목사는 자기가 행한 모든 설교가 하나 같이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도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처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불가능성에 대해 설파하는 예언자적 설교자는 그와 똑같은 감시 아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삼시는 간섭주의자 하나님에 대한 지적 저항으로 인한 게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침투해 그 실체를 노출 시키려는 예언자적 설교를 가로막는 방어막과도 같은 지적 저항이 있다. 예언자적 사명은 예언자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즉 전체주의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최상의 합리성이나 이데올로기를 직면해도 결코 조롱받거나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와 더불어 계속 씨름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치 세상에 나오는 실제 등장 인물이요 결정적 행위자이신 것 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그리고 약간 도시적이긴 해도 예언자적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든 두가지 결정적 불가능성, 곧 하나님이닫힌 합리성이나 저항적인 이데올로기 앞에서 계속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내심을 증언한다고 주장했다.

예언자는 두가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

첫째 과업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다. 그 과업을 규정짓는 것은 첫 두 단어 곧 뽑고 파괴한다는 것이다.

사명의 둘째 부분은 두번째로 불가능한 일 건설하고 심는 일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심다 는 뽑다와 반대가 되고,건설하다는 파괴하다 반대가 된다. 예언자는 그 동안 세워진 것을 끝장 내게 되어 있다. 여기서 예언자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해 애기하는 게 아니라 언설로 그 일을 행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점을 유의하라. 더 나아가 그 전체주의의 힘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제도를 재건하고 쓸모 있게 만드는 것도 언설에 의해 이뤄진다. 기독교 전승에서는 추방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예수의 생애로 옮겨져서 그분의 몸에서 재연된다.

예루살렘의 붕괴는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재연되었다. 이스라엘 전승에서 메시야가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메시야의 죽음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예루살렘의 붕괴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로 간주되는 것이 분명하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한 쌍의 불가능한 사건은 세례의

집행에서 드라마틱한 성례전적 위력을 덧입게 된다. 세례는 추방 회복의 모델에서 도욱 급진적인 십자가 죽음, 부활의 모델로 움직이는 것으로, 금요일과 일요일의 재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실로 그분과 함께 묻히는 것, 옛 생활에 대해 죽는 것이다. 누구나 볼수 있듯,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그리고 세계 전번에 붕괴라는 불가능한 일이 진행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회복이라는 불가능한 일 에전과는 불연속성이 잇는 새로운 권력 관계로 새로운 진리의 형식으로 그런 회복이 출현하는 현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목회적 사역은 정치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수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볍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불가능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수 불가결한 목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그 담대한 수사적 전통과 깊이 맞닿아 있는 것은 오로지 신앙 공동체 밖에 없다고 믿는다.

오늘날 예언자적 사역의 첫째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세상을 단념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우리 시대에 붕괴가 집약적으로 나타나 것은 9.11 사태다. 그 공격은 규모는 작지만 난공불락의 무너짐 보장된 특권의 상실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오늘날 예언자적 사역의 과업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현재는 희망을 잃은 상태다. 우리시대에 절망에 빠지는 것은 소중이 여기던 옛 세상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구하고 회복하려던 노력이 헛되기 때문이고 공적 진행 과정은 도무지 통제 불능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이 미국의 예외주의를 무효화시켰다는 신학적 판결을 받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시점에 가까워진 셈이다. 예구살렘에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인정이다. 옛 도시를 재건했던 이들은 전혀 다른 예외주의 개념을 만들라고 요구받았다. 오늘도 그와 똑같은 과업이 우리 사회앞에 분명히 놓여있다.

CHAPTER 11. 실천 계획

1. 현장 탐방 (2017 년 1 월)

(1) 노숙자들을 돌봄

장소 : 자마이카 (1 월 11 일)- 박 드보라 목사

장소 : 루즈벨트 (1 월 18 일)- 심화자 목사

장소 : 할렘 (1 월 16 일)- 박항숙 권사

(2) 양로원 탐방 (2017 년 2 월)

롱아일 랜드 양로원 (2 월 7 일)- 김영환 목사

효신 장로교회 시니어 탐방 (10 월 13 일)- 김한나 집사

리틀랙 시니어 탐방 (10 월 20 일)- 린다 평신도

(3) 병원 심방 (2017 년 12 월)

뉴욕 병원 (12 월 11 일)- 헬렌 김

엘머스트 병원 (10 월 18 일)- 이미선

2. 돌봄 선교 (2017 년 3 월)

(1) 찬양 예배 (3 월 6 일)- 김 데이비드 목사

(2) 선교사님 초청 설교(4 월)

1)콜롬비아 선교사(4 월 13 일)- 김혜정 선교사

2)페루 선교사 (4 월 13 일)- 최은실 선교사

3)엘살바도르 선교사(4 월 24 일)- 황영진 선교사

4) 코트디부아르 선교사(4 월 24 일)- 김형구 선교사

(3)방문 설교 (5 월 26 일)

Iglesia Ministerio Evangelistico (Bronx)

3. 세미나 (2017 년 6 월 14 일)

(1) 영성 세미나 - 김수태 목사님

(2) 돌봄 세미나 - 박성원 목사님

(3) 찬양 세미나 - 김은경 교수

4. 실천 계획 1 (2017 년 7 월)

(1) 돌봄 상호간의 교류 확대 증진

1) 결손된 가정의 아이들 돌봄 (7 월 19 일)

a. 가르친다.

- 영어 : 김지혜 집사
- 수학 : 김피터 집사
- 노래 : 김순자 전도사
- 피아노 : 안경순 목사
- 키보드 : 김현미 강도사

b. 활동 함께함

놀이 기구, 음악, 미술, 창작(시) 활동 들을 통하여 친밀감을 강화시킨다. (Peter Kim)

c. 식사제공

한식,중식,양식과, 여러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준다.(조분화 권사)

d.상담해주기 : 도형 상담을 하며 성격을 파악해준다.(김정숙 목사)

e. 단기 입양 : 결손 가정 아이에게 단기 부모가 되어준다.(김한나 집사)

2)싱글맘 기술을 가리킴 (8 월~12 월)

a. 미용 기술

- 머리자르는 것 : 조이스 강(8 월 16 일)

- 파마하는 것 : 박항숙 (8 월 15 일)

- 고대기 사용법 : 김경순(8 월 15 일)

- 머리 염색 : 박 소니아(8 월 15 일)

b. 이용 기술 :

- 머리 감는 것 : 박항숙(9 월 6 일)

- 남자 머리 자르는 것 : 이동천(9 월 6 일)

c.Total 기술

- Manicures : 김한나 (10 월 8 일)

- Pedicure : 김한나(10 월 8 일)

- Massage : 김엘렌(11 월 28 일)

- Facial : 안경순(11 월 28 일)

d.재봉 기술

- 옷 만드는 것 : 김춘우 (12 월 10 일)

- 옷 고치는 것 : 이화자(12 월 20 일)

3)가정 학교 (2018 년 1 월)

a. 부부 학교   - 방지각 목사 (1 월 10 일)

b. 어머니 학교 - 김정숙 목사 (1 월 10 일)

c. 아버지 학교 - 방지각 목사 (1 월 10 일)

4)장학금 수여 (2018 년 2 월)

a. 목회자 자녀

- 장소 : 은혜 사랑교회(2 월 6 일)

- 식사 : 한식

b. 선교사 자녀들

장소 : 은혜 사랑교회(2 월 6 일)

식사 : 양식

c. 신학생들

장소 : 은혜 사랑교회(2 월 6 일)

식사 : 한식과 중식

예산은 후원금과 바자회에서 수입된 것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시에는 구제 헌금으로 비축해 놓은 헌금으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한다.

(2) 상호 협조하는 수수 공동체 (2018 년 3 월 15 일)

1) 탈진에 빠진 사람에대한 돌봄

2) 병자들의 돌봄

3) 노년들을 돌봄

(3) 기술 훈련을통한 복지 생활(2018 년 4 월 18 일)

1) 컴퓨터 가르치기

2) 사진기술 가르치기

3) 안경 검안 가르치기

5. 실천계획 2 (2017 년 1 월~2018 년 4 월)

*설문조사

돌봄 목회에 의식변화 상황 파악하고 실천 계획에 큰 기대

사이트 팀들과 진행해 나갈 것과 변화된 돌봄 목회에 대한 설문 조사

(1) 돌봄 상호간의 교류 확대 증진

1) 결손된 가정의 아이들을 돌봄(2017 년 1 월-4 월)

a. 가르친다: 영어, 수학, 노래, 피아노, 키보드 등의 악기

b. 놀아주기: 놀이 기구들을 통하여 친밀감을(강화)회복 시킨다.

c. 식사 제공: 한국음식과,여러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게해준다.

d. 상담해준다: 도형 상담을 해주며 성격을 파악해준다.

e. 단기 입양: 결손가정 아이에게 부모가되어준다.

2) 싱글맘 기술 습득(2017 년 5 월-7 월)

a. 미용 기술: 머리자르는것, 파마, 고대,여러가지 스타일을 가르친다.

b. 이용 기술: 머리감는것,머리자르는것을 가르친다.

c. Total 기술: Manicures, Pedicure ,Massage, Facial

d. 재봉 기술: 옷 만드는것,옷 고치는것을 가르친다.

3)현장 방문 상담 (2017 년 8 월)

a. 전통문화 교류 (8 월 8 일)

b. 음악회(8 월 15 일)

c. 영화 감상 (8 월 29 일)

4)장학금 수여 (2017 년 9 월)

a. 목회자의 자녀들(9 월 5 일)

b. 선교사의 자녀들(9 월 5 일)

c. 신학생들(9 월 5 일)

(2)상호 협조하는 수수 공동체 (2017 년 9 월- 12 월)

1) 베이사이드 시니어 센터들을 방문(9 월 12 일)

a. 사물놀이를 보여줌

b. 색종이 접기

c. 한국 무용 가르치기

2) 효신 시니어 센터 방문 (10 월 19 일)

a. 시민권 받는것을 도와준다.

b. 사회 복지 활동을 도와준다.

(3) 기술 훈련을 통한 복지 생활구원 (2017 년 11 월 -12 월)

1) 컴퓨터 가르치기(12 월 27 일)

2) 사진기술 가르치기(12 월 27)

3) 미술 가르치기(12 월 27 일)

6. 구조 변화 (2018 년 1 월~4 월)

의식 변화와 실천 계획 실행후 돌봄목회에대한 구조 변화에 한단계 높여서 연관성에 대한 설문 조사

(1) 전 교인 돌봄 훈련(2018 년 1 월- 2 월)

교회가 도미니카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에 소식을 나누며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유하며 서로 왕래도 하고 그들에게 공급할수 있는 모든것을 보내주며 저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공급하도록 교회에서 힘을 쓴다.이렇게 하면 교회 구조가 바뀌어 간다.

(2)주일 학교 교육(2018 년 3 월~ 4 월)

교회에는 어른들의 찬양대가 있지만 먼저 우리교회에 어린이 찬양대를 결성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도미니카 아이들을 찬양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 율동

그리고 미술을 가르쳐서 정서적으로도 저들에게 맞는 재능에 맞게 가르치며 인성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3) 이웃 나라와의 결연

자매 결연한 곳의 지역에 지도자들과, 경찰들, 소방관들,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사람들은 하나님을붙잡을 수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의 친척, 가족, 부모를 모두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내삶의 우선 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은 아직도 내 손에 붙잡고 있는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허탄한 신화', 곧 무익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익한 말들을 좇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274]

7.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 시킬수 있나?

(1) 변화된 삶은 버릴 것을 버림

사람이 태어난 성품은 어느 누구도 바꿀수가 없는것이다. 그러나 사람이할수 없는것을 교육이나,환경이나,종교나,사람이 생각할수없는 위기 상황 같은 으로도 사람을 변화 시킬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볼수 있었다. 사람을 잘 만나도 한 순간에 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수있다.

---

[274] 오태순. *목회상담학*. (서울: 쿰란 출판사. 2000).258

영적훈련의 거장인 리차드포스트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나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배워야합니다.

야고보서 1 장 27 절에는‘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야 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2) 변화된 삶을 연습하라.

변화된 삶을 연습 하라 하는 것은 변화는 시간이 지난다고 결코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연습은 훈련 입니다. 바울은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을 연상하며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변화는 하루 아침 갑자기 될수 없습니다. 한번의 예배로 내삶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275] 변화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연습, 하나님께 복종하는 연습, 교회 소그룹 예배(속회 등)에 참여하는 연습입니다. 변화한 사람이

[275] 홍영택. *가족 목회.* (서울: 기도교 대한 감리회. 2015).154

되었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276]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자기만의 방향성을 잃고 헤멜 때 우리 삶의 모양새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역시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좋을 것이다. 소르본 대학의 철학교수 미셸 퀴에슈는 내가 매일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철학 에세이로 써 내려갔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양손에나의것이들려있는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삶을 각자가 생각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277]

이 시리즈가 다루는 것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마음 이며 행동이며 생각이다. 철학이 매일의 행동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날 문득 생각이 나서 읽는 철학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으로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단기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로회복제나 영양제를 복용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 삶의 모양새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몸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처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역시 삶에서 가장

---

[276] 이관직. *목회상담학.* (서울: 미출판도서.1998).173

[277]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78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좋을 것이다. 급변화하는 21 세기를 맞이한 현대인들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해야 살 수 있는 21 세기에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는 개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하는것은 "타인과의 관계"이다. "타인"은 실제로 나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기기들과 콘텐츠"도 포함된다. 그 타인들은 나의 삶을 풍족하게도 해주지만, 끊임없이 나의 고유한 삶을 침범한다. "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과연 이 "타인들"과 행복한 관계를맺을수 있을 것인가? 범람하는 타인들 앞에서 "나"를 찾기는 어려워보인다.[278]그래서 Michel Fuech 가 들고 나온 방법은 "내가 매일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사랑하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설명하다), 설명하는 중에 타인의 이해를 받지 못해 수치심 느낀적은 없는지(수치심), 매일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걷다), 잘 먹고 사는지(먹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건낼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야기하는지(말하다), 내가 정말 원하는건 무엇인지(원하다), 심지어 어제 분리수거함에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건지(버리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살다)를 등을 생각보기를 원한다. [279]

"진정한 사랑의 아픔은 사소한 고통이 아니라 진짜 고통, 가장 격렬한 고통 중 하나이다. 아무리 엄격하고 어른이 다 된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고통

[278] 박명희. *돌봄의 미학*. (서울: 푸른 사상. 2011).257

[279] 황의영. *목회 상담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68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 진정한 사랑의 상실은 계획의 실패에서 오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실에 대한 애도이다.

8. 돌봄의 실천

(1) 나눔의집 방문 (박성원 목사님 1 월 5 일)

박성원 목사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며 인척과 친척들이 없는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곳이다.신분이 없어서 직업도 구할수 없고 밖으로 자우롭게 다닐 수도 없는 분들이 있는 곳이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을 돌볼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며 후원 없이는 박성원 목사님 혼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부인과 이혼을 하고 갈곳이 없어서 오신분도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부모에게 버림 받은 분도 계시고,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왔다가 버림받은 여자분도 있고, 신분이 없어서 한국으로돌아갈려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곳에 계신 안차까운 분도 계시며, 나이가 들어서 중풍에 걸려서 가족들로 부터 버림 받아 오갈데가 없어서 오신분도 계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 오신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빚을 지고 이곳에와서 기거하며 살길을 모색하는 분도 있다.

그리고 이곳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할니라도 박목사님은 모든분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직업도 찾아주기도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의 생필품까지 공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봄과 나눔의 일을 몸소 행하시는 목사님이시며 늘 겸손한

마음과 중심으로 저들을 볼보고, 섬기며, 항상 웃으시는 얼굴로 저들을 섬기는 것을 볼때 믿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이짐을 나누어서 감당해야 하겠다는 마음이들기 마련이기에 뉴욕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음식으로 섬기시고 물질로도 섬기시는 것을 제가 듣고 , 보고, 체험을 하니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나도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섬길때 정말 다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마음이 생겼다. 이런 기쁨을 나혼자만 갖는것이 꼭 죄가될것 같은 생각이 든다.

(2) 어머니 기도회 (나명자 목사님 1 월 18 일)

장소: 기쁨과 영광 교회

어머니 기도회는 한달에 한번씩 마음에 상처 받고, 남편으로 부터 버림 받고,자녀들로 인해서 기도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임이다.이날은 나명자 목사님이 딸로 인해서 기도하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라면 모든 어머니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으리라 믿는다.시종을 울면서 자기의 간등을 하는데 많은 어머니들도 눈물은 닦으며 간증을들었다. 딸의 이름은 수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몇달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바라볼때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고 하며오히려 내가 저 침대 위에 누워있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께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눈물로 몇개월을 딸이 깨어나기를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오고가며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러 동료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도하고 밤을세워가며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원하며 때로는 내죄로인한것이 아닌가하며 회개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외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가지고 기도했을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셔서 말도하고 웃기도하고 자기 엄마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며신앙 간증도하고 그후로는 회복이 빠르게 되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면서 이후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게 해달라고 어머니 기도회에 아오신 어머니들에게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울면서 간증을 할때 많은 어머니들이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들도 느끼고 체험 하는 것이 거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 엄마들이 나의 어려움은 저 목사님이 당한 어려움에 비교가 안된다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가는 어머니들내가 힘이들어도 나명자 목사님이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힘을 얻고 가는 어머니들 각자가 자기들의 모양으로 귀한 시간이 되었었다.

9. 과제 평과

(1) 의식 변화에 대한 결과 기대

1)문화적 접근

a. 정기적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며, 상담, 예배, 기도, 찬양을 하며 신앙의 성장을 확인하며 격려한다.

b. 영화나 동영상을 통해서

다민족 돌봄이들 간에 서로 다른 나라의 영화 감상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c. TV 를 통해서

T V 나 뮤직컬을 보며 서로의 인격 향상과 자녀들 간의 교육의 질을 높이며 이전에 문화생활에 생각조차 못하던 사람들이 대범해 지기하고, 세상에 도전도하며 몰랐던 세상을 세상을 경험하며 문화 생활을 즐겼다.

2)현장 탐방

a. 돌봄의 기술지도

배운기술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 손님을 대하며 자존감을 갖고 처음만나는 사람들 이라도 두려워 하지않고 환경에 잘적응 하고 배운것을 유감없이발휘하고 일정한 소득도 생겼다. 돌봄의 기술지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더불어 경제적인 능력도 생겼다고 좋아했다.

b. 돌봄이들 심방

- 가정심방
- 병원심방
- 양로원심방

- 독거노인 심방

c. 예배와 설교

- 가족 예배: 매주 3 회

- 구룹 예배: 매달 2 회

d. 세미나(이 다윗 목사)

예배와 찬양 : 찬양이 예배에 있어서의 중요성

(2) 실천적 참여 활동에 대한 결과 기대

1)돌봄이 구룹 형성

a. 돌봄이 모임

평균 월 2 회시작은 저조했으나 갈수록 참여도가 증가 되었다.

b. 돌봄이 야유회

참여도가 생각외로 많은 가족이 참여의식 변화와 실천적 참여 활동을 통해서 향상 되었다.

2)돌봄 목회 영성 훈련 수련회(강사: 권순호 목사)

a. 참여도

돌봄들이 2 박 3 일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석 중에 75%가 참석을 했다.

b. 호응도

참석자의 호응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c. 만족도

돌봄이들 에게는 생소한 프로그램이 였지만 참석 하기전하고 참석 후의 만족도는 75%의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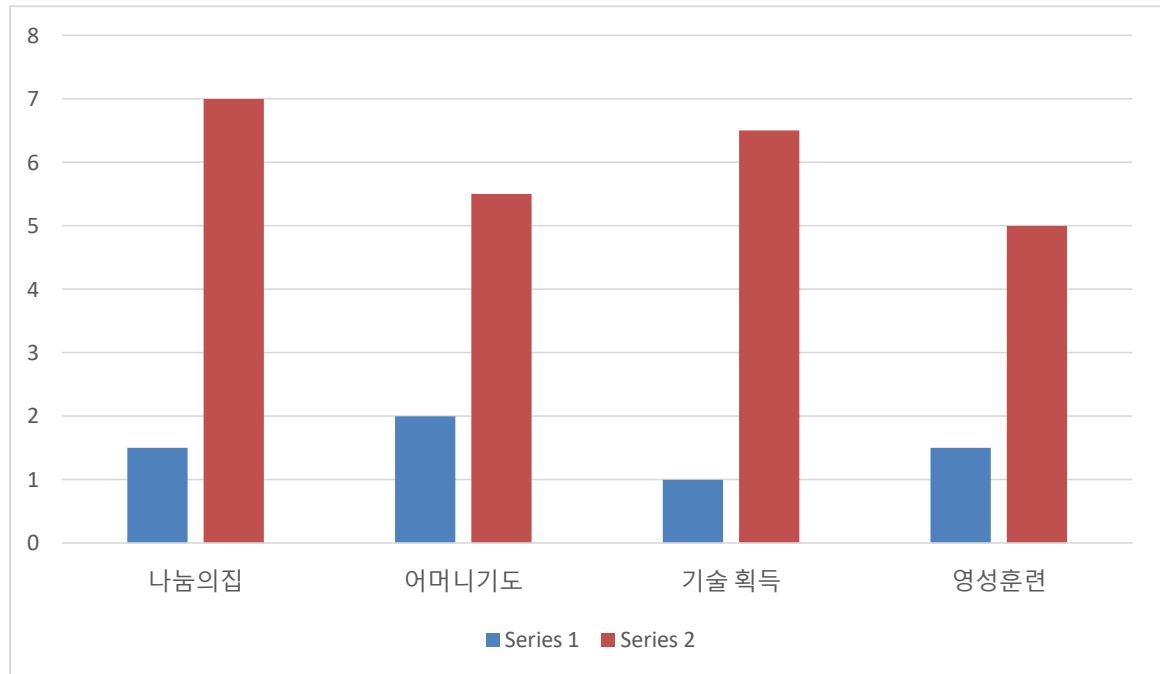
(3) 구조 변화에 대한 결과 기대

1)돌봄이 구룹 예배

매월 2 회로 모든 사람들의 협력으로 잘 모여지고 예배 후에는 노방 전도하며 구룹을 활성화 시키고 근처 교회로 인도하기도 한다.

2)돌봄이 영성 훈련 수련

95% 참여, 2 박 3 일이라는 시간적인 부담과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란 것이 있었으나 참석자들의 만족도는 좋았다.

실천 계획 및 구조 변화

10. 목회 능력 개발

(1) 사이트 팀

1)연구반

심 화 자 – 목회자

김 정 숙 – 목회자

박 항 숙– 평신도

이 은 수– 목회자

2)활동 내역

매주 1 회 만나서 토의함

돌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을 논의

논문에 제기할 것을 질의 토론함

3)기여 사항

돌봄이 구룹팀과 토의를 통해서 논문의 방향을 잡다.

돌봄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 시켜 주었다.

돌봄이들이 다른 돌봄이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다.

4) 능력 평가 : 돌봄이 구룹팀들의 의견이 풍부하게 실천이 된것에 높은평가이다.

돌봄의 목회를 위한 영성운동가, 설교가, 사회 사업가에 대한 목회 능력을 보완 개발이 되었다.

(2)목회능력 개발의 중요성

1) 목회자의 자질

a.영성- 말씀, 기도, 성령 체험

b.지성- 학문, 세계관/시사, 가치관, 윤리관

c.체력- 생활 습관 등,운동을 정기적으로참여

2) 목회 훈련과 비전

a. 농업을 통한 목회

b. 농장을 통한 목회

c. 종합 예술을 통한 목회

d. 문화적 사역(합창.기악.댄싱.등등)

3) 인간 관계

a. 도서

목회적 돌봄목회, 목회상담과 상담목회, 성경적 돌봄,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b. 교육

통신교육, 심리학 공부, 인터넷

c. 세미나

실력 있는 강사 초빙

d. 인간 개발 동아리 활동

부모와 자녀.친구의 자녀들.

4) 위기 관리의 능력

a. 분노 조절의 능력:

b. 재정 관리 능력

c. 스트레스 해소

5) 예배 관련

a. 설교 훈련- 강해 설교, 제목 설교, 절기 설교 (황의춘 목사)

b. 상담- 개인 상담, 그룹 상담 등 (김경수 박사)

CHAPTER 12. 결론 및 제언

돌봄이란 것은 우리의 삶속에서 필수 적이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소통적인 방법을 시도한 결과 괄목할만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We have given a considerable fruit as a result of trying out the pervasive method throughthe article that caring is essential in our life.

그 전에는 돌봄이란 특정된 사람에게만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했다.

Before that I thought that caring was only needed for a specific person.

그러나 정기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본 결과 교회가 여러가지 면에서 돌봄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여야한다.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ssues on a regular basis, the church should exert its utmost efforts in various aspects of caring.

특히 돌봄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

Especially caring prayer movement is needed.

돌봄 목회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Care ministry is a necessary part of spirituality because it focuses on the holistic interest of those who live in crisis.

교회의 주요 비전의 공유, 예배 출석에 대한 증가, 소속감의 증가, 어려운 이슈들에 대한 능력의 향상과 자신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Sharing of the main vision of the church, increased attendance at worship improved ability and confidence in difficult issues.

문화적 세대 차이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었기 때문에 감히 어디서 부터 시작 할 줄 알지 못했다.

The difference in cultural generation was great that I dare not know where to start.

그러나 다양한 성경적, 성서적, 사회학적, 심리학적에 의하여 입증 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되었다.

But through various biblical, biblical,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ly proven methode.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적어도 실망 하지않는 결과가 있었다.

There were at least no disappointments when approaching in various ways.

두려움도 사라지고 돌봄의 여러가지 형태로 그들에게 힘이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Fear was lost and became a force life and a force for them in various forms of care.

삶의 방향과 의식이 변화가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I was able to produce beautiful results that changed my life direction and cdnsciousness and I got confidence.

비록 짧은 시간이였지만 이러한 원리를 적용했음에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

Even though it was a short time, there was a beautiful result even though applying this principle.

아름다운 결과 물이 있었음에 자부심이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

I am proud of my heart because I have beautiful results.

물론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혹은 더 향상되야하는 부분들도 있다.

There are, of course, thing that are not covered in this paper or that need to be improved.

오늘날에는 여러 기관에서 돌봄을 많이 하는곳들이 있다.

Today, we have a lot of care in different institutions.

간혹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봄이란 명목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다.

People who do occasional disgraceful work of caring with the mistakes of people have also seen many people through mediators.

특히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체우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찌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In particular. There are people who are soldiers who sell their names and fill their desires, so that the faces of people with beautiful hearts are faded.

돌봄으로 인하여, 그리고 세미나를 인하여, 의식 변화가 생기고, 또한 실천적인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다.

I took care of myself and gave a seminar, which caused a change of consciousness, a practical chang, and a confidence.

하지만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욱 더 개발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However, I realized that there are areas that need to increase and increase ongoing improvements.

이 사역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This ministry is not limited to those who are nearby.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하며, 다른 인종들 함께 사는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뚝 서서 시야를 넓혀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We need to look at the wider worod, broaden our horizons, and live in a community with other races. We need to work hard yo stand up and broaden our horizons.

본 논문을 쓰면서 나에게 없었던 자부심도 생기고 알지 못해서 할수 없었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As I wrote this paper, I had the self esteem ane confidence that I could not know, but now I can do anything.

CHAPTER 13. 참고 도서

Flynn. Mike & Doug Gregg. 오정현 역.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서울: IVP. 1995.

Gerkin. V. Chares. 유영권 역. *목회적 돌봄 개론*. 서울: 은성 출판사. 1999.

John A. Sanford. 심상영 역. *탈진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Louse McBumey. 윤종식 역. *사역자 상담*. 서울: 두란노. 1995.

Howard. Clinebell. 이종헌 역. *부부 성장과정*.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H. W. Stone and G. Peterson. 오성춘 역. *위기 상담*.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Jack Boltswick. 송경숙, 권영석 역. *기로에 선 남성*. 서울: IVP. 1997.

John Bradshaw. 임오희 역. *가족*. 서울: 학지사. 1987.

John Caldimo Deetou. 임성호 역. *간략히 살펴본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하나 출판사.1998.

John K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8.

John Martin. 최대훈 역. *이혼과 재혼*.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78.

Melvin J, Steinbron. 서병채 역.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서울: 한국 연구소. 2001.

Michael P Nichald C. Schwartz . 김역애 외 7 인 역 . *가족치료*. 시그마프레스.2002.

Patton. Join. 장정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 출판사. 2000.

Pincus, Lily. 이인복 역. *죽은 이와 남은 이를 위하여*. 서울: 홍익 출판사. 1983.

Simende Tim. 정동섭 역.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서울: 요단 출판사. 2002.

Tapscott Betty. 구자연 역. *적 치유의 기적*. 서울: 은혜 출판사. 1998.

Urban T. Holmes. 김외식 역. *목회와 영성*.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Yeagley Larry. 천예원 역. *슬픔을 극복하는 길*. 서울: 한국 연합회 목회부. 1985.

Walter Paul. 박상필 역. *목회적 돌봄인가 간섭인가*. 서울: 나침판사. 1992.

신학과 현장(제 7 집)*설교와 목회적 돌봄*. 서울: 목원 신학 연구소. 1977.

김경수. *목회상담과 사역, 목회와 돌봄 사역*. 서울: 서로 사랑사. 2005.

김기복. *임상목회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전망사. 1993.

김영환. *죽음에 대한 사목적 배려*. 서울: 신학 전망. 1975.

김경수. *목회 돌봄의 원리와 방법*. 서울: 서로 사랑사. 2005.

홍용택. *흔들리는 가정*. 서울: 성서 연구소. 2001.

Charles Gagkin. 안석모 역. *살아 있는 인간 문서*. 서울: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1998.

Tim Sledge. 정동섭 역. *가족치유 마음치유*. 서울: 요단 출판사. 1996.

Thomas Moore. 김영운 역. *영혼의 돌봄.* 서울: 아침영성 지도 연구원. 2007.

Paul Turunier. 권달천 역. *인간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Henry Cloud. 양은순, 오부운 역. *변화와 치유.* 서울: 홈. 2000.

A. J. Shovel. 이진 역. *인생 반전* 연습. 서울: 명진 출판사. 2004.

Benner. G. David. 이정기 역. *전략적 목회 상담*. 서울: 예영 미디어. 2001.

Benner,G,David. 이만홍, 강현숙 역. *정신 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하나학사.2000.

Capps Donald. 문희경 역. *인간의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Capps Donald. 문희경 역. *인간의 이해.*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8.

강정호. *내적 상처의 회복과 상담*. 서울: 한사랑 가족 연구소. 2000.

Don Hswkins. 김은철 역. *탈진된 마음의 치유*. 서울: 규장. 1995.

David Platt. 최종훈 옮김. *RADICAL*. 2011.

Francis Chan. *Multiply*. 서울: 두란노. 2012.

Kyle Idleman. 배용준 옮김.*Gods at War*. 서울: 규창 출판사. 2013.

Jonathan Bonk. 문상철 외 22. *선교 책무 Accountability in Missions*.

James H Cone. 현영학 옮김. *눌린자의 하나님*. 1980.

Agnes S. Jean gray tory. *THE HEALING LIGHT*. 2006.

소기범. *하나님 만나기(영성 형성의 실체*)

조동춘. *의식있는 여성이 행복을 만든다*. 서울: 비전 코리아. 1998.

위거찬. *Bible and Modern Society*. 2004.

Bernard Brandon Scott . 김기석 옮김.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

이정암. *타문화권 선교 전략*. 서울: 쿰란 출판사 1996.

Min byung gap. *Korean in America*. Seoul: 유림문화사 1991.

Min Kyung bae. *한국 기독 교회사*. 서울: 쿰란 출판사. 1990.

Moltmann jurgen. *오늘의 신학이 무엇인가*. 1992.

Oh, Kyung Hwan. *종교 사회학* .서울: 수광사. 1990.

Luedtke luther S. *미국의 사회와 문화*. 서울: Tam GU Dang. 1991.

이어령. *지성에서 영성으로*. 서울: 열림원. 2010.

Lee Sang Hyun. *이민 목회*. 서울: 쿰란 출판사. 1987.

Ji Myung Kwan. *Korean Litenature History*. 서울: 삼민사. 1988.

Tom, Wright. *Justtification Tom Wright*. 2014.

변화순.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 개발원. 1996.

임락경. *임락경의 영성가 이야기*. 서울: 홍성사. 2014.

Young Chang Kim.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 서울: 쿰란 출판사. 2011.

김중언. *사랑하는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서울: 유니콘 그래픽스. 2003.

이동원. *인생여행(약속의 땅을 향한 삶의 로드맵*). 서울: 두란노. 2009.

장향희.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서울: 쿰란 출판사. 2004.

Linda Han. *AMAZING GRACE*. 서울: 포이에마. 2009.

황성주. *내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서울: 서로 사랑 출판사. 1998.

정석기. *세계 속의 한인 교회*. 서울: 쿰란 출판사. 2006.

김영 찬. *종말에 사는 성도의 삶*. 서울: 쿰란 출판사. 2011.

이광복. *야곱의 위기 극복*. 서울: 흰돌 도서 출판사. 2009.

Tomas Joo Nam. 조용기 역. *천국은 확실히 있다*. 서울: 서울 말씀사. 2003.

Joel Osteen. 엔터스 코리아 역. *긍정의힘*. 서울: 두란노 서원. 2005.

황수관.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Howard W. Stone. 최민수 역. *돌봄이 있는 교회*. 서울: 솔로몬. 2009.

소강석. *엿 장수 목회 이야기*.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양동 수.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서울: 수 엔터 테인 먼트 출판사. 2004.

조용기. *새로운 자화상(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서울: 서울 말씀사. 200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 세브란수 병원편. *말씀과 돌봄*. 서울: 전망사. 1988.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박성래. *마음의 양식*. 서울: 광야 출판사. 1999.

신 섭. *7 전 8 기의 은혜* . 서울: 하늘 기회사. 2006.

A. J. Cronin. 최봉식 역. *지성*. 서울: 문화사. 1978.

김 길. *전적 의존*. 서울: 규장 출판사. 2011.

강영우, 석은옥. *어두움을 비추는 한 싸의 촛불*. 서울: 종로 서적. 1990.

김종훈. *행복한 교회의 삶*. 서울: 쿰란 출판사. 2008.

라홍채. *다니엘*. 서울: 쿰란출판사. 2013.

옥선화,정민자. *결혼과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3.

Steven Hawthone. 정옥배 역. *Ralph Winter*. 서울: 예수 전도단. 2010.

Steven Niril. 홍치모. *오만규 공역*. 서울: 성광 문화사.2006.

정석기.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서울: 쿰란 출판사. 2005.

전석기. *선교로본 세계 한인 이민사*. 서울: 쿰란 출판사. 2000.

Andrew Muray. 서보섭옮김. *선교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서울: 한국로고스 연구원. 1987.

John Patton.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 출판사. 2000.

김경수. *돌봄과 상담.* 서울누가 도서 출판. 2007.

최민수. *목회 상담과 돌봄*. 서울그리심 출판사. 2008.

Mary K. Baxter.*A DIVINE REVELATION OF HEAVEN*.1979.

John Pattern. 장성식 옮 .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은성 출판사. 2000.

이용남. *죽음의 의미*. 서울: 전망사. 1980.

정기선.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 가족의 실태와 전망.* 서울: 집문당. 1997.

김경수. *돌봄과 상담*. 서울: 누가 도서 출판. 2007.

김경수. *돌봄*. 서울: 서로 사랑 출판. 2006.

김경수. *성경적 돌봄*. 서울: 목양 도서 출판. 2012.

Nikki Gumble. 알파코리아 역. *알파코스 운영 방법*. 1998.

임사회 사업연구회. *현대 가족 문제*. 서울: 학문사. 1998.

Kan Sande. 신태현 역. *화평하는 자*. 서울: 피스메이커. 2000.

Bill Donahue. Russ Robbinson. 김주성 옮.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 가지 실수*. 국제 제자 훈련원. 2003.

Gerald Corey. 한기태 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성광 문화사. 1985.

김청송.*사례 중심의 이상 심리학*. 서울: 싸이북스. 2015.

김진숙 외 5 명. *집단 상담*. 서울: 사회 평론. 2016.

전영복.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엘멘 출판사. 1993.

Mark R Mcminn.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6.

Roy Oswald. *사역자의 자아 돌봄*. 서울: 그리심 출판사. 2007.

김경수. *하나님의 돌봄 기도*. 도서 출판 누가. 2007.

전요섭. 김안규. *영혼 돌봄의 이해*.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1.

Margaret Zliss Konfeld. *공동체 돌봄과 상담*.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3.

김상인. *목회 돌봄 상담*. 한국 전인 교육 계발원. 2003.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고 출판. 2013.

Tomas More. *영혼의 돌봄*. 서울: 아침영성 지도 연구원. 2007.

김수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0.

John Pattern.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은성 출판.

최창국. *양혼 돌봄을 위한 기독교 영성*.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3.

Indie Caligoair. *영혼의 돌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Neil Pembroke. *예배와 목회 돌봄*.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

Evan Flesberg.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6.

손운산. *따뜻한경험 흐뭇한이야기(상처입은 현대인을 위한 목회*). 기독교 감리회. 2013.

안미옥. *도박 중독의 이해와 돌봄*.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4.

Donald Caps. 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래서원. 2001.

김대현 외 7 명. *배움과 돌봄의 학교 공동체*. 서울: 학지사. 2009.

Carrie Doehring. 오오현. 정호영 역. *목회적 돌봄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12.2

C. Charles Bachmann. 최혜란 역. *목회적 돌봄을 위한 애도 다루기*. 서울: 학지사. 2011.

Henry Nawin. 윤종식 역. *돌봄 영성*. 서울: 두란노 서원. 2014.

김지수.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서울: 비전과 리더쉽. 2010.

Tara Brack. 김선경,이재석 역. *자기 돌봄*. 생각 정원. 2013.

김지영. *신나는 초등 돌봄교실 만들기.* 서울: 도서 출판 아이북. 2014.

Virginia Held. 김희강,나상원 역.*돌봄 윤리.* 서울: 박영사. 2017.

Christina Munk. 박규호 역. *행복을 찾아가는 자기 돌봄.* 서울: 더 좋은책. 2016.

Daniel Engster. 김희강 역. *정의의 심장.* 서울: 박영사. 2017.

Mark Cobb, Furalski. 용진석 2 인 역. *영적 돌봄의 연구 4.* 서울: 카톨릭 대학교 출판부. 2016.

Joan Tronro. 김희강, 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서울: 아포리아. 2014.

김대현 외 6 명. *배움과 돌봄의 학교 공동체.* 서울: 학지사. 2005

Donald Capps. 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윤정한. *방과 후 아동 돌봄교실 지도 자료집.* 서울: 해피앤 북스. 2013.

Eva Feather Karde. 나사원. 김희강 역. *사랑의 노동.*서울: 박영사. 2016.

John Pattle. 윤덕규 역. *영혼 돌봄의 목회.*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1.

김수경. *돌봄의 위기 관리 능력.* 2005.

David G. Banner. Gary Moon. 신현복 역. *영성지도 심리 치료 목회강담 그리고 영혼의돌봄.* 아침영성 지도연구원. 2011.

경향 신문. *벼랑 끝33 인의 외침.* 서울: 경향 북스. 2013.

David G. Banner. 김찬규. 전요섭 역. *영혼 돌봄의 이해.*서눌: CLC, 2010.

Roger Hurding. 김예식 역. *치유 나무.*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0.

Melvin Gtinbrun. 홍용표 역. *평신도 목회자를 깨워라.* 이레 서원. 2000.

Mindy Calicowaier. 조게관 역. *영혼의 돌.* 생명의 말씀사. 2008.

Bruce Richfield 외 공저. *하나님께 바로서기.* 예수 전도단. 2000.

Stoper. 박건택 역. *남.아버지.친구.목회자로서의 인간칼빈.*엠마오. 1983.

David Seamans. *상한 감정의 치유.* 두란노. 2001.

Emil Durergem. 홍보종우 역. *에밀 뒤로켐의 자살론.* 청아 출판사. 2008.

Elizabeth Quiblerose. 박충구 역.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 가치창조. 2001.

Tommy Tamy. 이상준 역. *다윗의 장막.* 토기장. 2004.

Jim Conway. 한성열 역. *남자 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 학지사. 1992.

Jack Boltswick. 송경숙. 권영석 역. *기로에 선 남성.* 서울: IVP. 1997.

John Kaldimo Ditou 임성화. *간략히 살펴본 칼빈의 생애와 업적.* 하나 출판사. 1998.

john Kalvin 양낙홍. *기독교 강요.*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8

Charles Gagkin. 안석모 역. *살아 있는 인간문서.*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1998.

Tim Sledge . 정동섭 역. *가족치유 마음치유.* 요단 출판사. 1996.

Thomas Moore. 긴영운 역. *영혼의 돌봄.* 아침영성 지도연구원. 2007.

Paul Turunier. 권달천 역. *인간치유.* 생명의 말씀사. 1996.

Henry Cloud. 양은순. 오부운 역. *변화와 치유.* 서울: 홈출판사. 2000.

A, J Yevlier. 이진. *인생 반전* 연습. 명진 출판사. 2004.

Benner. G. David. 이정기 . *전략적 목회 상담.* 예영미디어. 2001.

_______, 이만홍. 강현숙 역.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 하나 학사. 2000.

Capps. Donald. 문희경 . *인간의 이해.* 도서 출판 두란노. 1998.

Charles Sell. 정동섭. 최인희 역.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두란노. 1992.

Don Hawkins. 김은철 역. *탈진되 마음의 치유.* 규장 출판사. 1995.

Flynn. Mike & Doug Gregg. 오정현 역. *내적치유와 영적성숙.* IVP. 1995.

Gerkin. V. Chares. 유영권 역. *목회적 돌봄 개론.* 은성 출판사. 1999.

John A Sanfor. 심상영 역. *탈진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도서 출판나단. 1995.

Louis McBurny. 윤종석 역. *사역자 상담.* 두란노. 1995.

Howerd, Clinebell. 이종헌 역. *부부 성장과정.*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H. W. Stone and G. Peterson. 오성춘 . *위기 상담.*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John Mati. 최대훈. *이혼과 재혼.* 아가페 출판사. 1978.

Melvin J. Steinbron. 서병체 역.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한국 엘피엠연구소. 2001.

Michael P Nichald C, Schwartz. 김역애 외 7 인역. *가족치료.* 시그마프레스. 2002.

Pincus. Lily. 이인복 역. *죽은 이와 남은 이를 위하여.* 홍익 출판사. 1983.

Patton. Join. 장정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은성 출판사. 2000.

Simande Tim. 정동섭 역.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요단 출판사. 2002.

Tapscott. Betty. 구자원 역. *내적 치유의 기적.* 은혜 출판사. 1998.

Urban T. Holmes. 김외식 역. *목회와 영성.*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Yeagley Larry. 천예원 역. *슬픔을 극복하는 길.* 한국연합회 목회부. 1985.

Walter. Paul. 박상필 역. *목회적 돌봄인가 간섭인가.* 나침반사. 1992.

W. E. Oates. 정태기 역. *신앙이 병들때.*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Whitfield, Charles. 김용교, 이인출 역.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도서출. 1995.

Willson, Sandra. 이관직 역. *알코올중독상, 기독교 상담시리즈 13.* 두란노 서원.1995.

Wise, Catoll. 이기춘 역. *목회적 개론.* 대한 기독교 출판. 1984.

Howerd W Stone. 최민수 역. *돌봄이 있는 교회.* 솔로몬. 2009.

안미옥. *도박 중독의 이해와 돌봄.* 총신 대학교 출판부. 2014.

Jeffrey Hamilton. 윤인 외 3 인 역. *전인적 돌봄을 위한 게슈탈트 심리치료.* 학지사. 2014.

정진주.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한울 아카데미. 2012.

김리라. *돌봄의 제왕.* 은성 출판사. 2014.

Klaus Binckler. 신명숙 역. *목회상담 영혼 돌봄.* 학지사. 2007.